신 천
대중학살사건
공판 문헌

1952 · 국립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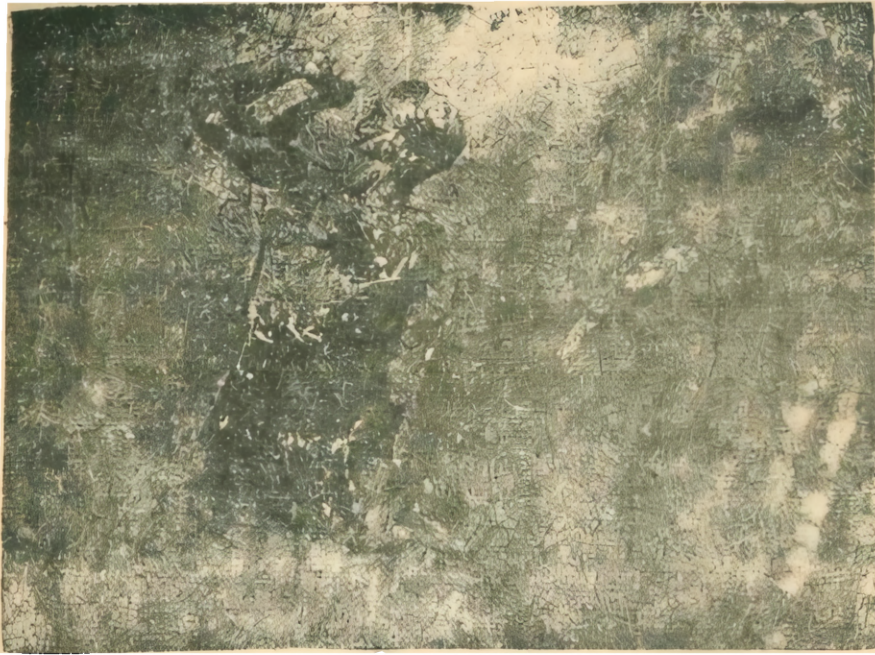
신천대중학살사건
공판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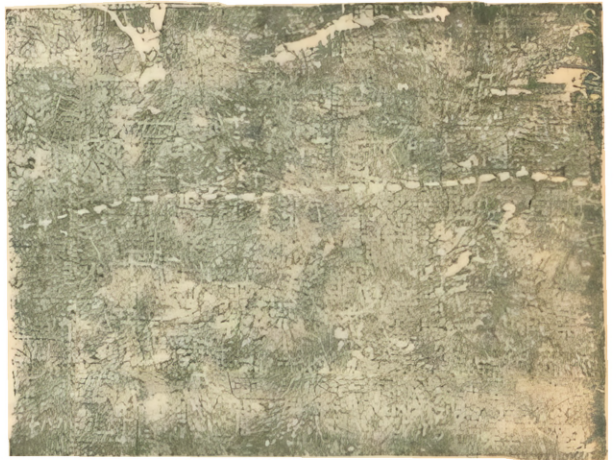
「1951년 4월 17일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 및 형법 제71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허필순 동 최한우 동 윤명원과 전시정령 제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리두현등 4명에 대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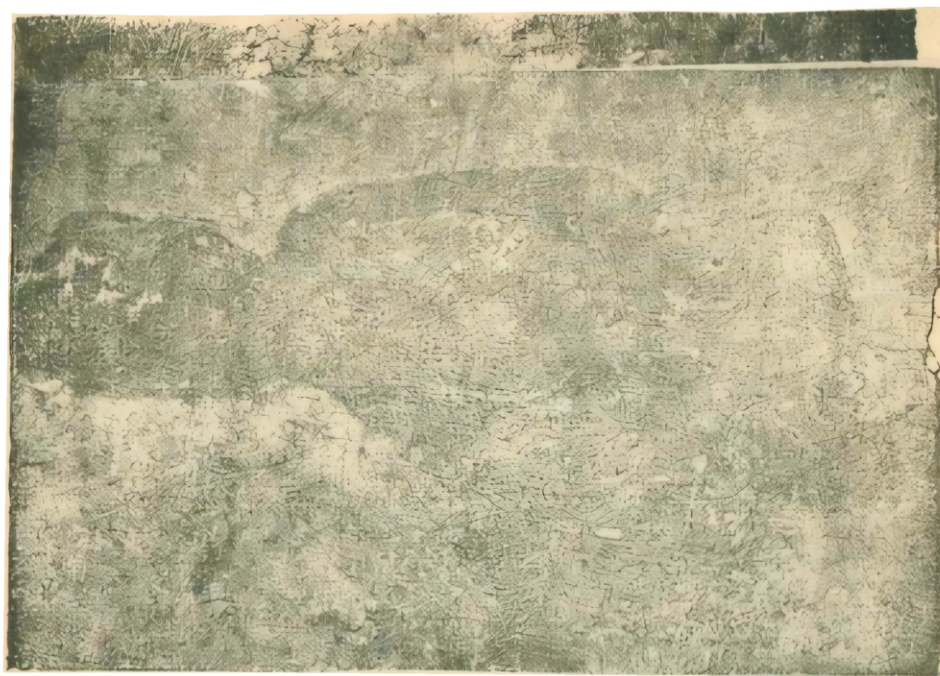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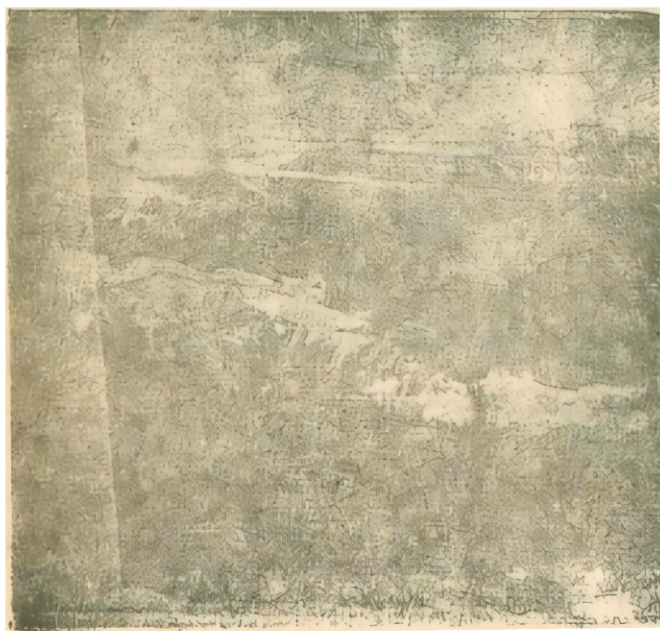
국립출판사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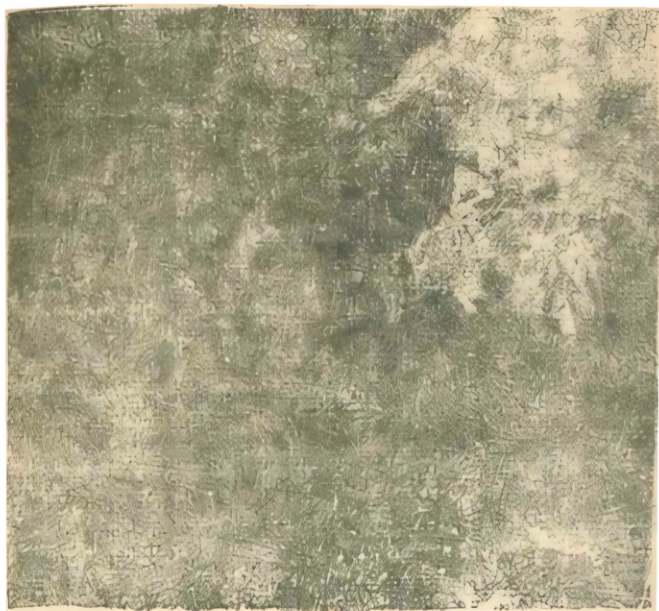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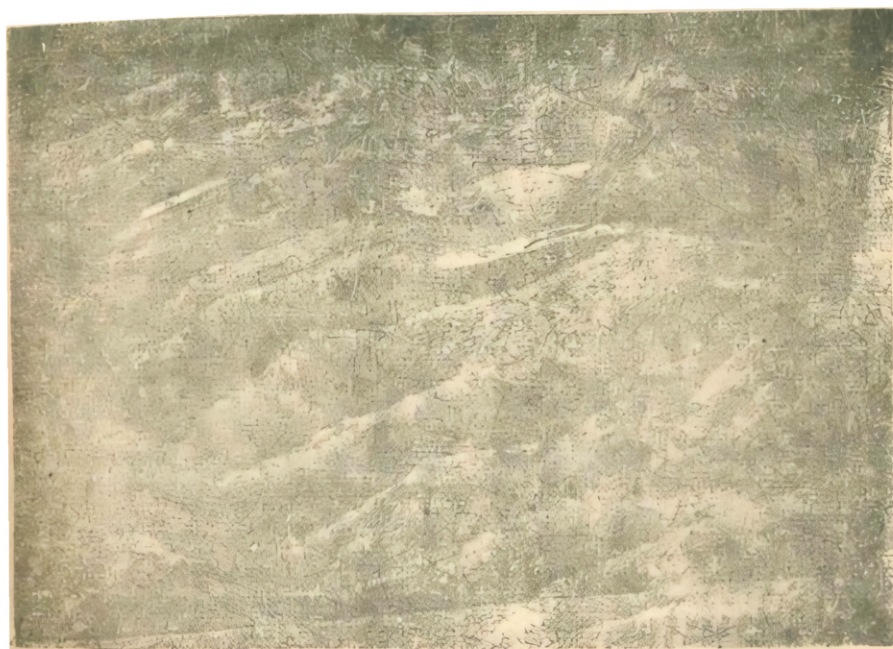
증 거 품

증제八호
원암의 창고에서 소살당한
애국자들의 시체

증제 10의 2호

1950년 10월 적들이 신천군을 강점하자 동월 18일에 이미 체포 구금된 로동당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공군도 공망 방공호에 몰아넣고 학살한 장소

증제 11의 2호

신천군을 강점한 해리슨의 지령에 의하여 애국인민들과 그들의 가족 520여명을 총살 또는 다이나마이트로 폭사등 방법으로 학살한 군내무서 뒷 방공호

증제二〇호

미군놈들이 신천군 북부면 서창리에서 어떤 애들 업은 처녀들 잡아다가 기성농민의 자식이라하여 생매장한 후 발굴한 시체

증제二四호

신천군 온천면 온천리에서 무고한 인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시체

서 언

조선 인민군의 전략상 일시적 후퇴기에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침입하였던 침략자 미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야수적 방법에 의하여 조선의 애국자들과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무차별 학살하였다. 이 비인간적 만행에는 미제의 간교한 술책에 적지않은 락후분자들이 리용 당하였던 것이다.

1952년 5월 25일 부터 동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형사부는 미제국주의 군대가 신천군 주민을 대중적으로 학살한 범죄적 만행에 직접 참가하였던 죄료 기소된 피소자 허필순 동 최한우 동 리두현 동 윤명원에 대한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다. 동공판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형사부장 박경호를 재판장으로 하고 참심원 리홍렬 동 김문석을 성분으로한 재판소가 심리하였는바 소추자로서는 최고검찰소 검사 안병진 외에 미제국주의 군대의 조선에서의 범죄적 만행을 규탄하는 사회 소추자로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대표한 주황섭과 신천군 인민을 대표한 심성순 량인이 참가하였다.

피소자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공선 변호인 지영대 김한준 현창형이 각각 변론하였다.

본 공판문헌은 공판에 관한 공식적 자료인 기소장 국가검사의 론고 사회 소추자들의 론죄 변호인들의 변론 및 판결문과 더부터 동공판 속기록에 기재된 공판에서의 피소자 및 증인들의 진술 중에서 발취한 것을 수록하였다.

목 차

기 소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황해도 신천군에서 미제 침략자들이 일시적 강점시기에 민간주민을 대중적으로 학살한 범죄적 만행에 직접 참여한 피심자 허필순 동 최한우 동 리두현 동 윤병원에 대한 1951년 4월 17일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71조 사건。

미제국주의 자들은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며 조선을 식민지화 하고 중국과 쏘련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환시키려는 자기들의 략탈적 계획을 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실시하여 왔다。

그들은 리승만도당과 같은 조선인민의 반역자들을 규합 추동하여 공화국 남반부에 팟쇼 학살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드디어는 평화적 방법으로 자기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지망을 유린하고 면밀하게 작성된 계획에 따라 1950년 6월25일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배신적 무력침공을 개시케 하였고 뒤이어 자기 륙 해 공군을 투입하여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의 길에 들어섰다。

미국 간섭자들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 개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과정에서 국제법의 초보적인 원칙들과 인류도덕을 난포하게 침범하면서 전율할 범죄적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이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허다한 범죄적 만행 즉 비방어 도시와 농촌에 대한 무차별 폭격 평화적 주민에 대한 대량적이며 잔인한 학살 고문 폭행 문화유적과 공공재산 및 개인재산에 대한 략탈 파괴등등은 그 규모의 광대함과 악독한 성격에 있

어서 실로 전대미문의 것이다。

특히 미제 침략자들이 공화국 북반부 일부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기간에 그들의 발이 미친 곳곳 마다에서 조선인민에 대하여 감행한 야수적 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잔악하고 악독하다。

적들의 이러한 만행에 관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박헌영 외무상은 1951년 4월 15일부 『미군과 괴뢰군이 일시적 강점지역에서 감행한 만행에 관련하여』 ·········유·엔에 보낸 항의에서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51년 2월 2일 현재에 적반된 평화적 주민들의 강점자들에 의하여 학살된 수는 신천군 전군에서 25.000명 이상이 학살되였다·········』

그이후 새로 발로된 제반자료와 본사건 예심과정에서 판명된바에 의하면 신천군 내에서의 희생자 수는 전술한 수를 훨씬 초과한다。즉 황해도 신천군 주둔 사령관 미군 중위 해리손 (HARiSON) 의 직접지휘 밑에 민간주민 35,000여명이 야수적으로 학살되었는바 이 범죄는 미제침략군대의 상술한 범죄활동의 한개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그 범죄적 특징을 표시하는 전형인 것이다。

미제 침략군대가 1950년 10월 17일 황해도 신천군 지구에 침입하자 즉시로 동 지구 주둔 사령관 미군 중위 해리손은 대중적인 주민학살을 직접 조직 지도 집행하였다。미군장교 해리손도 역시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디서나 사용하는 상투수단을 답습 리용하여 자기의 범죄적 계획수행에 조선인민의 반역자들과 극소수의 일부 락후분자들을 인입하였다。

그리하여 이 무뢰한들로써 소위 경찰대 무장대 치안대 등의 반동단체를 날조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보조부대로 삼아 인민학살에 관한 범죄적 계획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형밑에서 본건 피심자 허필순은 소위 신천군 경찰서 무장 학생대장、피심자 최한우는 소위 수사계원、피심자 윤명원은

소위 신천군 대한 청년단 단원、피심자 리무현은 소위 동 경찰서 직속 무장대원 직위에서 해리손의 직접 지휘를 받고 그와 함께 주민도살에 가담하는 반역적 행동에 들어섰던 것이다。

해리손을 수위로한 신천군에 침입한 미제 침략군대들은 이 지역을 강점한 익일인 1950년 10월 18일에 벌써 주민학살에 착수하였다。

해리손은 동일 회의에서 연설하기를 나의 명령은 신천군내에 있어서 『법』으로 되며 이에 위반하는자는, 총살한다고 위협함과 동시에 『공산주의 위협에서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할것이며 일체 그의 동정자들을 공산주의자들과 동일하게 처단한다』고 선포 하였다。 (증인 김마석의 진술 기록 제1권 156—157정)

또한 피심자최한우는 이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해리손은 신천시내를 비롯하여 신천군 일대에서 모든 애국인사들과 인민군대 유가족、국가기관、공공단체에 복무하는 자와 그의 가족들을 체포할것을 무장대원들에게 명령하였다。

1950년 10월 18일 저녁무렵 해리손은 무장대원들이 체포한 900여명의 국가기관 복무자 및 그의 가족들을 로동당 신천군당 앞마당 구덩이에다 학살할데 대한 지령을 내렸다…』 (기록 제1권 67—68정) 이 지령은 해리손과 미제 침략군대가 『공산주의 위협에서 북한을 구원』한다는 위선적 병풍으로 가장하면서 미제의 노예가 될것을 원하지 않는 모든 조선인민을 전멸시키려는 흉악한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다。해리손을 수위로한 신천지구를 침입한 미군이 이 지역에서 감행한 인민도살 범죄의 특징은 녀성과 유아까지 포함한 다수의 민간 주민을 대중적으로 살륙 하였고 또한 그 살해방법이 가장 악독하고 비렬한데 있다는것이 본 사건 예심에서 판명되었다。

해리손이 자기 지휘하의 미군인과 본건 피심자들을 포함한 보조부대와 함께 범행한 만행으로써 본 사건 예심에서 확증된 모든

사실은 이것을 증명해 준다。

1950년 10월 18일 진술한 바와같이 해리손은 900여명의 민간주민을 신천군당 앞마당 구뎅이에서 불에 태워 소살하였다。이 잔틀한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던 피심자 최한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우리들은 곧 해리손의 명령대로 강제적으로 그들 900여명의 옷을 벗끼고 구뎅이에 몰아 넣었다。해리손의 지시에 의하여 무장대원들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이 무서운 죽엄을 당한 900여명 중에는 300여명의 부녀자들과 많은 유아들이 섞여 있었다。해리손은 학살 현장을 세밀히 검열하고 모두가 구뎅이 속에서 죽은것을 확인한 다음 돌아갔다…』(기록 제1권 72정 및 76정) 역시 피소자 허필순은 다음과같이 진술하였다。『…1950년 10월 18일 나는 군당 앞마당에서 900여명을 학살할때 참가하였으며 불붙는 구뎅이에서 살기 위하여 탈출하여 나오는 애국자 15명을 총살하였다…』(기록 제1권 4정) 피심자 윤명원 동 리두현도 역시 이 범행에 직접 참가하였다。1950년 10월 19일밤 1시에는 320여명의 애국자와 그의 가족들을 총살 하였다。이 사실에 관하여 피심자 리두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0월 19일 밤 1시에 나는 비상소집에 동원되었다。해리손의 지명을 받은 서장 신상규는 무장대원 20여명을 로동당 군당부 앞에 소집하고…지금부터 군당 2층에 감금 되어 있는 자들을 군당주위 전호에 몰아 넣고 총살하겠다…고 하면서 무장대원들에게 사업을 분공하여 주었다。나는 전호주변의 경비를 담당하였는바 그날밤 320여명을 5,6명씩 결박하여 전호에 몰아넣고 자동차 헷드라이트를 비치고 총살하였다…』(기록 제2권 124—125정) 1950년 10월 20일에도 역시 520여명의 애국자와 그의 가족들을 체포하여 방공호에 몰아넣고 폭파시켜 학살하였다。해리손의 직접적 지시밑에 집행된 이날의 학살정형에 관하여 피심자 허필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0월 20일 해리손은 520여명의 애국자들을 처단할데 대하여 여러가지 방법들을 토의한 후…이 빨갱이 들을 밤에 비밀적

으로 군내무서 방공호에서 총살하라고 하였다。이 명령에 대하여 무장 대원들은 방공호에 52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몰아 넣고 방공호 출입구를 소나무 널판과 흙으로써 묻어버리고 이미 준비되었던 다이나마이트 도화선에 불을달고 방공호를 폭파시켰다。 이 520여명 중에는 150명 이상의 녀성들과 많은 아동들이 섞여있었다。이 학살이 끝나자 해리손은 무장대원들에게 수고하였다고 하면서 담배를 한대씩 나누워 주었다…』(기록 제1권 47정—48정 및 57정) 피심자 최한우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기록 제1권73정) 동년 10월 23일 역시 330여명에 대한 학살을 감행하였다。이에 관하여 피심자 리두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0월 23일 경찰서장 신상규는 군당부 이층에 감금된 33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총살할데 대한 지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동원된 무장대원 20여명은 동 4일 오후 3시 군당부 전호에서 330여명을 총살하였다。나는 이당시 군당부 50메트르 주변에서 전호로부터 탈주하여 나오는 자들을 총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기록 제2권 125정)

이상의 제 사실은 미군이 신천지구에 침입한 직후 수일간에 매일처럼 조선의 애국자들과 그의 무고한 가족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한 정형을 증시한다。그러나 물론 이러한 민간주민에 대한 학살은 그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피심자 허필순은 해리손의 지령에 의하여 1950년 10월 하순경부터 11월 말까지의 기간에 신천군 용문면과 남부면에 있는 저수지와 산간 전호에 1640여명을 호송 총살한 범행에 참가 하였는바 이 점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동 피심자의 진술 기록 제1권 42정 및 43정)

해리손은 신천군내 각지를 순회하면서 민간주민에 대한 학살을 지휘 독려하였다。피심자 허필순은 역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1950년 10월경과 11월에 2차에 걸쳐 해리손과 같이

그의 찌프차로써 여러개의 면을 시찰하는데 참가하였다。이 여러개의 면들에서 해리손은 1,100여명의 체포자들을 검열하였고 경찰들과 치안대 기타 반동단체 대원들에게 딸갱이들을 속히 학살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직접 행동으로『모범』을 보여주었다。그뿐만 아니라 이 시찰 기간에 있어서 나는 해리손의 직접적 명령에 의하여 그의 참가 지휘밑에 11월 초순에는 궁흥면 삼천 우천 앞 강변에서15명의 애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총살하였다。』(기록 제1권 10정 및 100정)

영웅적 조선 인민군대와 중국인민 지원부대의 진격에 의하여 미제 침략군대가 공화국 북반부로부터 패주하지 않을수 없게되였을때 그 패주를 앞두고 적들은 더욱 발광하여 가장 비렬한 방법으로 다수의 조선인민을 학살하였다。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으로부터 패주하기 직전에 해리손은 신천군내의 주민을 강제로 자기네의 점령 구역으로 이송하여 조선인민의 력량을 약화 시키려고 시도하였다。이에 대하여 피심자 허필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1950년 12월 3일 경찰서장실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하였다。이 회의는 해리손이 직접 지도 하였다。이때 해리손은 자기몸에 휴대한 권총을 뽑아 손잡이를 들어쥐고 서장 책상을 여러차례 울며 치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들은 신천군에서 후퇴 하게된다。그러나 이것은 장구한 후퇴를 의미 하지 않는다。『당신들은 한놈의 공산주의자라도 남김없이 죽일 것이며 동시에 캡을 쓰고 다니는 자들과 머리를 막깎은 자들은 모주리 체포하여 총살하라』해리손은 계속하여 말하기를『만일 이곳에 공산주의 자들이 침입한다면 새로운 공산주의 계승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공산주의 멸망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 군에서 한명의 주민도 남기지 말고 남쪽으로 쫓아야 한다。그들을 남쪽으로 쫓기 위하여서는 미군이 후퇴 후는 신천에 원자탄을 투하 한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였다。

나는 17명의 무장대원들과 함께 전 시내를 날날이 돌아 다니며

서 상술한 선전 방법으로 주민 들을 강제적으로 시내에서 남으로 내쫓기 위하여 애를 무척 썼다。(기록 제1권 12정~13 및 53정)

해리손은 이렇듯 야비한 수단을 쓰는 한편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체포한후 910여명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이날의 학살 정형에 관해서 무장대원으로 학살 현장에 참가하였던 증인 오태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2월 7일 신천면 원암리 지구에 있는 두개의 창고에서 감행된 학살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은 910여명에 달하는바 그들중에는 어머니를 떼앗낀 200여명의 유아들이 있었다。

무장 대원들은 이 감금된 사람들의 머리위에 조 짚을 덮고 휘발유를 뿌린후 불을 질렀다。

불은 창고를 둘러싸고 무장대원들은 불타는 창고 내부에 수류탄을 던져 학살하였다。

나는 지금도 아이들이 울면서 고함을 치며 수10명의 애국자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른후 김장군 노래를 부르던 것이 나의 기억에 잊어지지 않는다。(기록 제1권 124~126정 및 134정)

또한 이 주검의 창고에 감금 되었다가 구사에 일생을 얻어 살아나온 증인 김순모 정신복 정근성 등의 진술도 본 범행의 처참한 모습을 증시해 준다。(기록 제2권 2~3정 및 5~7정)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을 강점하고 있던 2개월 미만 기간에 해리손의 지휘 밑에 이렇게 하여 학살된 민간주민의 수는 실로 35,383명에 달하는바 그중에는 16,234명의 녀성이 포함된것이 공식적 재료에 의거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기록 제2권 29정)

미제 침략 군대의 평화적 주민에 대한 학살은 대량적인것 뿐만 아니라 수단의 잔인성에 있어서도 특징적임을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 적들은 가혹한 고문을 가한 후 생매장을 하며 목을 매여 달

고 불에 태우며 머리에 못을 박으며 심지어는 녀성의 몸에 형언키 어려운 룡욕적 폭행을 가하여 학살하는 등 온갖 야만적 방법을 조선의 애국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적용하였다。

신천군 온천면 운봉리에 거주하는 증인 리복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1월 중순경 무장대원들은 우리 동리에서 열성농민 유인준의 부친 유홍범 로인을 인두를 달궈 온몸을 지지다가 나중에는 뒷산에 끌고가서 곡괭이로 찔러 죽였다。역시 그들은 이곳에서 많은 가정 부인들과 유아들을 생매장하였다。

적의 강점 전에는 온천면 운봉리에는 878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미국놈들이 이 지방을 강점하였을 때 58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원쑤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되었다。학살된 자들 중에는 80여명의 늙은이와 100명에 가까운 유아 및 310여명의 녀성들이 있었다。

미국놈들과 리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인민군대의 가족 로동당원의 가족이라는 구실하에 학살장에 끌리어 나갔던 것이다。나는 나의 남편이 인민군대에 복무하고 있다하여 우리가족 10명이 전부 학살 당하였다。특히 나의 어린것들은 생매장을 당하였으며 나의 동세는 국부에 말뚝을 박아 죽였다……」(기록 제1권 137—140정)

신천면 경지리에 거주하는 증인 박설화는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놈들은 우리 리인민위원회 송인수 위원장을 체포하여 그의 두골에 못을 박아 죽였다。그뿐만 아니라 가정부인 김인애는 어린애를 업힌채 생매장 되였다。(기록 제2권 21—22정)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에 거주하는 증인 우말제는 그의 남편과 가족들이 미군에 의하여 어떻게 저주할 주검을 당하였는가 함에 관하여 상세히 증언하였다。『미군들은 우리부락에 침입하자 나의 남편이 열성농민이란 리유로 체포되어 손과 귀와 코를 쇠줄로 꿰뚫렸고 방안에 있던 남편의 모범농민으로 수여받은 표창 장을 아

마에 못으로 박아 붙치고 악독한 고문을 가하여 학살하였다。
이때 나의 며누리는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저지하려고 하였다。미국 병정들은 아무러한 죄도 없는 나의 며누리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옷을 벗긴 다음 그의 몸에 말할 수 없는 갖은 폭행을 가하고 동리 부근 산기슭 밤나무에 사지를 결박하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그래도 시원치 않았는지 젖먹는 나의 자녀들까지 그 즉석에서 모주리 총살하였다。……』 (기록 제2권 84—85정)
녀학생인 증인 김현춘은 악독한 학살의 다른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원쑤들은 나의 아버지가 다수확 농민이라하여 13명이나 되는 전 가족을 몰살시켰다。그중 나의 동생 김재순(13세)은 두 눈을 뽑히우고 생매장 당하였다。
특히 옹진면 여촌 초급중학교 소년단장 리병조는 손을 뒤에 묶이우고 땅에 눕힌후 그 목위에 말장을 가로 놓고 량쪽에서 밟아 압살시켰다。 (기록 제2권 118—119정)
해리손과 그의 지휘하에 있는 미군 및 一피심자들은 이와같은 학살 만행을 감행하면서 그 무서운 죄악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조선인민에게 전가하려는 음흉하고 간교한 수단까지 썼다。
피심자 허길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해리손은 1950년 10월 20일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520여명의 애국자들과 로동당원 및 그들의 가족들을 학살하기 위한 준비 회의에서 그는 우리에게 지시하기를………체포 구금된 공산주의자들을 학살하기 전에 그들의 옷을 전부 벗긴후 군 내무서 방공호에 몰아 넣으라고 하였다。이는 곧 학살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후퇴하는 시기에 감행한 것으로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기록 제1권 47정)
미군은 이와같은 인민학살을 감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비인간적

만행을 종교적 병풍으로 엄폐 하려고 광분한것도 특징적이다。 미군은 자기네의 학살부대 내부에 목사와 신부들로써 조직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그것을"차프린"이라고 불렀다。그리하여 이 특수부대는 반공과 숭미사상을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주민에 대한 학살범죄를 직접 조직 집행하였다。(증인 김한우의 진술기록 제2권 15정)

해리손과 미군은 민간주민을 신천군내에서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감금한 애국자들 중의 다수를 공화국 남부 지역으로 강제 이송하였다。

피심자 허필순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11월 중순에 우리들은 문화면에서 49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신천군 경찰서에 호송하였다。우리는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통하여 해리손에게 보고한즉 그는 곧 체포자들을 유·엔군 화물자동차로써 서울에 호송하라고 자기의 병사들에게 지시하였다。무장대원들은 미군의 호송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동원되었다。……』 (기록 제1권 99정)

증인 김만석의 다음과같은 진술도 역시 이사실을 확인케 한다。

『…… 1950년 11월 중순경에 미국사람들은 신천군 경찰서에서 49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수십대에 달하는 유·엔군의 화물자동차로 남쪽에 강제 호송하였다……』 (기록 제1권 157정)

미국인들은 식인종적 학살범행 외에 부녀자에 대한 강간 기타의 릉욕적 폭행을 수다히 감행하였다。1950년 12월 3일 미군 병사 두명은 신천시 원암리 지구에 있는 창고에 감금당해 있던 부녀자들 중에서 녀자중학교 교원 문에빈외 1명의 젊은 녀성을 끌어 내다 릉욕을 가하고 즉석에서 총살하였다。(피심자 허필순의 진술기록 제1권 36정)

그뿐만 아니라 미군은 온천면 온천리에 부녀자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노예 유곽을 설치하였다。이곳에서 미군인들은 수다한 녀

정들을 능욕하고 야수적으로 총살하였다。(증인 오수복 겸만식의 진술기록 제1권 105정 및 153정)

해리손과 그의 지휘하에 있는 미군 및 본건 피심자들은 또한 조선공민들의 재산을 강도적으로 탈취하였다。

피심자 최한우는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미군들은 평화적 주민들의 재산을 탈취함에 있어서 할수 있는 바의 모―든 힘을 다하였다。1950년 11월 초에 3명의 미군 병사들은 신천면 무정리에 있는 조일 시계방에 침입하여 위협공갈로 30여개의 시계를 탈취하였다。1950년 11월 초순에 5명의 미군 병사들은 무정리에 거주하는 리지백의 상점에 침입하여 많은 상품을 탈취하였다。1950년 11월 18일에는 미군병사들의 지시에 의하여 우리들은 신천면 척서리에 거주하는 김창섭과 상인 장치수의 집에 침입하여 술 10도람과 쌀 6가마니를 탈취하여 미군에게 제공하였다。 (기록 제1권 25정 및 36정)

이렇게 하여 미군이 그의 일시적 강점기간중에 신천군 내에서 탈취한 가축만 하여도 소 1 320여두 말28필 도야지 2,610두 및 닭 5,630여마리에 달한다는 것이 공식적 조사에 의거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기록 제2권 31정)

미군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서 패주당한 이후에 있어서도 파괴와 정탐 활동에 전날의 자기네의 보조자들을 리용하고 있다。피심자 허필순 동 최한우 동 윤명원은 미제 침략자들을 따라 신천군 지역에서 패주하였다가 다시 그들로부터 간첩 활동의 수행을 위임받고 1951년 1월 하순경에 동군내에 잠입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국가적 비밀을 탐지 수집 하던중 체포되었다。

(기록 제1권 101정 및 31―32정 제2권 101정)

이와같이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가장 엄중한 책임을 기필코 모면할 수 없을 비인간적 야만적 범죄를 수다하게 범하였는바 해리손과 본건 피심자들을 포함한 그의 범죄

적 도당 들의 범행은 미군이 조선에서 범한 전반적 범죄의 일부분 아라는 점이 판명되였다。

이제 본사건의 피심자들 각자의 죄명을 개별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허필순은 고급중학교 2년을 중퇴한후 무직으로 있던중 미군이 신천군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을때 미군장교 해리손이 조직한 인민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한 경찰대에 가담하여 학생대장으로 공작하면서

ㄱ. 1950년 10월 18일 신천군 로동당부 앞 구뎅이에서 90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있어서 그의 직접적 집행자로 되였으며 (기록 제1권 49정)

ㄴ. 동년 10월 20일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520여명의 애국자를 학살 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기록 제1권 49정)

ㄷ. 1950년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사이에 신천군 남부면과 용문면에서 1,64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기록 제1권 42정—43정)

ㄹ. 동년 12월 7일 신천군 신천면 원암리 소재 두개의 창고에서 910여명의 평화적 주민학살을 직접 집행하였으며 (기록 제1권 54—55정)

ㅁ. 동년 12월 초순 인민군대의 진격후 도주하여 해주시 무근피연도에서 미군으로부터 인민군 군사비밀 탐지를 위임받고 신천군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중이였다。(기록 제1권 16정)

2. 최한우는 행상을 업으로 하여 생활하여 오던 자로서 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미군장교 해리손이 조직한 인민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한 경찰대 수사계원으로 취임하여 공작하던 중

ㄱ.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구뎅이에서 900여명의 민간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 하였으며 (기록 제1권 69정)

ㄴ. 동년 10월 20일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52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 하였고 (기록 제1권 70정)

ㄷ. 동년 12월 7일 신천군 신천면 원암리 소재 창고에서 910여

명의 애국자를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기록 제1권 70정)

ㄹ. 동년 12월 중순 인민군대 진격후 도주하여 해주시 부근 백령도에서 미군으로부터 인민군 군사기밀 탐지를 위임받고 신천군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중이였다。(기록 제1권 66정)

ㅁ. 리두현은 신천 초급중학교를 2년 중퇴한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나오던 자로서 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미군장교 해리슨이 조직한 인민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 무장대에 참가하여 공작하면서

ㄱ.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 군당 앞 마당 구뎅이에서 90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기록 제2권 123—124정)

ㄴ. 1950년 10월 19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마당 구뎅이에서 31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기록 제2권 124정)

ㄷ。동년 10월 23일 로동당 신천군당 전호에서 33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다。(기록 제2권 125정)

4. 윤명원은 기독교 신자로서 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미군장교 해리슨이 조직한 인민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한 경찰대에 가담하여 공작하던 중

ㄱ.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마당 구뎅이에서 평화적 주민 900여명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기록 제2권99정—100정)

ㄴ. 동년 12월 7일 신천군 신천면 원암리 소재 창고에서 91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기록 제2권 100정)

ㄷ. 동년 12월 중순 인민군대 진격후 도주하여 장연군 순의도에서 미군으로부터 인민군 군사기밀 탐지를 위임받고 신천군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중이였다。

(기록 제2권 101정)

본사건의 피심자 4명은 각각 자기의 죄행을 전부 시인할뿐만

아니라 다수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상기 전체 사실에 대하여 유죄임이 인정된다.

상술한바에 의하여

1. 허필순 1932년 6월 6일생
   주소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
   직업 무직
2. 최한우 1921년 9월 1일생
   주소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
   직업 행상
3. 리두현 1931년 6월 6일생
   주소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
   직업 무직
4. 윤명원 1932년 8월 6일생
   주소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사직리
   직업 전공

이상 피심자들은 미제 간섭 군대가 황해도 신천군을 임시적으로 강점한 기간중인 1950년 10월 17일부터 동년 12월 7일까지 기간중에 적과 결탁하여 조국을 배반하고 동군 내에서 수다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가장 악독한 수단으로 학살하였는바 이는 1951년 4월 17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의 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자 허필순 동 최한우 동 윤명원은 미군정보기관에 가담하여 1951년 1월 하순경 신천군내에 잠입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국가적 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있었는바 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71조의 죄에 해당된다.

본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심리에 속한다.

1 9 5 2년 5월 1 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검찰소 검사총장 장 해 우

공 판 심 리

미제 살인귀들이 신천군내에서 감행한 대중 학살사건에 직접 가담한 죄로 기소된 반역자들에 대한 공판 재료。

1952년 5월 25일～29일
평양특별시 특별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형사부는 판사 박경호를 재판장으로 하고 참심원 리홍렬과 김문석을 성분으로 하고 서기 김영주가 립회한 공개공판에서 검사 안병진 사회 소추자 주황섭 신성순 변호인 지영대 현창형 김한준 관여하에 1951년 4월 17일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 및 형법 제71조에 해당되는 죄로 기소된 피소자 허필순 동 최한우 동 윤명원과 전시 정령 제1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리두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5월 25일 공판

5월 25일 오전 10시에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다고 선언하였다。

재판장은 출정한 피소자들이 그 본인에 틀림 없는가를 확인한바 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 피소자 허필순 1932년 6월 6일생。남자。황해도 신천군 척서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없다。

2, 피소자 최한우 1921년 9월 1일생。남자。황해도 신천군

척서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행상。

3, 피소자 리두현 1931년 6월 6일생。 남자。황해도 신천군 척서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없다。

4, 피소자 윤명원 1932년 8월 6일생。 남자。황해도 신천군 사직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전공。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기소장 등본을 받아 보았는가를 무른바 피소자들은 각각 받아 보았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통고하였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의 신분을 확인한바

검사는 최고 검찰소 검사 안병진 이라고 하였다。

사회 소추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국 통일전선 대표 주황섭 이라고 하였다。

사회 소추자로 신천군 대표 신정순이라고 하였다。

변호사로서 피소자 허필순을 위하여 공선 변호인 지영대라고 하며、

피소자 리두현과 윤명원의 공선 변호인으로 현광형이라고 하였고、

피소자 최한우의 공선 변호인으로 김한준이라고 하였다。

재판장은 재판소 성분 및 서기의 신분을 통고하였다。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및 피소자들에게 재판소 성분과 렵회서기에 대하여 배제 신청이 없는가를 무른바、

검사 변호인 및 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변호인 및 피소자들에게 검사에 대하여 배제 신청이 없는가를 무른바、

변호인 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렵회서기에게 소환한 증인들이 전부 출정하였는가를 확인한바 렵회 서기는 소환한 증인중 리복배 강형도만 아직 도착하지 않고 그밖에 증인들은 전부 출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재판장은 소송 관계자들에게 새 증인 또는 새 증거를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무른바、

결사 변호인 및 피소자들은 없다고 대답하고 사회 소추자 신성순은 미제가 신천군내에서 감행한 대중 악살 사건의 범죄 진상과 본건 피소자들의 죄상을 명백히 립증할 수 있는 리만식 김순모 전경애 리운하 강형도 김선녀 김혜숙 등 7명을 재정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것을 신청하였다。

재판장은 재판소 구성원과 합의한 후 사회 소추자 신성순이가 신청한 증인 전부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고하였다。

재판장은 정정으로 하여금 증인들을 전부 들여세우게 한다음 증인 오용진 오수복 김순모 오태신 최광희 배면식 김현춘 김만식 김순호 전경애 리운하 김선녀 우말제 김혜숙 김만석 박설화 김한우 등 17명에게 그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및피소자들과의 관계등을 확인한 다음 그들이 재판과정에서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만일 진술을 거절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때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239조 및 제241조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경고 하였다。

재판장은 정정으로 하여금 매개 증인들에게서 서약서를 받게한 다음 증인들을 전부 별실로 물러가게 하였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그들이 공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 또는 다른 피소자들에게 질문하며 사건에 관여되는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통고하였다。

재판장은 15분 휴정을 선언하고 11시10분에 휴정하였다。

공판은 11시 25분에 다시 개정되었다。

재판장은 렵회서기에게 기소장을 랑독케 하였다。

재판장은 렵회서기가 기소장의 랑독을 끝마친후 피소자들에게 기소내용을 승인하는가를 무른바、

피소자들은 각 각 승인한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구류된 날자를 확인한바、

피소자 허필순과 최한우는 1952년 1월 20일 이라고 하며 피소자 리두현과 윤명원은 1952년 3월 30일 이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심리순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무른바、

검사는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 윤명원의 순서로 심리하고 증인 김만석 박설화 우말제 김선녀 리만식 전경에 강형도 오수복의 순서로 심문하고 그밖에 증인들은 재판소의 재량에 의하여 심리할것을 제의하였다。

변호인 지영대는 변호사 측은 피소자들의 심문순서에 대하여 검사의 제의에 동의하되 증인 심문순서는 증인 오용진 김현춘 김만석 김순모의 순서로 심문하고 그밖에 증인들은 재판소의 재량에 의하여 심문할것을 제의하였다。

재판소는 그 자리에서 합의한후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 윤명원의 순서로 심리한 다음 증인 김만석 박설화 우말제 김선녀 전경애의 순서로 심문하고 그밖에 증인들은 재판소의 필요에 따라 심문하기로 결정되였다고 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 대한 사실 심리를 진행할것을 선언하였다。

피소자 허필순에 대한 심문

재판장— 당신의 경력을 간단히 말하시오。

피소자 허필순— 신천인민학교 신천 초급 중학교를 거쳐 신천 고급 중학교에 다니다가 출학 당하고 범죄 당시까지 무직으로 있었습니다。

문 학교에서 출학당한 리유는 무엇인가。

답 평소 학습을 게을리하였고 회의때에는 도주하여 다니였으며 음주 방탕하고 남의 전방에서 물품을 채는등 불량자 행위를 하여 왔기때문에 출학 맞았습니다。

문 신천군내에 미군이 들어온 날자와 그후 피소자가 감행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답 미군이 신천군내에 침입한것은 1950년 10월 17일 이였습니다。그 이튿날인 18일에 신천군 주둔 미군 지휘관인 미군 중위

해리손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그밖에 온갖 무뢰한들을 모아놓고 신천군내에 소위 경찰대 치안대 무장학생대 등등 반동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나도 그날로 해리손이 조직한 신천군 경찰대 무장 학생대장으로 임명 받았습니다。그때 미군 중위 해리손은 우리들에게 나의 명령은 곧 법이다。이를 위반하는자는 무조건 총살한다。「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산도배를 전멸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하여서는 로동당원 국가기관 복무원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모주리 체포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 명령을 받고 즉시 로동당원 국가기관에서 복무하는 정무원 열성농민 그밖에 애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체포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남녀 로소 900여명을 체포하여 신천군당 2층에 감금하여 놓고 그들의 옷을 전부 벗기고 4,5명씩 결박하여 군당 앞에 이미 굴설되어 있는 방공호 안에다가 그들을 다시 몰아넣은 다음에는 미군 중위 해리손의 현장 지휘하에 우리들은 밖에서 경비를 서고 미군이 그들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놓았습니다。그때 방공호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서운 비명과 아우성을 치면서 그중에는 불길을 헤치고 밖으로 기어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밖에서 경비서던 우리들은 해리손의 지시에 의하여 미군과 같이 방공호 밖으로 기어 나오는 사람들을 발길로 차서 다시 불속에 밀어넣기도 하고 총으로 쏘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방공호 내부 주검의 불길속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아직 들려오고 있는 때에 해리손은 그 방공호 입구를 흙으로 메우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아직 채 죽지않은것을 그대로 생매장하여. 버렸습니다。

미군 중위 해리손은 자기가 휴대하고 있던 사진기로 이 방공호에서 애국자들이 참살당하는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들을 일일히 촬영한 다음 (오—케) 하고 돌아갔습니다。

동월 20일에는 미군중위 해리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위 신

천군 경찰 서장 신상규 이하 소위 간부 20여명이 신상규방에 몰여 해리손의 직접 지도하에 이미 체포하여놓은 로동당원들과 민주인사 및 그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처리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들을 학살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토의 되였는데 해리손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을 자동차에 태워 가지고 가서 죽인다면 시민들이 볼수있다。그것은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무서 방공호 안에 몰아넣고 죽인다면 그사실을 알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그렇게하면 후일 그시체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공산도배』들이 학살한 것이라고 할수가 있으니 그들의 옷을 전부 벗기고 내무서 방공호에다 몰아넣어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그날 오후 5시경 나와 신상규는 무장대원 20여명을 지휘하고 해리손의 직접 지도하에 52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 몰아넣고 학살하였습니다。학살하는 방법으로서는 그들의 옷을 전부 벗기고 한사람씩 결박하여 방공호안에 들여 세우고 솔나무 널판으로 2개소의 입구를 전부 밀폐하고 그위에 다시 흙을 덮어 질식케 한다음 학살 계획에 의하여 이미 장치하였던 2개의 다이나마이트 도화선에 미군이 불을 달아 폭사시켰습니다。피살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것은 후일 그 시체가 발로되면 그것이 누구의 시체인지를 알아 볼수 없게 함으로써 그들 학살에 대한 책임을『공산도배』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해리손의 지시에 의한 것이였습니다。그들에 대한 학살이 끝난 다음 해리손은 수고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담배를 한대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나는 미군 중위 해리손의 직접 지휘밑에 무장학살대원들을 대동하고 미군 병사들과같이 동년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의 사이에 체포된 1.640여명의 민주일군 로동당원 및 그들의 가족들을 전후 30여차에 걸쳐 현40여대의 미

군 군용 화물자동차에다가 30—50여명씩 실고 신천군 용문면 과 남부면에 있는 저수지 또는 전호속에 몰아넣어 죽였습니다。다음으로 말씀 드릴것은 나는 동년 11월 하순경 해리슨과 같이 찝프차를 타고 신천군내 각면지서를 순회하면서 이미 체포한 애국자들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아직 미체포한 애국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 학살할것을 목격하여 왔습니다。그러는 과정 신천온천에서 미군과 같이 애국자 18명을 총살하였는데 이때 해리슨은 자기의 권총을 뽑아들고 직접 학살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을 보이어 주었습니다。

동년 12월 3일경 해리슨은 소위 신천군 경찰서장 이하 각 계장 및 각면 지서장들을 불러놓고 중공군의 협력하에 북한 공산군이 대대적으로 진공하여 오므로 미군은 부득이 일시적으로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미 체포구금한 로동당원과 민주일꾼 및 그들의 가족들을 급속히 학살하여 버리라는 명령을 하는 동시에 캡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남기지 말고 전부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또 말하기를 미군이 후퇴한 후에는 중공군과 북한공산군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원자탄을 쓴다는 선전을 하여 주민들을 전부 남으로 몰아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나는 해리슨으로부터 이와 같은 명령을 받고 무장학생대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이남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한편 동년 12월 7일 경에는 미군의 직접 지휘감독하에 나는 장응찬 리원통등 10여명의 무장대원들을 대동하고 미군과 같이 원암리에 가서 그곳에 있는 2개소의 화약 창고에다 불을 달아 태워 91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였는데 그중에는 유아들이 200여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학살함에 있어서 우선 옷을 전부 벗긴다음 남쪽 창고에는 유아들、북쪽창고에는 성년 남녀를 각각 구분하여 감금하고 3일간 물 한목음 먹이지 않고 굶기다가 죽였습니다。그들을 불에 태워 죽일때에 화염이 충천하는 죽엄의 불길속

에서 사람 살리라는 비명 아우성 소리가 처참하게 울려나오는 창고속에 미군우 많은 수류탄을 던졌고 내가 대동하고 갔던 무장대원들도 약 80여개의 수류탄을 던졌고 나도 15개의 수류탄을 던지고 보총을 발사하여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을 마자 죽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학살을 끝마치고 그 이튿날인 8일 오후 7시경 해주까지 도주 하였다가 그후 다시 장연 백영도 방면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후 나는 계속 패주하는 미군들을 따라 서해안 순위도에 가서 그곳 미군 정탐기관인 찌투의 지령을 받고 1951년 1월 하순경 신천군내에 잠입하여 공화국 군사기밀과 국가 기밀을 탐지하여 왔습니다。

미군 정탐기관인 찌투의 지령을 받고 1951년 1월 하순경 신천군내에 잠입하여 공화국 군가기밀과 군사 기밀을 탐지하여 왔습니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이 자기의 진술이 끝나자 검사에게 그에 대한 심문을 권하였다。

검사 안병진은 피소자 허필순에게 심문할것을 고하고 다음과 같이 심문하였다。

검사 안병진--1950년 10월 19일 신천에 침입한 미군은 얼마나 되었는가。

피소자 허필순—약 50명 가량 되었습니다。

문 그때 신천군내에서 미군의 침입을 환영한 사람들은 대개 어떤 자들이였는가。

답 당시 미군의 침입을 환영한 자들은 주로 인민군대 기피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당에서 출당맞은자 공직 직위에서 철직당한자 및 그밖에 평소 소행이 불량하여 일반 인민들에게 미움을 받아오던 무뢰한들 이였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 인물들로서는 신상규 장정이 정경주 리팡

또 박광필 리상실 신호직 등 전부가 다 그러한 자들이 였읍니다。

문 당시 신천군 주둔 미군 지휘관 해리손은 각종 반동단체에 어떠한 자들을 간부로 임명하였는가。

답 그가 임명하는 소위 간부들은 상인들과 기독교인 들이였읍니다。

문 당시 미군을 따라온 사람은 어떤자였는가。

답 조선사람 통역이 한 사람 따라왔읍니다。

문 군당 앞 방공호에서 애국 인민들을 불에 태워 학살할 때에 누가 불을 질러 놓았는가。

답 미군 병사들이 불을 질러 놓았고 우리 무장 학생대원들은 밖에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섰읍니다。

문 그 당시 피소자 리두현과 윤명원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답 그들도 방공호 주위에서 경비를 섰읍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거 사진을 요구하여 그중 증 제10호 사진을 피소자 허필순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진이 신천군당 전경과 당시 90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한 신천군 당 앞 방공호가 틀림 없는가。

피소자 허필순— 네。틀림 없읍니다。

문 당시 900여명이 학살당한 중에 피소자가 아는 사람은 없었는가。

답 아는 사람들이 있었읍니다。그것은 벽성군 소비조합 위원장의 일가족 벽성 인민학교 교무주임의 일가족 신천면 양장리 세포위원장의 일가족 봉산군 사회안전부원 박일삼등 입니다。

문 그때 학살 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였는가。

답 로동당원 정권 기관에 복무하던 민주일군 열성농민 및 그들의 가족들 이였는데 그중 남자가 약 600여명 녀자와 유아들이 약 300여명 이였읍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임신부와 영아와 70세 이상되는 로인들도 포함되이 있었읍니다。

문 당시 군당앞 방공호에서 90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하였는가。

답 그들에 대한 학살은 10월 18일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되였는데 현장에는 해리손을 위시한 미군 병사들과 신상규를 위시한 소위 경찰서 무장대원들이 다수 동원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당 2층에 감금하였던 900여명의 애국자들을 전부 결박한 다음 총창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구뎅이 앞에 몰아넣고 그들 전신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달아 소살하였읍니다。
이때 주검의 불길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밖으로 뛰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나는 소지하였던 엠 완 보총으로 연 20여발을 발사하여 그중 15명을 총살하였읍니다。
　그리고 아직 다 죽지않고 처참한 비명을 하고 있는때에 해리손은 흙을 덮어 매장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그중 일부는 결국 생매장 하였읍니다。

문 신천 주둔 미군 지휘관 해리손은 인민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들을 취하였는가。

답 해리손은 신천에 침입한 첫날부터 온갖 무뢰한들을 규합하여 소위 경찰대 무장대 치안대등 반동살인 단체들을 각처에 조직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북한은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 한다는 구실로 로동당원 민주일군 열성농민은 물론 그들의 가족 심지어는 친척까지라도 모주리 체포 학살하라고 명령하였고 그가 조직한 각급 반동단체들에서는 그의 직접 지도하에 그 명령을 철저히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문 해리손을 위시한 미군들이 주민 재산을 강탈한 정형은 어떠한가。

답 각급 반동 단체 들에서는 미군의 지시에 의하여 주민들의 소 도야지 닭 량곡등을 대량 강탈하여 소위 미군 환영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 자신들은 조선 전선에 왔던 기념품으로 한다는 구실로 개인 상점 그밖에 주민 가택에 침입하여

총기로 위협하고 수다한 물품들을 강탈하 습니다。

문 남부면 저수지에서 애국인민들을 대량 학살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시오。

답 해리손으로부터 시내에서 대량적으로 계속 학살하면 시민들이 알게되므로 좋지못하니 타 지방으로 호송한다고 기만하고 먼곳에 가져다 죽이라는 명령에 의하여 동년 10월 하순경부터 동년 11월 하순까지의 사이에 연 30여회에 걸쳐 40여대의 트럭으로 대 트럭에 30~50여명씩 실어다가 결박하여 저수지에다 넣고 비료가마니를 덮어 넣어 죽이고 또는 그곳에 있는 전호 속에다 총살하여 죽이였습니다。

학살하기 위하여 애국인민들을 그곳으로 호송할 때에는 자동차에다가 갑바를 씌우고 동시에 그 근방 도로를 차단하여 래왕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문 피소자가 미군중위 해리손과 같이 각 면을 순회하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였는가。

답 해리손이가 각면을 순회한 주되는 목적은 체포 구금한 인민들에 대한 학살을 조직 지도하여 이미 체포학살 못한 애국인민들의 통계숫자를 조사하기 위하는데 있었습니다。 순회중 모나주 광산에서는 애국인민 15명을 학살하였는데 이때 해리손은 자기가 직접 권총을 뽑아가지고 학살하는 모범을 보이어 주었고 나도 소지하였던 보총으로 1명을 총살하였습니다。

문 신천에 침입하였던 미군들이 패주 할때에 취한 만행은 어떠하였는가。

답 1950년 12월 3일경 이었는데 그때 해리손은 소위 신천군 경찰서장 이하 동서 각 계장 각 면 지서장들을 불러놓은 석상에서 권총을 뽑아 책상 위에다 놓고 위협을 주면서 하는말이 중공군의 협력하에 북한 공산군이 계속 남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투 정세가 위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중대한 사업들이 제기된다。 그것은 빨갱이 사상을 가

진자들을 전멸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본서와 각 면 지서에서는 이미 체포구금 한 자들을 시급히 처단하는 동시에 로동당원과 그들의 가족들은 물론、머리 깎은 사람들은 인민군대에 나갔던 자들이고 캡을 쓴 사람들은 빨갱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니 이런자들은 한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주리 체포학살하라고 명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이 후퇴한 후에는 중공군과 북한 공산군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원자탄을 사용한다는 선전을 하여 한사람의 주민도 남기지 말고 전부 남으로 강제 이주시키어 앞으로 새로운 공산주의자가 생기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후 이 명령들은 신천군내 각처에서 철저히 집행되었습니다。

12월 7일 원암리에 있는 2개소의 창고에서 910여명의 애국인민들이 학살당한 것도 이 명령에 의한 것이였습니다。

그때 이 창고에서 학살당하는 애국인민들은 무서운 주검의 불길속에서도 김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소리와 함께 김장군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세 소리와 노래 소리가 들려나오게 되자 미군과 우리 무장대원들은 화염이 충천하는 불길속에다가 다시 수 많은 수류탄을 투탄하여 일번 그들을 폭사 시키였습니다。 나도 수류탄 15개를 던졌습니다。

문 신천에 침입하였던 미군들이 패주할 때에 강제 이주시킨 주민들은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원자탄을 사용한다는 선전과 아울러 총창의 위협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였기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우마차에 이사짐을 싣고 남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 거의 그 전부가 미군의 기총사격에 의하여 피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중공군이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오기 때문에 살해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문 신천군내에 미군이 침입한 이후 미군과 그들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학살당한 인민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답 군내 각면 지서에서 보내어온 통계 보고숫자와 내가 직접 가

담하게 학살한 숫자들을 종합하면 약 35,000여명에 달합니다。
문 당시 애국인민들을 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학살하였는가。
답 수십 수백명씩 한곳에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태워 죽이고 폭발물로 폭살시키고 보총 권총등으로 사살하며 총창으로 찔러죽이며 코를 꿰여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타살하며 톱으로 세토막을 켜서 죽이며 두팔에 못을 박아 죽이며 불에 달군 쇠끝으로 찍어 죽이며 곡괭이로 찍어 죽이며 눈알을 뽑아 죽이며 생매장하여 죽이며 목에 말장을 가로 놓고 량쪽에서 널 뛰기를 하여 질식시켜 죽이며 임신부는 배를 갈라 죽이며 녀성들은 국부에 나무 말뚝을 박아 죽이는 등 가장 잔인한 방법들 이었습니다。

검사는 증 제15호 및 17호를 피소자 허필순에게 제시하면서 이사진 내용을 아는가고 무른바、

피소자 허필순— 네。그 사진은 미군과 같이 어린 애기를 업은 17세 나는 소녀를 생매장하여 죽인것 입니다。
문 당시 미군들이 강제유곽을 설치하였다는데 그사실을 아는가。
답 네 신천 온천에 가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미군들은 그곳 장맥산각에다 수십명의 젊은 부녀자들을 감금하여 두고 그들을 릉욕하 습니다。
문 피소자가 간첩 사명을 맡게된 경위와 그후 간첩활동은 어떻게 하였는가。
답 나는 패주하는 미군들을 따라 서해안 순위도에 갔다가 그곳 미군 정탐기관인 찌루에서 신천군내의 공화국의 국가 및 군사 기밀을 정탐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1951년 1월 하순경에 신천에 잠입하여 인민군대와 중국 인민지원군 부대의 일체 군사 기밀과 신천군내의 국가 기관들의 소재지 및 그들의 사업활동 정형을 탐지하였습니다。
문 피소자 최한우의 간첩 활동 정형은 어떠한가。
답 최한우도 나와 같은 내용의 간첩사명을 받고 그는 무진기

까지 소지하고 신천지구에 잠입하였댔으나 경비가 심한까닭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체포된 때까지 자기집에 가서 은신하여 있었읍니다.

문 피소자는 신천군내에 침입하였던 미군 지휘관 미군 중위 해리손과 그의 부하인 미군 병사들이 일시적으로 신천군을 강점하였을 그 당시에 각종 반동 단체를 조직 지휘하여 수만명에 달하는 선량한 조선 인민들을 온갖 야만적 방법으로 체포 감금 고문 학살하는 한편 막대한 주민의 재산을 강탈 파괴하여 부녀자를 강간 릉욕한 사실들을 긍정하는가.

답 네. 그러한 사실들은 내가 시종 목격하였을 뿐만아니라 나는 해리손의 조직한 소위 신천군 경찰서 무장학생 대장의 책임을 맡고 대소사를 막론하고 직접 그의 조직 지휘하에 대중 학살과 재산 강탈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전부 긍정합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피소자 허필순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피소자 허필순에 대한 심문을 권하였다.

사회 소추자 신정순—미군들이 만들어 놓은 유곽에 랍치하여다 둔 부녀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며 그 수는 얼마나 되며 그후 그들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피소자 허필순—주로 로동당원의 가족들인데 그수는 10여명이며 미군이 패주할때에 그들은 산에 끌리어가서 전부 총살 당하였읍니다.

사회 소추자 신정순은 재판장에게 피소자 허필순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피소자 허필순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변호인 지영대—피소자의 가정환경은 어떠한가.

피소자 허필순— 가족은 부 모 형 동생 조카 2명 계 6명이 있으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문 피소자의 범죄 당시 년령은 몇이였으며 평소의 취미는 무엇인가.

답 그당시 년령은 20세 였으며 학생 당시 공부에도 취미가 없였고 축구를 좋아하였습니다.

문 적 강점시기에 피소자가 무장 학생대장이 된 리유는 무엇인가.

답 나는 학생당시에 학교 규률을 문란시킨 관계로 출학당한 사실이 있고 또 무장학생대원들이 학생 당시 축구부원들 이였기때문에 제가 대장이 되었습니다.

문 미군 중위 해리슨이가 어떻게 내무서 방공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였는가?

답 그것은 해리슨이가 각 기관을 시찰하며 다니는 과정에 발견한 것입니다.

문 피소자가 가담하였던 수차에 걸친 대중학살은 해리슨이가 그 현장에 나와 학살 방법들을 직접 지도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

답 네. 사실입니다. 학살하는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것이라든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죽이는 것이라든지 다이나마이트로 폭사 시키는 것이라든지 또는 채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흙을 덮어 생매장하는 등 모두가 다 그의 직접적인 지도밑에서 감행되었습니다.

변호인 지영대는 재판장에게 피소자 허필순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에게 대하여 그가 지금 까지의 진술중에서 전후 부합되지 않는 부문이 있으니 명확한 진술을 하라고 주의 주고 다음과 같이 심문하였다.

재판장— 미군 중위 해리슨은 비단 로동당원 뿐만아니라 그밖에, 주민들까지도 학살하라고 지시하였는가。

피소자 허권순— 로동당원과 정권기관에 복무한 정무원은 물론 그들의 가족 그들의 동정자 및 그밖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인증되는 자는 한사람도 놓치지 말고 모주리 체포 학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해리슨은 공산주의 자라는 구실밑에 전체 조선사람을 학살하려는 의도였단 말인가?

답 네。실지 그러하였습니다。

문 피소자가 해리슨과 같이 신천군내 각 면을 시찰한 회수는 몇 번이나 되는가?

답 11월 초순과 하순에 걸쳐 2회였습니다。

문 신천에 미군이 침입한후 제1차로 군당 앞 방공호에서 애국인민들을 학살할 당시 피소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답 그때 나는 무장학생대원 10여명을 지휘하여 학살 장소인 방공호 주위에 보초를 세우고 그들에게 도주하는 자는 총살 하라고 명령 하였으며 나 자신도 소지하였던 엠완 보총으로 살길을 찾아 방공호 밖으로 뛰어나오는 사람 15명을 총살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전체 피소자 및 증인들을 불러 세우고 제1일 공판은 이상으로 끝 마치고 명일 오전 10시 부터 제2일 공판을 진행할것을 선언하였다。

5월 26일 공판

재판장은 오전 10시 정각에 피소자들과 증인들을 입정시켜 제2일 공판을 개정할것을 선언하다。

재판장은 증인들을 별실로 물러 가라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에게 대하여 어제 공판심리에서 진술한 가운데서 보충할 것이나 또는 시정할것이 없는가고 무른바、

피소자 허필순 1950년 10월 18일 신천 군당 앞 구뎅이에서 90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학살할때에 처음 500여명은 사다리를 놓고 들여 보내고 나머지 400여명은 미군 30여명과 내가 지휘하는 학생대원 10여명 그밖에 무장대 까지 합 50여명에서 총탁과 발길로 차서넣고 미군들은 이미 벗겨 놓았던 애국인민들의 의복을 머리우에 덮어놓고 그 우에 다시 반 도라무 정도의 휘발유를 뿌린다음 불을 달아 놓았습니다。그러나 그 구뎅이 안에서 비참한 아우성 소리와 함께 김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소리를 웨치면서 살길을 찾아 밖으로 뛰어 나오는 사람들을 밖에서 경비하던 미군과 무장대원들이 보총을 발사하여 총살하였습니다。

문 1950년 10월 17일 신천에 침입한 미군의 수는 얼마나 되였는가。

답 해리손 이하 약50명이 왔는데 찌프차 1대와 트럭 2대에 나눠 타고 왔습니다。

문 당시 해리손의 포고문 내용은 어떤것이였는가°

자기의 명령은 신천군내에서 법과 같으니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위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취지와 공산도배를 한놈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숙청 함으로써만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였습니다。

문 당시 소위 경찰서장 신상규는 무엇하던 사람인가。

답 신상규는 일제시대 남양 미군 포로 수용소에 근무하던 자라고 합니다。그때 신상규는 해리손과 같이 와서 하는 말이 해리손은 신천 주둔 미군 사령관인데 이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피소자가 백연도에서 간첩 사명을 받고 신천으로 들어 올때 무엇으로 가장하고 들어 왔는가。

답 인민군대 중대장으로 가장하고 들어 왔습니다。
문 10월 20일 내무서 뒤 방공호에서 520여명을 학살하기 전 소위 간부회의에서 학살방법에 대한 토의를 할때에 피소자는 어떤 것을 제의하였는가。
답 그때 해리손이가 체포구금한 자들은 시민들이 모르게 은밀히 죽이는 방법이 없는가고 묻기에 나는 내무서 뒤 방공호에서 죽이자는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문 더 보충할것이나 시정할것이 없는가。
답 없습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보충 심리할것이 없는가를 무른바 소송관계자들은 전부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을 피소자석에 물러가게 하였다。

피소자 최한우에 대한 심문

재판장—피소자 최한우—당신의 경력을 간단히 말하시오。

피소자 최한우— 나는 16세시에 소학교를 졸업하고 신천으로 이사하여 그곳 백화점 점원으로 3년간 종사 하였고 그후 2년간 행상하였으며 19세되던 해부터 2년간 신천군 과수조합 서기로 종사하다가 당시 징용이 심하였기 때문에 조선 식량영단 사무원으로 취직하여 근무중 8.15해방을 맞이 하였읍니다。그후 다시 행상을 하다가 1948년도 부터 인민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할때까지 척서리 인민위원회 협조서기로 있으면서 인민반장을 겸하고 있었읍니다。
문 신천군내에 미군이 침입하였던 최초부터 피소자가 체포될때까지 피소자가 감행한 범행을 간단히 말하시오。
답 1950년 10월 17일 미군 중위 해리손과 통역 1명과 미군 병자 50여명이 신천군당부 앞에 들어 왔는데 그때 해리손은 군당부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하여 통역을 통하여 이제 부터의

치안 기타 행정사업은 우리가 지도하겠다고 말한 다음 소위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에 신상규 군수에 기독교 장로인 리맹명등을 임명하는 동시에 경찰대 학생무장대등을 조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조치 임명한 다음 해리손은 신천군내에 있어서 나의 명령은 법과 같으며 위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금후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 빨갱이와 그들의 가족들을 전부 체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로동당원과 그들의 가족은 물론 정권기관에 복무한던자들과 인민군대에 나갔던 자들까지 모주리 체포하라。 경찰서장 신상규의 명령은 곧 나의 명령이니 잘 복종하라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해리손의 말이 끝난 다음 소위 신천군 경찰서장 신상규는 무장경찰대 무장학생대에게 즉시 출동하여 해리손의 명령을 집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즉시 시내에나가서 로동당원 국가기관 사회단체등에 복무한자 열성 농민 로동자 및 그들의 가족등 약 300여명을 체포하여다가 군당 2층에 감금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인 10월 18일에는 군당부 앞에 미군 지휘관 해리손 소위 군수 경찰서장 미군 및 무장학생대등 약 5,60명이 몰이였는데 해리손의 명령에 의하여 군당부 2층 회의실에 감금하였던 90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끌어내여다가 그들의 옷을 전부 벗기고 새기로 팔을 결박한 다음 군당 앞 방공호 구멍이에 사다리를 놓고 약 500명 가량 들어 보낸 다음 해리손이가 『빨리 빨리』 하고 독촉하였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사다리를 치우고 총탁으로 밀치고 발길로 차서 남어지 400여명을 마자 밀어 넣고 미군병사들이 휘발유를 부은 다음 불을 달아 태워 죽이였는데 나는 그때 약 20메트르 거리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 학살이 끝난다음 해리손과 소위 경찰서장은 또 다시 빨갱이들을 체포하여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나는 그 명령을 받

고 양장리에 나간즉 리인민위원회에 27명을 체포하여 두었으므로 그들을 호송하여 군당부 2층 회의실에 감금하였습니다。그 이튿날에는 옹진 송화 방면에서 까지 체포 호송하여 온것을 합하면 520여명에 달하였습니다。
19일 경찰서장 신상규는 해리손 사령관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52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신천군 내무서 뒤에 있는 방공호로 호송하라고 하여 우리 무장대들은 미군 병사 20명과 같이 호송하였는데 그때 해리손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결박하여 방공호 안에 몰아넣고 방공호 입구를 막으라는 명령이 집행된 다음 다시 도화선에 불을 달라는 명령을 하니 미군 병사들은 방공호 내부에 이미 장치한 다이나마이트 도화선에 불을 달아 놓아 전부 즉사시켰는데 나는 그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그때 그 현장에는 미군 지휘관 해리손을 위시하여 소위 경찰서장 군수 사찰계 주임 수사계 주임들이 참가하였댔는데 해리손은 학살을 끝마치고 우리들에게 수고하였다고 하면서 담배 한대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달 22일 나는 군수의 명령에 의하여 군청 재정과 관재계에서 약 1개월간 일을 보게되었는데 옹진 방면에서 피난가는 민주일군들과 로동당원 가족들의 이사짐 실은 우마차 270여대를 강제 압수하여 물건들을 정리하였는데 그중 귀금속과 좋은 물품들은 군수 또는 서장 명의로써 미군들이 가져가고 소는 거의다 잡아먹었습니다。
11월 하순부터 나는 소위 신천군 경찰서 수사계에서 일하였는데 로동당원들과 밀조주 업자들을 체포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밀조주업을 하는 김장녀와 장학수를 적발하여 그들에게서 술 10도라무와 떡미 6가마니를 압수하여 미군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패주할때에 해리손과 경찰서장으로부터 빨갱이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한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체포하여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나는 무장대원 4명과 같이 북부

면에 가서 그곳 지서에 구금되어있는 37명의 애국인민들을 트럭에 싣고 원암리에 온즉 이미 800여명의 애국인민들이 그곳 화약창고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호송하여 간 애국인민들도 옷을 전부 벗기고 남자는 아랫 화약창고 녀자와 어린 아이들은 웃 창고에 각각 몰아 넣었는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놓은 다음 수류탄을 던지라고 명령하기에 나도 소지하였던 수류탄 1개를 투탄하였습니다。

문 그때 그두개 창고에서 죽은 사람은 모두 얼마나 되는가。

답 내가 호송하여 간것까지 약 910여명 가량 되었습니다。

문 피소자가 간첩 사명을 맡게된 경위를 말 하시오。

답 미군이 후퇴한후 나는 그뒤를 따라 백령도에까지 갔던바 신천서 도주하여 간 사람들은 해팔 제 4대대에 배속되어 소위 국방군내에서 매일같이 군사 훈련을 받고 있었고 나는 미군 정탐 기관인 찌투에 가 약 1주일간 간첩 훈련을 받고 간첩단 10명과 같이 1951년 2월 하순경에 장연에 상륙하여 신천 부라산에 도착하였는데 인민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공작할수가 없어서 나는 해주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서 잠복하여 있다가 1951년 7월 17일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장은 20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11시 40분에 퇴정하였다。
공판은 12시에 다시 속개 되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소자 최한우에 대한 심문을 권하였다。

검사 안병진은 피소자 최한우에게 해리슨의 포고문 내용을 말하시오。

피소자 최한우— 당원의 가족을 은폐시켜 준자는 당원과 같이 취급한다는것과 당원의 가족으로서 려행하려는 자는 경찰서장의 려행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피소자가 관재계에 있었다는데 관재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답 군청 재정과 안에 관재계가 있는데 거기서는 인민들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관리하고 출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문 물품을 출고하는 것은 주로 어떤 자에게 내여 주었는가。

답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주로 미군에게 내여 주었습니다。

문 10월 18일 학살시에 피소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답 방공호 주변 2메트르 거리에서 경비를 섰습니다。

문 학살당시의 처참한 광경을 진술하여 시오。

답 휘발유를 뿌린우에 미군이 달려들어 불을 질러 놓으니 떼를 어이는듯한 어린 아이들의 처참한 우름소리 비명과 함께 어른들이 김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장군 노래를 부르면서 화염속에서 살길을 찾아 밖으로 기어 나온 것을 경비 서던 수십명의 미군과 무장대원들이 보총을 란사하여 총살하고 아직 굴속에서 아우성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해리손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은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나도 그때 경비를 서다가 굴속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총을 발사하였습니다。

문 학살하는 인민들의 옷과 신발을 전부 벗긴 리유는 무엇인가。

답 의복을 벗기고 불에 태워 죽이면 후에 발굴하더라도 그 시체가 누구의 시체 지를 알아 볼수 없게 함으로써 그것은 북한 공산군이 후퇴할때에 학살한것이라고 그 학살 책임을 인민군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데 있는 것이였습니다。

문 인민들을 학살함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까지 학살하는 리유는 어디 있는가。

답 해리손의 말이 새로운 공산주의자가 생기지못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씨 종자까지 전부 멸족시키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 일군과 당원들의 가족의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주리 잡아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문 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애국 인민들을 학살 할때에 허필순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답 그때 허필순은 무장 학생대원들을 지휘하여 호송되어 온 사

람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방공호에 몰아넣고 방공호 입구를 밀폐하는등 만행을 하였습니다。
문 미군이 패주할 때에 해리슨은 어떤 명령을 하였는가。
미군은 전략상 약 2개월간 후퇴하니 현재 남아있는 로동당원들의 가족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자들은 한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주리 잡아죽이는 동시에 미군이 후퇴한 후에는 원자탄을 사용한다는 것과 중공군이 나오면 사람들의 목을 짤라 죽인다는 허위 선전으로써 주민들은 한사람도 남기지 말고 남쪽으로 전부 강제 이주시키라고 하였습니다。
문 원암리 창고에서 인민들을 학살하던 방법은 어떠하였는가。
답 원암리 창고에 900여명의 인민들을 감금한것은 12월 3일이고 그들을 학살한것은 그 달 7일이였는데 그들을 감금한후 학살할때까지 물 한목음 먹이지 않고 난방장치도 없는 추운 창고안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개중에는 학살하기 전에 얼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 원암리 창고에서 학살이 끝난 다음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답 다 죽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시체는 골탄 창고 안에 그냥 버려두고 모두 남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문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임신부도 있었는가。
답 흑서리 서기장 부인 김순배를 비롯하여 많은 임신부가 있었습니다。
문 미 침략군대들은 강점시기에 인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외에 또 어떠한 만행들을 하였는가。
답 미군들은 4~5명씩 몰려 다니면서 부녀자들을 강간하여 상점과 주택들에 침입하여 인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하여 음주 방탕하는 것을 상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신천 녀학교 교원 2명을 신천시내에 끌고 가서 그들을 강간한후 총살하였으며 또 밤낮 온천에 가서 술을 먹고는 부녀자들을 닥치는대로 강간하였기 때문에 부녀자들은 모두가 피신하여 다니었던

것입니다。

문 미군이 패주할 때에 피소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답 나는 미군의 지시에 의하여 기차에다 쌀 술 모포 가죽 밀가루등을 실고 해주에 가서 미군에게 인계하고 다시 신천에 와서 경비를 서다가 백연도로 도주하였습니다。

문 백연도에서 간첩 훈련을 받은 정형은 어떠한가。

답 미군 정보국 찌투에서 인민군 주둔 정형을 탐지하는 방법과 건물 교량 등을 파괴하는 방법 및 살해한 인민군대의 신분증과 그밖에 증명서들을 탈취하여 리용하는 방법등을 배우는 동시에 수집한 간첩 자료를 무전으로 련락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문 피소자가 간첩 공작 사명을 받고 상륙한 날자와 실지 공작한 내용을 말하시오。

답 1951년 3월 3일 사찰계 주임 장재화 인솔하에 10명의 간첩단과 같이 장연에 상륙하여 두리산에 무장대원 200명이 집결되어 있다는 정보에 의하여 가서 본 결과 무장대는 1명도 없고 인민군대가 많기때문에 그곳 주민을 잡아다가 물어 본즉 인민군의 토벌대에 의하여 무장대는 거의 다 죽고 남은 자들은 그후 어떻게 되였는지 알수 없다고 하므로 무서워서 간첩 공작도 할수 없고 또 섬으로 들아갈래야 갈수도 없기때문에 간첩단은 전부 해산하였습니다。그렇게 되어 나는 가족들이 있는 해주집에 가서 은신하고 있다가 체포되였습니다。

문 피소자가 간첩 공작을 하는데 있어서 허필순과의 련계가 있었는가。

답 백연도에 있을때에 허필순이가 간첩 임무를 맡고 신천 방면으로 들어온 사실은 알았으나 그후 피차 련계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피소자 허필순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는 것을 고하였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피소자 최한우에 대하여 심문할것을 권한바、사회소추자들은 모두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피소자 최한우에 대하여 심문할것을 권하다。

변호인 김한준은 피소자 최한우에게 조국 전쟁 개시 이전에 38이남 지역으로 래왕한 사실이 있는가。

피소자 최한우―양초와 가축을 교환하는 행상차로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문 10월 18일 군당 앞 방공호 구뎅이에서와 10월 20일 군내무서 방공호에서 애국인민들을 학살할 때에 피소자는 경비를 섰다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답 학살 당하는 사람들이 도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주위로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내가 경비 서는 근본 임무였습니다。

문 로동당원들을 체포할때에 심사를 하고 체포하였는가。

답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동당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체포하였습니다。

문 피살자들의 처참한 비명 소리 만세 소리 김장군 노래 소리들을 들을때에 피소자의 감상은 어떠 하였는가。

피소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으리고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씻고 서있었다。

변호인 김한준은 피소자 최한우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피소자 최한우에게 피소자가 미군 정보국 지부에서 건물 교량등을 파괴할 사명을 받았는가。

피소자 최한우。 네! 받았습니다。

문 간첩 사명을 받고 올때에 무전수는 몇명을 데리고 왔는가。

답 2명이 왔습니다。
문 인민들을 학살한 방법중 잔악한 방법에 의하여 감행한 실례를 들어 보시오。
답 이미 진술한 대중적인 학살 방법 외에 눈알을 뽑고 코와 귀를 짤라 죽이며 곡괭이로 찍어 죽이며 사지를 찢어 죽이며 물에 집어 넣어 죽이며 부녀자들의 옷을 벗기고 국부에 나무 말뚝을 박아 죽이며 불에 달군 쇠끝으로 찔어 죽이며 나무에 거꾸로 달아매여 죽이며 톱으로 세토막을 내여 죽이며 생매장 하여 죽이는 등 그 잔인한 방법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문 더 진술할것이 없는가。
답 없습니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에게 대하여 피소자 최한우가 지금까지 진술한 중에서 틀리는 것이 없는가 고 무른바、
피소자 허필순은 틀리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15분간 휴정할것을 선언하고 오후 1시 30분에 퇴정하였다。
공판은 오후 1시 45분에 회복되다。

피소자 리두현에 대한 심문

재판장—피소자 리두현。당신의 경력을 간단히 말하시오。
피소자 리두현— 1931년에 출생하여 중학 2년을 중퇴하고는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문 신천군내에 미군이 침입시부터 체포될때까지 감행한 범행을 간단히 말하시오。
답 1950년 10월 17일 미군이 신천에 침입하자 그들을 환영하고 소위 신천군 경찰서 무장대원으로 가담하여 10월 18일 신천군당 앞 구뎅이에서 90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할때에 그 주

위에서 경비를 서다가 불붙는 구뎅이 속에서 살길을 찾아 기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지하였던 보총으로 5발을 발사하고 딸리 흙을 덮으라는 해리손의 명령에 의하여 다른 무장대원들과 같이 아직 비명 소리가 나는 방공호를 흙으로 덮어 생매장 하였습니다。그 이틀날 새벽에는 역시 그 장소에서 320여명의 애국자들을 체포하여다 놓고 자동차 헤트라이트를 비치우면서 총살할 때에 나는 약 30메트르 거리에서 경비를 서다가 총살당하는 애국인민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소지하였던 보총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달 23일 오후 3시 경에는 군당부 뒷 전호에서 애국자 330명을 총살하는데 가담한 사실들이 있습니다。그리고 동월 24일 부터 28일 까지의 사이에 전후 4차에 걸친 미군 군용트럭으로 애국자 40～50여명씩 남부면과 용문면에 있는 저수지와 산간 전호에 실어다가 학살할 때에 나는 재령 송화간 도로에서 사람들을 통행치 못하게 단속하는 경비를 선 사실이 있습니다。그 후에는 병으로 인하여 다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소자 리두현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은 1950년 10월 17일 신천에 침입한 미군 지휘관 해리손이 신천군내에 각종 괴뢰기관들을 조직할때에 참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고 무른바、

피소자 리두현— 그때 미군의 침입을 환영한 사람들이 상인 기독교 신자 기관에서 철직당하고 무직으로 있던자 그 밖에 무위도식하는 불량자 건달뱅이였으며 그렇기때문에 각종 괴뢰기관 조직에 참가한자들도 미군을 환영한 자들만이였습니다。

문 10월 18일 군당 앞 방공호에서 900여명을 학살할 때에 피소자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답 그중에는 10월 17일 해리손의 명령을 받고 시내에 나가서 내가 직접 체포하여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학살할 때에는 옷을 베끼고 방공호에 몰아 넣은 다음 그 주위 경비를 서다가 방공호에서 기어 나오는 애국자 5명을 직접 총살하였습니다.

문 그때 해리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답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놓으니 방공호 내부에서 무서운 비명 소리와 함께 만세 소리를 외치면서 밖으로 기어 나오니 해리손은 그들이 도주할까봐 당황하여 "빨리" "빨리" 하면서 삽을 들고 날뛰면서 흙을 빨리 덮으라고 하였습니다.

문 19일 새벽에 32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할 때에 피소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답 그날 새벽 1시경에 비상소집이 있어 나간즉 무장대장 신호식이가 하는 말이 체포하여 감금한 자들을 처단하겠는데 동원되라고 하기에 안종복 장재화등 20여명의 무장대원들이 미군과 같이 군당 2층에서 학살할 남자 200여명 부녀자와 유아 100여명을 학살할 현장까지 호송하고 나는 그 주변에서 경비를 서면서 소지하였던 보총으로 2명을 총살하였습니다.

문 그후 피소자는 어떠한 범행에 가담하였는가.

답 미군 중위 해리손과 소위 경찰서장 신상규의 명령을 받고 로동당원 민주일군 및 그들의 가족들을 4~6명씩 일렬로 세워 놓고 보총으로 총살하는 방법에 의하여 320여명을 학살 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군용 트럭에다가 학살 대상자들을 남부면 저수지로 호송할때에 그것을 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전후 4차에 걸쳐 교통 차단하는 경비를 선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소자가 거리로 순찰 다닐때에 체포한 사람은 없는가.

답 경비원들이 체포한 5명을 군당 2층에 까지 호송하여 그들을 학살 당하게한 사실은 있지만 내가 직접 체포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 무슨 리유로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였는가。

답 미군 중위 해리슨의 명령이 빨갱이는 씨종자를 없이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의 가족은 물론 그의 친척은 팔촌까지 남녀로소 할것 없이 모주리 잡아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문 미군이 강점 시기에 종교를 어떻게 리용하였는가。

답 미군은 목사 장로 그밖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였으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악선전을 하는 한편 기독교를 믿으라고 선전하였습니다。

문 미군이 신천 온천 장때산각에 유곽을 설치하고 부녀자들을 릉욕한 사실을 아는가。

답 네。 압니다。 많은 부녀자들을 감금하여 두고 강간 릉욕하고는 나중에는 산에 끌고 가서 전부 총살하였습니다。

문 피소자가 조국을 반역하고 침략자 미군의 주구로서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 리유는 어디 있는가。

답 미군 중위 해리슨의 말이 공산주의자 들을 전멸 시키어야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기에 가담하였습니다。

문 미군이 무슨 까닭에 조선에 와서 온갖 만행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 조선의 애국인민을 모주리 잡아 죽이고 조선을 먹으려는데 있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피소자 리두현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사회소추자 주황섭은 피소자 리두현에게 미군이 패주할때에 원자탄의 위협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다가 기총 사격으로 학살한 수는 얼마나 되는가。

답 약 3,000여명의 주민이 미군의 기총사격에 의하여 피살되였

습니다。

사회소수자 주황섭은 피소자 리두현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피소자 리두현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변호인 현창형은 피소자 리두현에게 적 강점시기에 당신이 감행한 범죄적 사실 들에 대하여 동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왜 피신하지 않고 집에 머믈어 있었는가고 무른바

피소자 리두현—리에서 심사를 받고 별일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체포 되였습니다。

문 적 강점시기에 피소자가 감행한 범죄적 만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그것은 참으로 비 인간적인 것이 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피소자 리두현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피소자 리두현에게 당시 신천에 침입하였던 미군 지휘관 해리손의 인상은 어떻하였는가고 무른바,

피소자 리두현 해리손은 키가 크고 코 밑에 여덟팔자 수염을 기른 사람이 였습니다。

문 허필순은 어느때 알게 되였으며 그의 평소 행동은 어띠하였는가。

답 허필순은 소학교 당시 부터 아는 사람인데 학생 시대에 공부는 하지않고 도둑질을 하여서는 료리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니며 동무들과 싸우기를 좋아 하며 선생의 가르침은 듣지 않고 회의때에는 빠져 다니는 등 학교 규률을 문란시키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출학 당하고 망난이 질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가르처 망난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문 미군들은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

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간주하여 학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 동 최한우에게 피소자 리두현의 진술중 틀린것이 없는가를 무른바、

피소자 허필순과 최한우는 모두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전체 피소자 및 증인들을 불러 세우고 제2일 공판은 이상으로 끝마치고 명일 오전 10시부터 제3일 공판을 진행할것을 선언하고 퇴정하였다。

5월 27일 공판

재판장은 오전 10시 정각에 피소자들과 증인들을 입정시키고 제3일 공판을 진행할것을 선언하다。

재판장은 방청석을 향하여 재판소의 소환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출정한 증인이 없는가를 확인한바 방청석으로 부터 증인 강행도와 리복배가 출정하였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증인 강형도와 리복배를 불러 세우고 그들의 성명 생 년월일 주소 직업 및 피소자들과의 관계들을 확인한 다음 그들이 재판과정에서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만일 진술을 거절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때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239조 및 제241조의 형사 책임을 진다는것을 경고하고 증인들에게 서약서를 제출시키다。

재판장은 증인들을 별실로 물러가라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에게 지금까지의 공판심리중 진술한 가운데서 보충할것이나 또는 시정할것이 없는가를 무른바、

피소자 허필순 - 없습니다。

피소자 최한우 - 없습니다。

피소자 리두현 없습니다。

재판장은 검사 사회소추자 변호사들에게 보충 심문할것이 없는가를 무른바 모두가 없다고 대답 하였다。

피소자 윤명원에 대한 심문

재판장은 피소자 윤명원에게 피소자의 간단한 경력과 적 강점시기에 감행한 범죄사실을 진술 하라고 한바、

피소자 윤명원—나는 21세시에 신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1950년 10월 17일 미군이 신천에 침입하게 되자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신천시내에 들어와서 경찰대원으로 가담한 다음 미군 중위 해리슨으로 부터 로동당원 민주일군 및 그들의 가족들을 모주리 체포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7명의 다른 무장대원들과 같이 15명의 로동당원을 체포하여 경찰대에 넘긴 결과 학살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듣날인 18일 신천 군당 앞 방공호에서 200여명의 유아를 포함한 900여명의 애국 인민들을 학살 할때에 학살 현장 주위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일 저녁 역시 로동당원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신천 역전에 순찰을 나갔으나 한사람도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그후 나는 다른 기관에 취직할 목적으로 집에 있었으나 결국 취직하지 못하고 있다가 12월 7일 원암리 화약창고에서 91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하였습니다。그리고 미군이 패주할 때에 나는 순의도에 상륙하자 무장대원의 비상소집이 있어 몽이였던바 뜰의에 인민군대들이 박격포를 발사하여 오므로 전부 해산되어 배를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그후 나는 남북 무장대에 가담하여 주로 인민들의 식량을 략탈하여다가 무장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겸하여 간첩 임무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면 운덕리에서

섭은 사람 2명을 체포하여 무장대에 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섬에서 2—3차 신천방면으로 래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소자 윤명원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피소자 윤명원은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10월 18일 로동당 신천 군당 앞에서 로동당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하였는가고 무른바、

피소자 윤명원—나는 경찰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참가하였습니다。

문 그때 애국인민들을 학살한 방법은 공동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의 진술한 것과 틀림 없는가。

답 네。 틀림 없습니다。

문 피소자는 무장대원으로 어느때까지 있었는가。

답 신천 군당 앞에서 인민들을 학살할때까지 무장대원으로 있다가 그후는 "대한 청년단"에 있었습니다。

문 "대한 청년단"이란 무엇을 하는데가。

답 서북청년 테로단과 같이 인민들을 학살하며 탄압하는 반동조직체인 것입니다。

문 그러한 단체는 어떠한 자들이 조직 하는가。

답 민족 반역 도당들이 조직하는 것입니다。

문 그러한 단체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답 주로 인민들을 테방적으로 체포 고문 학살하며 인민들을 탄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피소자는 그 단체에 가담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답 저는 훈련도 받고 또 로동당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 하기 위하여 체포하는데 같이 따라 다니었습니다。

문 피소자는 애국인민들을 학살하는데 몇번 참가 하였는가。

답 10월 18일 신천 군당 앞에서 900여명을 학살할때와 12월 7일

원암리 화약 창고에서 900여명을 학살할때에 참가하였습니다

문 12월 7일 원암리 창고에서 900 여명의 애국 인민들을 학살할때에는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참가하였는가。

답 무장 경찰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참가하였습니다。

문 12월 7일 원암리 창고에서 인민들을 학살할때에 피소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답 주변 경비를 섰습니다。

문 공동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등의 진술중 틀린것이 없는가。

답 없습니다。

문 피소자는 종교를 믿는가。

답 네。 기독교를 믿습니다。

문 미군은 기독교의 간판밑에 어떠한 술책을 하였는가。

답 예수를 믿지 않으면 로동당원과 같이 취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피소자는 장때산각에 미군이 노예의 유곽을 설치한 사실을 아는가。

답 모르겠습니다。

문 미군이 공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사실은 아는가。

답 네。 압니다。 미군은 인민들의 소 말 돼지 닭 그밖에 많은 재산들을 강탈하여 갔습니다。

문 피소자는 미군이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같이 따라 다니며 그것을 도아 준 일은 없는가。

답 같이 따라 다니며 도아 준 일은 없습니다。

문 미군 정보기관 찌투에서 간첩 사명을 받고 활동한 정형을 말하시오。

답 인민군대들의 토벌이 심하여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간첩 임무를 맡고 같이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인가。

답 세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문 세 사람중 책임자는 누구 였는가。

답 별로 책임자라고 지명된 사람은 없이 같이 들어 왔습니다。

문 간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들어올때에 무엇을 소지하고 왔는가。

답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몸으로 들어 왔습니다。

문 그러면 수집한 간첩 자료들을 어떻게 전달 하려고 하였는가。

답 지정된 련락소가 있었습니다。

문 간첩사명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지정된 련락소에 찾아 가 보았는가。

답 낮에는 찾아 갈수 없고하여 밤에 찾아가면 11시반되면 문을 채우고 하여 련락소 사람을 만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피소자 윤명원에 대한 신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피소자 윤명원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사회소추자들은 모두다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피소자 윤명원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변호인 현창형—피소자는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에서 90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학살 할때에 어떤 책임을 지고 참가하였는가。

피소자 윤명원—그때 주변 경비를 담당하고 참가 하였습니다。

문 12월 7일 원암리 창고에서 학살할때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답 그때에도 경비만 섰습니다。

문 한번에 900여명씩 학살하는 그때에 피소자의 감상은 어떠하였는가。

답 별다른 감상은 없고 다만 경비 서는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문 그때 학살 현장에서 학살을 지휘한자는 누구였는가。

답 미군 중위 해리슨이가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피소자는 수많은 인민들을 죽일때에 기분이 좋았는가。

답 처음에는 곤란한 생각이 났으나 두번째 번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문 그때에 감행한 행위에 대하여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그때의 나의 행동이 옳지 않았으며 국가와 인민 앞에 엄중한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참심원들에게 피소자 윤명월에 대한 심문을 청한바、참심원들은 모두다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더 보충 심문할것이 없는가를 무른바 검사는 한가지만 더 물을것이 있다고 대답하고 다음과 같이 심문하다。

검사 안명진— 피소자가 부락에서 남부면으로 들어 올때 에터고 온 2명의 애국인민은 누가 죽이였는가。

피소자 윤명월— 제가 직접 총으로 쏘아 죽이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더 보충 심문할것이 없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피소자 윤명월에게 피소자는 기독교를 어느때 부터 믿는가。

피소자 윤명월— 6세시 부터 믿습니다。

문 기독교 성경에 어디 사람을 많이 죽이라는 구절이 있는가。

답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문 기독교 교리에 그런것이 있어서 교리대로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많이 학살하는데 참가한것은 아닌가。

답 기독교 교리에는 사람 많이 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문 공동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의 진술이 틀림 없는가。

답 틀림 없습니다。

문 피소자는 허필순을 아는가。

답 학교시대 허필순은 저의 하급생이 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문 허필순이는 실천 망난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답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문 허필순이가 일을 잘 하기때문에 망난이라는 말을 듣는가。

답 료리집에 가서 술을 먹고는 사람들과 싸우기를 좋아하며 학교에서 규률을 지키지 않고 못되게만 굴기때문에 망난이라고 합니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에게 피소자 윤명원의 진술이 틀림 없는가를 확인한바、

피소자 허필순—틀림 없습니다。

피소자 최한우—틀림 없습니다。

피소자 리두현—틀림 없습니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 윤명원등에게 피소자들이 지금까지의 진술이 틀림 없는가를 재 확인한바 피소자들은 모두가 틀림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신천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미군 지휘관 해리슨의 명령으로 미군과 그의 보조부대인 소위 경찰서 무장대 무장학생대 및 그 밖에 각종 살인 단체들의 다수에 의하여 신천군내에서 인민들이 학살된 총수는 35,383명이 틀림 없는가를 확인한바 피소자들은 모두다 틀림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피소자 허필순에게

문 미군이 일시적 강점시기에 비단 신천군 지역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점한 지역은 그 어디를 막론하고 학살하였으며 또 그놈들은 공화국 남반부에 상륙한 첫 날부터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답 네。그것이 사실입니다。

문 그러면 피소자는 미군들이 무엇때문에 전투 인원도 아닌 평화적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한다고 생각하는가。

답 그것은 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한 첫 날부터 그들은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며 조선 사람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이러한 침략기도를 반대하는 조선의 모든

애국인민들을 학살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오늘 조선에서 미제의 이와 같은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서 적극 싸우고 있는것은 누구인가。
답　그것은 조선 로동당원들 입니다。
문　미국놈들은 조선을 식민지 노예화하며 조선 인민을 노예화할 야망에서 로동당원들을 학살한다면 미국놈 아닌 피소자들은 무엇때문에 로동당원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하였는가。
답　인민군대의 일시적 후퇴를 공화국은 영원히 패망된것으로 잘못 알고 신천 주둔 미군 사령관 해리슨의 지시에 의하여 미군의 보조부대인 무장 학생대 책임을 맡게되어 그들이 조선의 애국인민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문　설사 그렇게 생각하였다 할지라도 조선 사람의 탈을 쓴 이상 그와같은 만행에 가담하여 그렇게 할수 있는가。
답　할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피소자들이 지나간 3일간의 공판 심리에서 말하지 못한것이 있으면 증인 심문을 통하여 그것을 보충하여 말 할 수 있으며 또 증인들의 증언중 피소자들의 의견과 상위되는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진술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통고 하였다。

재판장은 검사 사회소추자 변호인들에게 대하여 이것으로써 피소자들에 대한 공판 심리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의의가 없는가를 무른바 검사 사회소추자 변호인들은 모두다 의의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10분간 휴식을 선언하고 11시에 폐정하였다。
공판은 11시 10분에 회복되였다。

증인 김만석에 대한 심문

재판장ー 증인 김만석에게 지금부터 적 강점시기에 론진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사실과 당시 신천군을 강점하였던 미

군들이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알고 있는것을 상세히 진술하시오。

증인 김만석 — 나는 미군이 신천군내에 침입하였을 때에 소위 신천 경찰서 무장대원으로 있으면서 본건 피소자들과 같이 애국인민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하였던 관계로 그후 내무기관에 체포되였다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관대정책으로 석방되어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17일 미군들이 신천지역에 침입하였는데 그때 나는 무장대원으로 있으면서 신천을 강점한 신천주둔 사령관 미군 중위 해리손으로부터 로동당원과 그의 가족들을 체포하여 공산주의자를 멸족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소위 경찰대 무장대 학생대등과 같이 애국인민 900여명을 체포하여 로동당 신천군당 2층에다가 감금하였고 그 이튿날인 18일 미군은 그들을 라체로 하여 군당 앞에 굴설되어 있는 길이 약 20메트르 가량되는 구덩이속에 쓸어넣고 그들에게서 벗긴 옷을 그들 머리위에 씌우고 다시 벼짚을 덮은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소살할때에 나는 약 20메트르 거리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놓으니 구덩이의 속에서는 무서운 비명과 함께 주검의 불길을 헤치고 기어 나오는 사람들을 그 옆에 있던 미군과 무장대들이 발길로 차넣고 총탁으로 밀어 넣다가 나중에는 기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총을 란사 하였습니다。

그때 굴속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비통 처참한 울음 소리와 함께 어른들의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장군 노래 인민항쟁가를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그 학살 현장에는 미군 주둔 사령관 해리손과 소위 신천 경찰서장 신상규가 참가하여 그 학살을 직접 지도하였는데 해리손의 지시에 의하여 굴속에 사람들이 아직 다 죽기도전

에 그 구뎅이 입구를 흙으로 덮어 생매장 하였습니다。

산사람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고 보총으로 란사하고 흙으로까지 덮어 굴속에 들어넣은 90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완전히 학살한 다음 해리손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신상규의 어깨를 손으로 놀 치면서『오—케』하고 만족한 뜻을 표시 하면서 소위 경찰서장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 이듬날 해리손은 900여명이 학살 당한 그 구뎅이를 파헤치고 그가 소지하였던 사진기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사진까지 찍었습니다。그달 20일에 내무서 방공호에서 50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학살할때에도 나는 그 주변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역시 피살자들의 옷을 전부 벗기고 방공호에 몰아넣은 다음 그 입구를 널판과 흙가마니로 밀폐한 다음 미군병자들은 그 내부에 이미 장치하여 두었던 다이나마이트 도화선에 불을 달아 폭사 시켰습니다。그때에도 해리손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학살을 지도하였는데 학살이 끝난 다음 그는 우리에게 수고하였다고 하면서 담배 한대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월 초순경 약 20여명의 미군은 신천 온천에 와서 머리깎은 사람과 캡을 쓴 사람들을 체포하여다가 학살 하였는데 그때 나의 동생도 체포되어 학살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은 신천 온천 장백산각에다 노예 유곽을 설치하고 젊은 부녀자들을 감금하여 두고 강간 릉욕한 다음 그들을 총살하였습니다。미군이 퇴각한 후에도 장백산각에는 총살 당한 부녀자들의 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초순경 원암리에 있는 두개소의 화약창고에서 90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학살하였는데 그때에도 나는 약 20메트르 거리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그후 나는 패주하는 미군을 따라 옹진에 가서 군양호를 타고 응호도 섬에 갔다가 1951년 1월 16일경 허필순과 같이 신천에 돌아와서 내무서에 체포당하여 교화중—공화국의 관대 정책에 의하여 석방 되었

습니다。
문 토동당 신천군당 앞 구뎅이 길이가 20메트르 라고 하였는데 2메트르가 아닌가。
답 아닙니다。그 굴의 길이가 20메트르 가량은 됩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김만석에게 심문할 것을 권하다。

검사 안명진— 증인 김만석에게 토동당 신천군당 앞에서 900여명을 학살할때에 살기 위하여 밖으로 기어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당시 허필순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증인 김만석— 당시 허필순은 무장학생대장으로 부하들에게 살기 위하여 기어 나오는 사람들을 총살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살려고 기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자신이 직접 총을 맘사 하였습니다。
문 신천에 침입하였던 미군은 어느 부대 소속이였습니까。
답 어느부대 소속이였는지 알수 없으나 태하산 마크를 달고 다니였습니다。
문 그 부대의 지휘관은 해리손이 틀림 없습니까。
답 틀림 없습니다。
문 해리손이란 자의 인상은 어떻게 생기었습니까。
답 나이는 30세 가량되어 보이며 키가 크고 앞이 툭 나오고 미욱하게 생기었습니다。
문 10월 18일 토동당 신천군당 앞에서 900여명을 학살한 다음날 해리손이가 죽은 시체를 파내여 놓고 사진을 찍은 리유는 어디 있습니까。
답 그것은 그와같은 대중적 학살을 자기들이 침입할때에 인민군대가 후퇴하면서 학살한 것이라고 악선전 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문 12월 3일 910여명을 감금한 원암리 창고에서 증인도 경비를 섰다는데 그들을 학살한것은 어느 날이 었습니까。

답 12월 7일 아침이였습니다。
문 910여명의 애국 인민들을 감금하였다가 학살할때까지 고군을 어떻게 취급하였습니까。
답 추운 겨울에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먹이지 않고 그냥 굶겨 두었습니다。
문 학살하는 방법은 어떠하였습니까。
답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놓았고 사이다 병에다 휘발유를 넣어 그것을 폭발시키였으며 수많은 수류탄을 던지는등 처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문 그때 허필순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답 병에다 휘발유를 넣어 불을 달아 뿌리였으며 또 총을 발사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문 3～4일 동안이나 구금하여 두고 전연 먹이지 않았으며 어린 영아들과 유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어린 아이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은것이 태반이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나려고 손톱으로 땅을 팟기 때문에 손톱이 다 물러나서 피 투성이 되어 있였습니다。
문 그들을 학살한 후에 그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 하였습니까。
답 그냥 버려두고 도주하였습니다。
문 섬에 가서 간첩 사명을 맡고 신천에 들어 올때에 윤명원 허필순 등과 같이 온것이 사실입니까。
답 네。사실입니다。
문 증인이 무장대원으로 있으면서 미군들이 주민을 강제 이주 시키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답 네。본 사실이 있습니다。11월 하순경 미군은 신천에서 400여명의 주민을 군용차에 실어서 남쪽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그들을 강제 이주시킨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문 미군이 설치한 유곽에서 강간 능욕당한 녀자들은 어떤 사람

들입니까。
답 가정부인 또는 녀자 고급중학교 학생들이였습니다。
문 미군이 공민들의 재산을 략탈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답 네。본 사실이 있습니다。그들은 주민들의 가축을 강탈 하여다가 잡아먹었으며 그밖에 수많은 재산들을 강탈하여 갔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김만석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김만석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모두 심문할것이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김만석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변호인 지영대—피소자 허필순이가 학생 시대에 어떻게 되어 학교에서 출학 당하였는가를 무른바 증인 김만석—허필순은 학생 시대에 운동은 좋아하면서도 공부하기는 싫어하며 또 술을 먹고 싸움만 하고 다니며 학교 규률을 문란시키였기 때문에 출학 당하였습니다。
문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에서 인민들을 학살할때에 허필순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답 살려고 밖으로 기어 나오는 사람들을 발길로 차서 불길속에 도루 쓸어 넣고 또 그들에게 향하여 보총을 란사하면서 학살에 직접 가담 하였습니다。
문 내무서 방공호에서 인민들을 학살할 때에는 피소자 허필순이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답 역시 무장 학생대원들을 지휘하여 피살자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결박하여 방공호에 몰어 넣었습니다。
문 그때 방공호 내부에 장치한 다이나 마이트 도화선에 누가 불을 달아 놓았습니까。
답 미군이 달아 놓았습니다。
문 피소자 허필순이가 해리슨과 같이 다닌 일이 있습니까。

답 허필순은 그 당시 무장 학생 대장이였기 때문에 해리손은 항상 그를 상대로하여 일하였으며 또 해리손은 허필순을 상당히 신임하였습니다。

변호인 지영대는 재판장에게 증인 김만석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변호인 현창형 — 증인이 피소자 윤명원 허필순등과 같이 간첩 사명을 맡고 상륙할때에 피소자 최한우는 같이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만석— 최한우는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소추자 신성순은 재판장에게 증인 김만석에 대하여 몇가지 심문 할것을 말한바 재판장은 그에게 심문할것을 권하다。

사회소추자 신성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520여명이 학살당한 가운데서 남자가 몇명이나 되며 녀자와 유아들은 얼마나 되였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 학살 방법은 어떠하였습니까。

증인 김만석— 피살자 520여명중 남자가 300여명이며 부녀자와 유아가 200여명인데 그중에는 임신부와 1~3세되는 철없는 아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살 방법은 남녀 로소할것 없이 발강에 벗긴 다음 결박하여 방공호에 쓸어 넣고 널판과 흙가마니로 방공호 입구를 밀폐하여 질식케 한 다음 방공호 내부에 이미 장치하였던 다이나 마이트 도화선에 불을 달아 폭사 시키였습니다。

문 피살자들의 신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신발까지도 전부 벗기고 단지 빤쯔 하나만 입히어 두었습니다。

문 타체로하여 방공호에 들어보낼 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답 거의 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총탁으로 떠 밀고 발길로 차서 강제로 들어 넣었습니다。

사회소추자 신성순은 증인 김만석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재판장은 증인 김만석에게 미군이 문예빈과 그의 동생을 강간 하였다는데 어디서 보았습니까 고 무른바 증인 김만석— 신천 뒷산에 끌고 가서 강간하고 총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원암리 창고에서 학살당한 200여명의 유아들이 손톱 발톱이 다 닳아지게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답 배주리고 추위에 못 이기어 부모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다가 죽은 까닭입니다。

문 신천 고급 중학교 녀학생이 증인을 보고 그가 미군에게 강간 당한 사실을 하소연 하였다는데 어느때 어디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답 11월 중순경인데 나는 온천면에 온천하러 갔다가 장백산각에 20여명의 젊은 녀자들이 감금된 것을 보았는데 그 녀자들은 전부가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연하여 있었습니다。그중에는 나를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17세되는 신천 고급중학교 녀학생이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소、이곳에 있는 녀자들은 전부가 다 미군놈들 에게 강간 당하였고 나도 그놈들이 나의 가슴에 총뿌리를 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한다고 하기 때문에 참아 죽지 못하여 몸을 허락하였다고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문 미군이 신천을 강점한 그 당시 그들이 인민들을 잔학하게 학살한 사실을 아는대로 말하십시오。

답 이미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량적 학살 방법도 극히 잔악 하였지만 개별적 학살 방법은 더욱 처참 하였습니다。운봉리에 거주하던 로동당원 한사람은 그가 명소 사업에 열성적이 였

다는 리유로 가족을 벗기어 죽이였으며 같은 리 로동당 세포위원장은 끝에 달군 쇠끝으로 그의 이마에다 『열성 빨갱이』라고 지져가지고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그를 라체로 한다음 "네가 항상 좋다고 하던 모쓰크바로 가라"고 하면서 불에 달군 쇠끝으로 전신을 지져 죽이 였으며 또 리위원장은 이마에다 못을 박아 죽이 였으며 그밖에도 잔인하게 죽인 사실들이 허다합니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대하여 증인 김막석의 증언중 사실과 틀리거나 의문 되거나 또는 그에게 질문 할것이 없는가를 무른바 피소자들은 모두다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박설화에 대한 심문

재판장— 증인 박설화에게 적 강점시기에 본건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 사실과 신천을 일시적으로 강점 하였던 미군들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에 대하여 아는대로 진술하시오。

증인 박설화— 1950년 10월 17일 내가 거주하던 신천면 경제리에도 미군들이 침입 하였습니다。그러나 나는 그때 그놈들이 무고한 인민들을 그렇게도 학살 할 줄은 몰랐습니다。저의 아버지가 로동당원이라 하여 구뎅이를 파고 산체로 배꼽위에 까지 파묻어 죽이는 것을 나는 직접 목격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우리 동리 로동당 세포위원장을 체포하여 놓고 『네가 좋아하는 면당부로 가자』고 하면서 면당부 앞에 끌고가서 그의 이마에 못을 박고도 무엇이 부족한지 다시 나무 말뚝을 박아죽인 다음 면당앞에다 묻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집에는 늙은 할머니와 어린 아이들 까지 8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도 전부 놈들에게 학살 당하였습니다。84세 되는 늙은 할머니가 사형장으로 갈때에 따라가지 못한다고하여 색기로 목을 매여 끌고 가다가 다리 아래에 거꾸로 떨어뜨리어 죽이고 그밖에 가족들은 전부 생매장하여 죽이였습니

다。

그리고 우리 동리 모범 농민의 부인 김인녀를 혹독한 고문 끝에 생 매장하여 죽이었는데 김인녀를 고문할때에 다섯살 되는 그의 아들이 울고있는 것을 총살하였습니다。그 밖에도 동리 로동당원 부인들의 팔다리를 부질러 죽이며 그들의 아이들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는등 일일히 다 말할수 없습니다。

나도 그놈들에게 체포되였다가 도주하여 황해도 안악군에 가서 숨어 있다가 우리 인민군대가 재 진격하여 나온 다음 부락에 돌아와서 학살 당한 가족을 찾아 보았는데 6명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죽이였는지 살과 뼈가 서루 엉키워 누구의 시체인지 분간 할 수 없도록 비참하게 죽은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저기 앉은 저놈들도 (이때 증인은 원한의 증오의 불길이 가득찬 눈으로 피소자들을 내며 보면서 머리를 숙으리고 피소자 석에 앉아있는 허필순 최한우 등 4명의 피소자들을 손으로 가르킨다) 미군놈들과 갈이 우리 가족을 학살 하였습니다。(증인은 흑흑 느껴 울면서 설음이 북받치어 말끝을 맺지 못한다)

그리고 미군놈들은 신천면에 살고 있던 고운 처녀 부인들을 체포하여다가 강간 하였는데 강간하는 부인들에게서 젖먹는 애기 26명이나 강제로 떼여다가 뒷산에 가서 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천 저수지에다가 30여명의 부녀자와 유아들을 학살 하였습니다。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 봄에 이앙하기 위하여 저수지 수문을 열즉 사람 썩은 냄새가 심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리에는 170호가 살고 있는데 그때 미군놈들에게 학살 당한 수를 보면 로동당원 48명중 45명 로인 40명 부녀자 80명 어린아이 85명을 비롯하여 전부 38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 당하였습니다。 미군놈들이 우리 부락에 와서 감행한 가지가지의 악랄한 범행들은 이루 형언할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박설화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명진—그때 미군의 손에 학살 당한 증인의 가족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 박설화— 5촌까지 전부 20명이 학살 당하였습니다。

문 학살 당한 분들의 년세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유아가 10명 청년 4명 80세되는 로인 2명 40세되는 부인 2명 23세되는 부인 1명 73세되는 나의 아버지까지 20명 입니다。

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적 강점시기에 경제리에서 미군의 손에 학살 당한 수가 370여명이라고 하는데 그 부락에 총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답 약 750명 가량 됩니다。

검사는 증인 박설화에게 증제13호를 제시하면서 이 사진 내용을 알수 있는가를 물은바 증인 박설화는 그 사진은 신천면 상호리 뒷산에서 발견된 김인애의 형이 피살된 시체인데 등에 업힌 어린 애기는 어머니의 머리를 들어 쥐고 한 덩어리가 되어 비참하게 죽은 것이라고 대답 하였다。

문 신천에 침입하였던 미군들이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사실을 아십니까。

답 나는 놈들에게 체포되어 구금 당하였다가 10월 24일 도주하여 안악군에 가서 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놈들이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정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박설화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관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박설화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사회소추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관장은 변호인 들에게 증인 박설화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관장—증인 박설화에게 미군이 세포위원장을 학살 할 때에 『네가 좋아하는 면당부로 가자』고 하는것을 어떻게 알아 들었습니까。
증인 박설화— 그것은 통역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알아 들었습니다。

재관장은 참심원들에게 증인 박설화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참심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관장은 피소자들에게 대하여 증인 박설화의 증언중 틀리는 점이없는가를 무른바、
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 하였다。

증인 우말제에 대한 심문

재관장—증인 우말제에게 미군이 신천을 강점하였던 시기에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 윤명원등이 감행한 범죄 사실과 미군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상세히 말하여 보십시오。
증인 우말제—저는 원암리에 거주하였는데 우리 인민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후 우리 부락에도 미군 놈들이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10월18일 아침 미군놈 3명이 저의 집에 와서 저의 령감 (남편) 을 붙들고 몸 수색을 하더니 몸에서 우리 공화국기를 발견하자 그 원수 놈들은 저의 령감보고 이 놈이 진짜 빨갱이라고 하면서 전신을 결박한 다음 철사로 코 귀 손 바닥을 꿰

고 영감이 받은 열성 농민 표창장을 이마에 못을 박아 붙치고 거리로 끌며 다니다가 비참하게 학살 당하였읍니다。 (이때 증인은 원쑤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분노와 원한이 가득 찬 울음을 울다가 고도로 흥분된 어조로써 말을 계속한다) 미군놈들은 저의 영감을 그렇게도 비참하게 죽이고 또 저의 며누리도 사람의 입으로서는 참아 형언할수 없이 잔학하게 죽이였읍니다。본래 얼굴이 어여쁘고 성품이 참으로 무던한 나의 며누리를 그 개 같은 놈들이 강탈하려 다가 저의 며누리가 『이 개 같은 놈들아。나는 천백번 죽어도 너의 같은 철천의 원쑤놈들에게 나의 몸을 허락할수 없다』고 고함을 치면서 한사코 반항을 하니 놈들은 저의 며누리를 산에 끌고 가서 옷을 전부 벗기고 밤나무에 달아 맨 다음 칼로 젖을 도려내고 국부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고 그에 불을 달아 태워 죽이였읍니다。(증인은 원한의 설음이 북받치어 말을 계속하지 못하고 흑 흑 느껴 울다가 재판장으로부터 너무 흥분하지 말고 상세히 진술하라는 주의를 듣고서야 원쑤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가득찬 울음섞인 어조로써 진술을 계속한다。 저의 아들 하나는 인민군대에 나가고 한 아들은 리 인민위원회 서기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였는데 서기장으로 있던 아들은 미군놈들에 붙잡히어 사지를 찢겨 죽었고 저의 딸 3명도 그 놈들의 손에 입으로는 형언 할수 없는 비참한 학살을 당하였읍니다。

그리고 개같은 미군놈들은 저의 동리 인민학교 교장 선생을 널판 위에 눕히고 사지에 못을 박은 다음 마지막으로 할말이 없는가고 물으니 교장선생은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살아있다。 우리 뒤에는 로동당이 있다。오늘은 내가 너의 개놈의 손에 죽으나 래일은 나의 동지들이 너의 들에게 반드시 천배 백배의 복수의 주검을 줄 것이다』타고 말한 다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김일성 장군 만세!』타고 웨치니 원쑤놈들은 도끼로 그의 가슴을 찍고 톱으로 머리를 켜서

목이였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미군 놈들은 저의 3 형제 일가족 30여 명을 잡아다가 우물에 거꾸로 집어 넣고 그위에 비료 가마니와 돌을 던지어 죽이였습니다。

저는 산에 가서 숨어있으면서 한곳에서는 미군놈들의 손에 270여명이나 되는 인민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중 숨이 붙어 있는 유아들은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이 악귀같은 원쑤놈들을 어떻게 다 죽이면 나의 원한이 풀리겠습니까。

문 증인의 남편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답 저의 남편의 성명은 박도세 입니다。

문 년령은 몇이십니까。

답 놈들에게 학살 당할 그때에 45세 였습니다。

문 미군에게 학살 당한 증인의 자식들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답 그 놈들에게 학살 당한 자식들은 장남 박성근 25세 3남 박성찬 15세 4남 박성실 장며 박성녀 차며 박순녀등 입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우말제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은 10월 18일 아침에 미군이 증인의 가족들을 체포하러 갈때에 그들과 같이 따라간 사람은 없습니까 고 무른바、증인 우말제는 미군놈들은 남반부에 도주하여 가 있던 숙을 당한 지주 『장』가의 아들을 데리고 왔댔습니다。라고 대답하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우말제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 소추자들에게 증인 우말제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사회 소추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우말제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변호인들은 심문 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참심원들에게 증인 우말제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참심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우말제의 증언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각각 의견이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김선녀에 대한 심문

재판장은 증인 김선녀에게 미군이 신천을 강점하였던 시기에 본건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행과 미군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에 대하여 아시는 것을 말하시오、라고 한바、

증인 김선녀—미군놈들은 신천에 침입하여 있는 기간 온갖 만행을 다하였습니다。 그 개 같은 놈들은 저의 아버지 김진태가 모범 농민이라 하여 『이놈은 거저 죽일수 없다』고 하면서 동리 사람들을 몰아 놓고 칼로 전신을 점점히 찢어놓고 열성 농민 표창장을 가슴에 칼로 박아 부쳐서 저수지에 차넣어 죽이였습니다。저의 어머니는 방공호에서 그놈들에게 비참하게 학살당하였습니다。 저의 시 아버지의 가족 13명은 전신을 새끼로 꽁꽁 결박하고 장작이를 쌓아놓은 위에 올려 앉히우고 불을 질러 태워 죽이였습니다。 (이때 증인은 흑흑 느끼어 운다) 그리고 그 개 같은 놈들은 면 인민위원장과 우리 동리 로동당 세포위원장 리동진을 체포하여 옷을 벗기어 기둥에 결박하여 놓고 전신에 칼침질을 하며 다리를 부질러 놓는등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악독한 고문을 하다가 비참하게 학살 하였습니다。그밖에도 그놈들의 만행을 피하여 있는 수 많은 인민들을 체포하여 군용 트럭으로 호송하여다가는 저수지에 쳐어 넣어 죽이였습니다。개 같은 미군놈들은 참으로 인간백정으로서 갖은 만행을 다하였습니다。그놈들이 패주한 후에 나는 가족들의 시체를 찾아 보았는데 그 전부가 불에 타고 칼에 찢기어 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중에도 그놈들에게 학살 당한 저의 아들은 어떻게도 악착하게 죽이였는지 머리와 다리가 없는 조그마한 몸둥이만 겨우 찾아 묻었습니다。나는 오늘 판사 동무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씀은 인간 백

정 미군놈들에게 개노릇을 하면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 하는데 가담하였던 더럽고도 추악한 저기 앉은 저놈들 (피소자석을 손으로 가르키면서) 을 준엄히 처단하여서 저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김선녀에게 심문 할것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미군에게 학살 당한 증인의 가족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 김선녀— 4촌 오빠까지 합하면 40여명이나 됩니다。

문 학살 당한 가족들은 어떤 자들이 체포 하였습니까。

답 미군놈들과 소위 경찰서 무장대원들이 체포하여 갔습니다。

문 저기 앉은 피소자들 중에는 증인의 가족을 체포하는데 가담한 사람이 없습니까。

답 그놈들 중에는 없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김선녀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김선녀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사회소추자들은 각각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김선녀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변호인들은 각각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김선녀의 진술에 의견이 없는가를 무른바 피소자들은 모두가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10분간 휴회를 선언하고 오후 1시 35분에 퇴정하였다。공판은 오후 1시 50분에 다시 회부되었다。

증인 리만식에 대한 심문

재판장은 증인 리만식에게 미군들이 신천을 강점하였을 당

시 피소자들과 미군이 감행한 범죄적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말하시오。 타고 한바、

증인 리만식─미군놈들은 저의 아버지가 로동당원이 타고 하여 저의 어머니와 형을 체포하여다가 학살하였습니다。 저도 놈들에게 체포되어 며칠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미군놈들이 무장대원들과 같이 구금되어 있는 우리들을 5명씩 한데 결박하여 석강까로 끌고 나가더니 돌려 세우고 총살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총에 맞아 넘어졌으나 다행히도 치명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장대원들은 나의 옆에 동무가 총에 맞아 아직 다 죽지 않고 신음하고 있는것을 보고 그에게 다시 총을 발사하여 죽인 다음 돌아 다니면서 총에 맞아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총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총창에 까지 찔리어 혼수상태에 있다가 다시 정신이 들기에 포승을 끊고 상처를 부등켜 안고 북무면에 있는 저의 누의댁에 가서 은신하여 있으면서 상처를 치료하였습니다。 제가 놈들에게 끌리어 총살장에 나갔을 때에는 이미 그곳에서 총살 당한 수백명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패주한 후 석강교에 나가 보니 그 곳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밀물에 밀리어 둥둥 떠 다니었는데 어찌도 많은지 강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밀물이 개면 가마귀떼들은 그 시체들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이 총에 맞던 곳은 어디라고 하였습니까。

답 노을면 석강가 였습니다。

문 증인은 그때 총에 맞고 또 총창에 찔리우고도 죽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의 몸에 총탄 자리와 총창 자리를 보여 주시오。

답 네… (이때 증인은 상의를 벗고 좌편 가슴에 관통된 총탄 자

리와 좌편 첫위에 있는 총창에 찔리운 흔적을 보인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리만식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증인 리만식에게 10월 21일 석강가 총살장에 나갔을때 그 강가에서 이미 학살 당한 정형은 어떠하였습니까。

증인 리만식—강가에는 길이 30메트르 깊이 5메트르 가량되는 전호속에 약 200여명 가량되는 시체가 있었고 강가에는 두개의 시체가 조수에 밀리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리만식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심문할 것을 권한바、

사회소추자 신성춘은 증인 리만식에게 조수에 밀리워 떠 다니는 시체들은 어떻게 학살 당한 시체들인지 알수 있었습니까고 물은바、

증인 리만식은 그 시체들은 미군놈들이 피살자들을 다리위에 끌고 가서 강물에다 밀쳐 떨어뜨리고 돌을 던져 죽이였습니다。라고 대답하다。

사회소추자 신성춘은 재판장에게 증인 리만식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리만식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증인 리만식에게 석도교 다리 높이는 몇 메트르나 됩니까。고 물은바、

증인 리만식—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약 15메트르 됩니다。

문 증인의 키로 몇길이나 됩니까。

답 저의 키로 5~6길이나 됩니다。

문 다리밑의 물은 깊습니까。

답 평시에는 그리 깊지 않으나 썰물이 올라 오면 깊어서 까라 앉았던 시체들이 둥둥 뜹니다.

재판장은 참심원들에게 증인 리만식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참심원들은 각각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리만식의 진술중 틀리는 것이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전경애에 대한 심문

재판장— 증인 전경애에게 미군이 신천을 강점하였던 시기에 본건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 사실과 미군이 감행한 만행들에 대하여 듣고 보아 아는 사실을 상세히 말하시오.

증인 전경애— 미군놈들이 신천에 기어 들어왔을때에 저는 그놈들이 인민들을 학살하리라는 것은 예상하면서도 로인 부녀자 유아 할것 없이 야만적 방법으로 그렇게도 무차별 대량학살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 개같은 놈들은 우리 신천에 기어 들어오자 빨갱이는 씨종자를 없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고한 인민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수없이 죽이였습니다. 저의 집에는 12명의 식구가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놈들에게 9명이나 학살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삼촌 댁에서도 9명이 전부 학살 당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미군놈들의 만행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선 저의 집 가정 형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집에서는 본래 소작농을 지어오다가 위대한 쏘련군대의 은혜로 우리 조국이 해방된후 김일성 장군의 옳바른 령도밑에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토지를 분여 받은 기쁨에 아버지는 매일 퇴비를 석짐씩 내여 논물을 간장물 같이 만드는등 농사에 열성을 다 하였기 때문에 모범농민의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부유하고 행복한 살림을 하여 오던 우리

가정을 미군놈들이 기어 들어와서 아버지가 모범 농민이라고 하여 아버지는 물론 전 가족을 학살 하였습니다。 그때 나도 미군놈들의 손에 체포되어 달천 소방대 창고에 83명의 애국 인민들과 같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미군놈들은 김익돈 아즈머니를 빨갱이의 가족이라고 하여 3메트르 가량되는 쇠몽둥이와 혁대로 무수히 란타하여 죽이였는데 그의 등에 업히였던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애기도 머리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같은 놈들은 리성녀란 교원을 라체로 한 다음 바눌 방석에서 자라고 하면서 못을 박은 널판위에 굴리면서 무수히 란타하여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비참하게 학살되였습니다。 동리 반장으로 있던 리교정은 그가 평소 사업에 열성적이였다 하여 그의 가족 6명과 함께 우물 처럼 땅을 파고 생매장하여 죽이였습니다。 (이때 증인은 원쑤놈들의 만행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울음을 울면서 말을 계속한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원쑤놈들은 제가 배워 주던 당년 11세 되는 리춘자가 공부에 열성이고 소년단 사업을 하였다는 리유로 역시 굴을 파고 생매장 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한번만 살려 달라고 애걸하면서 굴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털끝만한 인간의 량심조차 없는 그 개같은 살인귀들은 그 소년의 머리를 사정없이 발길로 차서 넣고 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리영하 어머니는 당년 80세에 나는 늙어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를 아들 있는데로 가자고 속여 끌어내여다가 그의 두팔을 분질러 개굴 물에 처박아 죽이였습니다。

저는 이렇듯 비참한 광경을 직접 내눈으로 보고 원쑤놈들에 대한 치솟는 원한과 격분을 억제할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살인귀 미군놈들에 대한 원쑤를 갚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버지와 같이 도주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가 감금되어 있는

찾고 경비를 선 무장대원 서북태란 자를 보고 변소에 가겠다고 속이고 밖에 나와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주하는것을 알게된 미군놈들과 무장대원놈들은 우리를 추격하면서 총을 발사하여 이때 저의 아버지는 놈들의 총에 맞아 너머져서 놈들에게 붙잡히고 나는 마침 총에 맞지 않고 그대로 뛰어 산 숲속에 숨어서 바라보니 원쑤놈들은 총에 맞아 너머진 저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였습니다。
(이때 증인은 피소자 석에 앉은 피소자들을 원한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개 같은 놈들아 내말을 알아 듣느냐。나의 혈친의 원쑤 미군 살인귀들의 앞잡이 너의 놈들에 대한 원한을…) 나는 거기서 도주하여 10월 20일경 구흥면 상처리에 있는 형의 집에 찾아가니 형도 로동당원의 가족이라고 하여 놈들에게 붙잡혀 갔기 때문에 할수없이 고모의 집으로 가던길에 모나지 광산 모래메기 부근에 이르렀을때 미군 3명과 무장대원들이 약 150명 가량되는 애국인민들을 결박하여 학살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놈들에게 끌리어 가는 인민들의 울음 소리와 아우성 소리는 요란 하였습니다。모래멩이가 있는 곳에 가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울음소리와 아우성 소리는 조용하여 지고 놈들의 휫바람 부는 소리와 노래 소리에 섞인 개 우슴을 웃는 소리만 들리였습니다。나는 이 원한 서린 광경을 보고 송화에 있는 오빠 댁에 간즉 신천 무장대 놈들이 가서 오빠 올케 그리고 생후 10개월 되는 조카는 체포되어 가고 15세되는 조카만 남아있기에 그 조카를 경찰서에 보내여 오빠와 올케의 생사를 알아 보게한바 보고 와서 하는말이 오빠는 쇠몽둥이로 매혀서 세번이나 까무러쳤다가 살아나니 그놈들은 너는 진짜 빨갱이니 비행기로 모쓰크바에 보내어 준다고 하면서 공중에 매여 달아 죽이였고 올케도 쇠몽둥이에 맞아 죽었는데 생후 10개월 되는 철없는 어린 조카는 죽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여 달려 젖을 달라고 우는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미군놈들에 대한 원쑤를 갚기 위하여 구월산에 들어가 빨찌산 운동을 하다가 인민군대의 재진격으로 그놈들이 패주한 후인 그해 12월 24일에 신천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서 매장하고 군당 방공호에서 학살 당한 어머니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있는 시체들이 모두가 범벅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있어 끝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판사 검사님들、저기 앉은 저놈의자식들이 (피소자석에 앉은 피소자들을 손으로 가르키면서) 나의 부모와 함께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죽였습니다。구월산에서 나와 군내무서 방공호에 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 당하였는데 그 시체들은 사람의 시체로 알아 볼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암리 화약 창고에 가 본즉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옷을 벗기우고 죽은 시체들이 첩첩이 쌓이어 있었는데 그 어린이들은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기우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고 하며 자기들의 어머니 있는 곳으로 빠져 나가려고 문이 달린 편의 땅을 손으로 파서 손톱이 다 불러나고 피투성이가 된 흔적들이 여실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영문면에 있는 진호에 가보니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 죽인 시체들이 겹겹이 쌓이어 있었습니다。그리고 또 신천 인민학교 소년단장 림형삼의 가족 13명은 그가 소년 단장으로 있었다고 하여 놈들에게 전부 학살 당하였습니다。악귀갈 놈은 그놈들은 그의 아버지의 두눈에 못을 박아 죽이였습니다。

림형삼 소년은 놈들에게 학살 당하기 30분전에 구월산에서 빨지산 투쟁을 하고 있는 자기 형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내였습니다。『나는 주검을 목전에 두고 원쑤의 눈을 피하여 이 글을 씁니다。

저는 그놈들 앞에 절대 굴하지 않고 죽습니다。나는 비록 원쑤의 손에 죽으나 형은 용감하게 싸워 저의 원쑤를 꼭 갚아 주시오。공산주의를 위한 형의 전투를 빌면서』라고 쓴 편

지를 림형삼 소년과 같이 감금되었던 동무가 가지고 탈주하여 그의 형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놈들은 63세되는 나의 삼촌을 오빠가 로동당원이라고 하여 두 눈을 떼고 팔 다리를 짜르고 하여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총을 발사하여 총살하였으며 저의 어머니는 굴속에 잡아넣고 불을 질러 소살하였습니다.

판사 검사님, 제 가슴에 있는 말을 다하면 한이 없으므로 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전경애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 증인 전경애에게 증인은 군민청 소년부장으로 어느때 까지 있었습니까.

증인 전경애— 금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적 강점시기에 신천군내에서 미군의 손에 학살 당한 소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여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답 대략 8,000여명 가량 학살 당하였는데 금흥면에서 300여명 원암리에서 200여명 신천면 경제리 뒷산에서 26명이 학살당한 것은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문 증인의 주소지인 달천리에서 적 강점시기에 놈들에게 학살당한 정형을 말하시오.

답 저의 동리 총인구는 4,500명 가량 되는데 놈들에게 피살된수는 2,700여명으로서 총인구의 약 60%가 학살 당하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전경애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전경애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사회소추자 신성순은 증인 전경애에게 미군들에게 학살 당

한 소년들 중에서 용감하게 투쟁한 모습들을 말하시오。라고 한바、

증인 전경애— 림형삼 소년단장은 놈들에게 학살 당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에게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용감성을 발휘하라고 고무 격려하는 편지까지 써 보내였으며 소년단원 리강현 소년은 주검의 환경속에서도 소년단 문건을 적의 손에 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땅에 파 묻은 사실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습니다。

문 신천군내에서 소년들이 제일 많이 학살당한 곳은 어디입니까。

답 신천면에서 제일 많이 학살 당하였는데 그 수는 500여명에 달합니다。

사회소추자는 재판장에게 증인 전경애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전경애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의 진술에 의의가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각각 의의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이상으로 제3일 공판 심리를 끝 마치고 래일 오전 10시에 증인 강형도의 심문부터 시작할 것을 선언하고 퇴정하다。

5월 28일 공판

재판장은 오전 10시 정각에 피소자들과 증인들을 착석시키고 그들의 출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4일 공판을 개정할것을 선언하고 아직 심리하지 않은 증인들은 별실로 물러가게 하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소자들에 대한 보충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 피소자 최한우에게 피소자는 구월산 딸찌산 『토벌』에 참가한 일은 없는가고 물은바、

피소자 최한우— 미군이 신천에 침입한 이후 1950년 11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수차에 걸쳐 미군과 같이 구월산 빨찌산 『토벌』에 참가하여 수많은 애국인민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한 일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구월산 빨찌산을 토벌한다는 명칭밑에서 학살한 인민들은 전부 얼마나 되는가。

답 학살한 인원수는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검사 안병진— 피소자 리두현에게 1950년 10월 18일 군당앞 구덩이에서 900여명의 인민들을 학살할때에 피소자는 그 주변 경비를 서고 있다가 굴속에서 살려고 기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총 5발을 발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고 묻은바、

피소자 리두현— 네 사실입니다。

문 그리고 또 그해 10월 23일 군당부 뒷 전호에서 330여명을 학살 할때에도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답 네。사실입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피소자들에 대한 보충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증인 강형도에 대한 심문

재판장— 증인 강형도에게 적 강점 시기에 본건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사실과 미군의 만행에 대하여 아는바를 진술하시오。

증인 강형도— 저는 신천군 피해 조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살인귀 미제의 만행으로 인하여 우리 신천군내에서 입은 피해정형을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95) 년 10월 17일 미제 침략 군대가 우리 신천군내에 침입하자

미군 지휘관 미군 중위 해리슨은 소위 치안을 유지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밑에 『치안유지기관』으로서 소위 경찰대 무장대 학살대 등의 살인단체들을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가장 야만적인 잔학한 방법으로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비참하게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1950년 10월 10일 현재 즉 미군이 침입하기 직전 신천군내의 주민수는 남자 69,159명 녀자 73,629명으로 총인구 142,788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남자 19,149명 녀자 16,234명 합계 35,383명이 미제 살인귀들의 피묻은 손에 학살 당하였습니다。이 학살 당한 사람들의 소속별을 보면 로동당원 3,669명 민주당원 72명 청우당원 59명 기독교신자 32명이였고 그밖에는 전부가 로동당원 모범농민 모범로동자 및 인민군대의 가족들이였으며 그의 대부분은 부녀자와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살 숫자들은 신천면과 온천면에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온천면에서 학살 당한 숫자를 보면 남자 4,589명 녀자 5,495명 학생 1,446명이였습니다。특히 온천면 운봉리에서는 남자 390명 녀자 480명 계 878명의 주민중 남자 290명 녀자 310명 총 600명이 학살 당하였는데 이는 실로 막대한 수가 학살된 것입니다。

이 부락에서 학살 당한 591명 중에는 5세 미만의 유아가 10여명 6세～15세의 소년 소녀가 155명 50세 이상되는 로인 80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 만국리에는 주민 891명중 773명이 학살되었는데 이 또한 총인구의 90%에 해당합니다。이 부락에 거주하던 리용기 김원복 한동은 등 12세대의 전 가족이 몰살 당하였는데 그 가족수는 60여명에 달합니다。

신천면에는 총인구 22,966명중 3,428명이 학살 당하였습니다。

신천면 무정리에는 남자 1,344명 녀자 1,523명 계 2,868명

중 남자 30명 녀자 60여명이 학살 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군과 그의 앞잡이들의 손에 의하여 피살된 개별적인 사실중 야수적인 잔혹한 방법에 의하여 처참하게 학살 당한 실례를 몇가지 들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옹진면 산전리에 거주하던 김재순의 동생 당년 13세에 나는 소년은 눈알을 뽑히우고 생매장 당하였으며 소년 단장 리병조는 뒷짐을 지우고 길가에 눕인 다음 그의 목에 말장을 가루 놓고 량편에서 널 뛰기를 하여 죽이였으며 온천면 추상리에 거주하는 열성농민 박기홍은 그의 형제들까지 31명이 한부락에서 살다가 전부 몰살 당하였습니다。그의 아들 당년 5세 나는 소년은 그 집 앞들에 있는 못에다가 발길로 차넣었으나 살려고 기어 나오는 것을 다시 말장으로 밀어 넣고 간 후 그 소년이 다시 기어 나와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 거리로 돌아다니는 것을 본 미군놈들은 「저놈의 자식이 또 살아 나왔다」고 고함을 치면서 그 즉석에서 삽으로 찔러 죽이 였습니다。그리고 모나지 광산 모범로동자 박지권은 놈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놈들에게 발각되였는데 미군놈들은 박지권을 보고 『이놈은 돼지 처럼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결박하여 놓고 식뢰린 칼로 그의 목을 따서 죽이였습니다。옹진면 유천리에 거주하던 모범 열성농민 김유백의 어머니 당년 89세 되는 귀먹어리 김응원 할머니는 자기 딸이 놈들에게 학살된것은 모르고 몇일간 굶어 있다가 『내딸이 어디갔느냐』고 하면서 거리로 찾아 다니는것을 본 미군놈들은 새끼로 그의 목을 매여 끌어다가 모래 밭에 산장을 하였습니다。
공화국의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여 오던 인민들은 인간백정 흡혈귀 미군의 피묻은 손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놈들에게 추호도 굴함이 없이 조국의 만세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당 공판정 피소자석에 나타난 수치스러운 범죄자 피

스자들이 미군 지휘관 해리슨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가담하였던 대량 학살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520여명 토동당 군당부 앞에서 900여명 원암리 2개 창고에서 910여명을 학살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습니다。

원암리 창고에 가 본즉 임신부가 많이 불에 타 죽었는데 터진 그의 배속에서는 태아의 머리가 비쭉히 내밀고 있는것도 있어 참아 눈을 뜨고는 볼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야수같은 원쑤놈들은 우리의 애국인민들을 학살함에 있어서 온갖 야만적 방법들을 다 썼던 것입니다。

북부면 석단교 다리위에 27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세우고 량편에서 밧줄을 걸어 당기어 강물에 쳐 넣어 죽인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면과 용문면 저수지에다가 수천명의 애국인민들을 가장 야만적 방법에 의하여 학살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동리 아이들은 이곳에 단니기 싫어하며 어른들도 낚시질하러 다니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놈들은 비단 인민에만 그와 같은 해를 끼친것이 아니라 수다한 인민들의 재산과 국가 재산을 탈탈 하 습니다。그중 가축만 하여도 소 1,323두 말 28두 돼지 2,610두를 탈탈하였으며 닭은 있는대로 모주리 잡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신천에서는 그 어느곳을 막론하고 닭우는 소리를 들을수 없는 형편입니다。

미군놈들이 우리 신천에 기어 들어와서 건전한 인간의 리성으로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지가지의 악착한 만행을 다하여 오다가 우리인민군대의 진격으로 인하여 놈들은 패주하게되자 원자탄의 위협으로 인민들을 위협 공갈하여 강제 이주를 시키다가 이주하는 인민들에게 기총 사격을 하여 사리원과 해주 사이를 인민들의 원한 어린 선혈로써 붉들여 놓았던 것입니다。

악귀같은 살인마 미군놈들은 우리 신천을 강점하였던 시기

에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총살 타살 압살하여 칼로 점점히 찢어 죽이며 생매장하여 불에 태워 죽이며 강물에 넣어 죽이며 눈알을 뽑아 죽이며 팔 다리를 짜르거나 사지를 찢어 죽이며 톱으로 세토막을 내여 죽이며 질식시켜 죽이며 굶겨 죽이며 얼궈 죽이는등 실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야수적 방법들에 의하여 학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야수적 방법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학살된 시체들은 아직까지도 가끔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강형도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증인 강형도에게 리복배의 동세되는 박사수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학살 당하였는지 증인은 아십니까。

증인 강형도— 리복배의 동세 박사수는 당년 22세되는 녀성인데 그의 국부에 말뚝을 박아 죽이였으며 당년 2세되는 그의 아들 민병규도 생매장을 하여 죽이였습니다。

문 증 제18호와 제15호를 증인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진이 지금 증인이 진술한바 박사수와 그의 아들 민병규가 학살 당한 장면이 틀림 없습니까。

답 네。 틀림 없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강형도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강형도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사회소추자들은 각각 심문할 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강형도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 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강형도의 진술에 대하여 의의 없는가를 물은바、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오수복에 대한 심문

재판장 증인 오수복에게 미군이 신천에 침입하였을때 본건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사실과 미군이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아는것을 진술하시오。 라고 한바、

증인 오수복- 나는 신천면 한장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1950년 10월 17일 미군놈들은 우리 신천에 침입하자 무엇보다도 먼저 무장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로골적으로 인민 학살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그달 19일 나도 어린 아이와 같이 놈들에게 체포되어 온천면 어룡 창고에 감금 당하여 있었습니다。

놈들의 발길에 채워 창고에 들어가 보니 그안에는 벌써 300여명의 애국인민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그 창고에감금되어있는 어린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울고 있었으나 야수 같은 원쑤 놈들은 끝끝내 물 한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우리 부락 로동당 세포위원장 부인은 고무신짝에다 자기 소변을 보아 어린 아이에게 먹이였더니 그 아이는 2일만에 죽었습니다。

원쑤놈들은 온천면 수매소장의 부인에게 그의 남편의 거처를 말하라고 온갖 야수적 고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의 국부에 사이다 병을 트려박으면서 고문하여 죽이는것을 보았습니다。

어느날 밤 11시경에 배성근이란 치안대 한놈이 불을 들고 창고 문앞에 와서 『나와 보라』고 큰 소리를 치기에 쳐다 보았더니 저를 보고 나오라고하여 그놈에게 끌리어 대충여관에 간즉 그곳에는 당년 19세 되는 한옥선 20세되는 리분명 17세 되는 유영숙등 3명의 녀학생들을 체포하여다 놓고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경비를 서고 있더니 새벽 2시경에 미군 세놈이 와서 그 녀학생들을 강간한후 끌고 나가서 총살하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으로 치안대에게 끌리어 다시 어룡 창고에 감금 당하여 있다가 5일만에 또 그놈의 치안대가 나오라고 하여

장백산각에 끌리어 가보니 거기에는 녀자 8명이 감금되어 있었는데 미군놈들이 와서 그 녀자들을 강간 릉욕한 다음 짜프차에 태워 데리고가서 전부 총살하였습니다。나는 그집 방안 유리창문에 방공장치한 가마니속에 숨어있다가 도주하였습니다。그후 들은바에 의하면 미군놈들은 이 장백산각에다 지하실까지 장치하고 노예유곽의 범위를 확장하여 70여명의 부녀자들 감금하여 두고 그들을 강간 릉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재 진공하자 나의 거주지였던 온천면에 돌아와 보니 나의 가족들과 친우들은 한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나는 나의 가족들을 찾기 위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전 어름창고에 같이 구금되어있던 녀성 한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나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가 나간 뒤에 그창고는 『유곽으로 되어 그안에 감금되였던 수많은 녀성들이 놈들에게 강간 릉욕 당하고 또 얼마나 비참하게 학살되었는지 참아 한입으로 다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흑흑 느껴 울었던것입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오수복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증인 오수복에게 증인은 어느때에 놈들에게 체포되였으며 또 대창여관에 끌리어 간것은 어느날이였습니까。

증인 오수복— 내가 놈들에게 체포된것은 1950년 10월 19일이고 대창여관에 끌리어 간것은 그달 24일 이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오수복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오수복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사회소추자 신성순→증인 오수복에게 증인의 가족은 몇명이나 학살 당하였습니까。

증인 오수복—저의 어머니는 모범 농민이라고 하여 어름창고 앞마당에서 놈들의 손에 비참하게 학살당하였으며 저의 동생 2명은 8,15해방관 방공호에서 생매장 당하여 학살되었습니다。

문 장백산각에다 70여명의 녀성들을 감금하고 강간한 다음 학살하였다는데 증인은 그들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학살 당하였는지 아십니까。

답 그 전부는 알수 없으나 한옥선과 리근영의 시체는 내가 직접 목격하였는데 그들은 총살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회소추자 신성순은 재판장에게 증인 오수복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오수복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오수복의 진술에 대하여 의의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각각 의의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오태신에 대한 심문

재판장 증인 오태신에게 적 강점시기에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 사실과 미군들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들에 대하여 아시는 바를 말하십시오。라고 한바、

증인 오태신— 1950년 10월17일 미군이 신천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을 때에 나는 그놈들이 조직한 소위 무장대에 가담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 미군과 본건 피소자 허필순이가 감행한 범죄적 만행에 대하여 내가 직접 본바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10월 17일 미군이 신천에 침입하자 미군 지휘관 미

군 중위 해리슨은 소위 경찰서장 신상규와 무장학생대장 허필순등 『간부』 들을 통하여 로동당원과 그의 가족들을 모주리 체포하여 학살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이명령은 미군과 그의 보조 부대인 치안대 무장경찰대 무장학생대에 의하여 즉시 집행에 착수하여 수백명의 로동당원과 그의 가족들을 체포하여다가 로동당 신천 군당 이층 회의실에 감금하였던 것입니다。18일 아침 해리슨과 신상규는 체포감금한 정형을 시찰하고 오후 6시경에 그들을 전부 학살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그리하여 우선 그들의 옷을 벗기고 결박하여 군당 앞 방공호 구뎅이에 쓸어넣기 시작 하였습니다。이때 인민들은 주검의 그 구뎅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것을 미군 30여명과 해리손이 지휘하는 무장학생대원들은 총창으로 위협하고 발길로 차면서 그들을 강제로 다 몰아넣은 다음 미군 병사놈들은 그들의 머리위에 휘발유 2도라무를 뿌리고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때 방공호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비통한 우름 소리와 함께 『김장군 만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너의 원쑤놈들의 운명은 멀지않다』 고하는 고함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리었습니다。그리고 그 무서운 불길속에서도 살겠다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 해리슨은 그들을 향하여 총을 란사하면서 무장학생대원들에게 그들을 총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주변경비를 서면서 이 비참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그리고 나는 그해 11월 중순경 500여명의 애국자들을 미군용트럭에 싣고 그위에 포장을 씨워가지고 남쪽으로 가는것을 보았습니다。그리고 또 남북면 저수지에다 1,60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차넣어 학살하는 비참한광경을 직접 목격 하였습니다。

미군놈들은 그들의 패주를 앞두고 소위 경찰서장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해리슨은 권총을 뽑아 책상위에다 놓고 『미군은 전략상 일시적으로 후퇴한다。우리가 후퇴하기전 빨갱이 종자를 모주리 처단하라』는 등 요지의 명령을 하였습

니다。그 명령은 각면에서 즉시 집행되어 원암리 두개 화약 창고에는 남자 200경 부녀자와 유아 700여명이 체포 구금당하여 있었는데 4—5일간이나 물 한방울도 먹이지 않아 어린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울고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들을 한번만 안아보게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12월 7일경에 그 창고들에 감금한 900여명의 애국인민들을 전부 학살하였는데 창고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놓은다음 수류탄을 무수히 던져 학살하였습니다。그때 본건 피소자 허필순과 기타 지도하는 무장학생들은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발사하였습니다。그후 나는 패주하는 적을 따라 해주까지 갔다가 2일만에 돌아와 자수하고 공화국의 관대정책의 혜택을 입어 지금 그 지방에서 살고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오태식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인병진—증인 오태식에게 증인은 언제부터 허필순을 아십니까。

증인 오태식—이전부터 압니다。

문 허필순이가 학교에서 출학 당한 원인을 아시면 말하시오。

답 허필순은 고급 중학교 2학년때에 출학 당하였는데 그 원인은 학생으로서 학교 규률을 지키지 않고 술을 잘 마시며 싸움을 좋아하여 신천 망난이로 유명하게 되어 출학 당하였습니다。

문 돈은 어디서 나서 술을 먹었는가요。

답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문 증인은 어느때에 자수하였습니까。

답 1950년 12월에 자수하였습니다。

문 미군이 신천을 강점하였을 당시 해리손이 무장대원들에게 연설한 내용을 말하시오。

답 10월 18일 아침 조회때에 200여명의 무장대원들이 군당 앞에 몰이었는데 해리손은 신상규 허필순등과 같이 나와서 자기의

통역을 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공산주의자와 투쟁한다。공산주의자를 전멸시켜야 당신들이 잘 살수 있다。그러니 공산주의자 그의 가족 및 그의 동정자들은 한놈도 남기지 말고 전부 체포하여 처단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해리손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그의 군대들과 그의 보조 부대인 각종 무장대들이 인민들을 대량학살할 때에 그들의 의복은 전부 벗긴 리유는 어디 있습니까。

답 그것은 후에 발굴하여도 그 학살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학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문 증인의 예심에서 증언한바에 의하면 피살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것은 지금 증인이 말한바와 같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누구의 시체인지 알아 볼수 없게하고 그 학살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 민주 일군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데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답 네。그것이 사실입니다。

문 증인은 그말을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답 해리손이가 신상규 허필순등과 가치 말하는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오태신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오태신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사회소추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오태신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변호인 지영대—1950년 10월 19일 군당 앞에서 수백명의 애국인민들을 학살할때에 증인은 참가하지 않었습니까고。묻은바、

증인 오태신—그때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지영대는 재판장에게 증인 오태실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증인 오태실에게 증인은 해리손을 아십니까。

증인 오태실—네。 압니다。

문 그는 어떻게 생기였습니까。

답 그는 키가 6척이나 되게 크고 얼굴은 길고 코가 높고 머리깔은 누르고 턱은 삐죽하게 나오고 수염이 좀 긴 사람입니다。

재판장—피소자 허필순에게 피소자 허필순은 증인 오태실을 아는가。

피소자 허필순— 네。 압니다。

문 증인 오태실이가 무장대에 가담하였던 사실이 있는가。

답 네。무장대에 가담 하였댔습니다。

문 증인 오태실의 증언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가。

답 네。 의의 없습니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오태실의 진술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모두가 의의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김혜숙에 대한 심문

재판장—증인 김혜숙에게 적 강점시기에 본건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사실과 미군이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아는대로 말하시오。

증인 김혜숙—저는 본래 장연에 거주하였는데 후퇴기에 저의 남편이 내무원으로 있다가 후퇴하기 때문에 어린아이2명을 데리고 신천면 본가집에 피난와 하루는 미군 5명이 와서 저를 보고 빨리 가자고 하기에 저의 어린 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고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그때 나는 어린 아이들은 집에두고 나혼자만 가려고 하니까 그놈들은 빨갱이는

씨종자를 다 없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어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고 하여 할수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놈들을 따라 그곳 민주선전실까지 갔읍니다。놈들은 민주선전실을 치안대실로 만들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 들어가라고 하여 들여다 보니 그곳에는 벌써 놈들에게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과 굶어서 기운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뿐이였읍니다。

그곳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밥이라고 3일에 한덩이씩 주는것도 눈에도 차지않도록 적게 주었읍니다。여러날 굶은 한 늙은 로인은 그렇게 주는 밥덩이를 받으려고 하다가 기운이 없어서 너머지는것을 보았읍니다。놈들은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을 하고 음식을 먹이지 않고 있다가 끌고 나가서는 불에 태워 죽이고는 하였읍니다。놈들은 저를 보고 『이 녀자의 남편을 잡기 위해서는 그의 아이들부터 죽여야한다』고 하면서 당년 겨우 6세와 4세밖에 안되는 어린 저의 두아이들이 나의 품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우는 것을 개같은 그 놈들은 폭력으로 끌고 가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태워 죽이였읍니다。 악마같은 그 놈들은 천진란만한 어린것들을 그렇게도 비참하게 죽이고 와서는 『그 아이들이 불에 타 죽는 꼴이 참 재미 있더라』고 개소리까지 짖어댔읍니다。(이때 증인은 분노의 원한의 울음을 운다。) 무장대원 홍순길이란 놈은 남부면 농맹위원장을 불러 내어다가 쇠줄로 그의 코를 꿰고 그 쇠줄의 한 끝을 자기 어깨에 메고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돌아와 내가 감금되어 있던 창고안에 있는 기둥에다 그의 코를 매여 달고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니 그 농맹위원장은 『나는 오늘 악독한 너의 놈들의 손에 죽으나 나의 뒤에는 수많은 로동당원이 있으며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다。나의 조국과 나의 동지들은 오늘 나의 원쑤를 반드시 갚아줄것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웨치니 다시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전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태워 죽이는것

을 직접 보았습니다。 리위원의 부인 박병숙은 놈들에게 너무도 혹독한 매를 맞고 맥없이 있다가 『내가 죽더라도 놈들에 대한 원쑤를 갚고야 말것이다』 고 하면서 창고에서 빠져나가다가 놈들에게 발각되였는데 원쑤놈들은 박병숙 부인의 옷을 전부 벗겨 의자에다 결박하고 무수히 란타하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장작을 놓고 다시 휘발유를 친다음 그 부인을 그 위에 올려 앉히우고 불을 질러 산사람을 화장하는 비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김혜숙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명진—증인 김혜숙에게 증인은 남부면 민주선전실에 며칠간이나 감금 당하여 있었습니까。

증인 김혜숙— 15일간 감금 당하여 있었습니다。

문 그 동안 그 선전실에서 인민들이 학살 당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 자세한 숫자는 알수 없으나 매일 새벽 20--30명씩 끌고 나가서 불에 태워 죽이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김혜숙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김혜숙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사회소추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김혜숙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증인 김혜숙에게 증인은 어떻게 되어 그 창고에서 학살을 면하게 되였습니까。

증인 김혜숙—그놈들이 청사를 이전하니 며칠간 집에 가있다가 오라고 하여 집에 갔다가 인민군대가 다시 진격하여 나온다는 말을 듣고 놈들의 눈을 피하여 장연 시가에 가있였

습니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김혜숙의 증언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각각 의의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김찬오에 대한 심문

재판장—증인 김찬오에게 적강점시기에 본건 피소자들과 미군이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아시는 바를 말하시오.

증인 김찬오—1950년 10월 17일 미군 제24사단 17 보병 련대가 재령에 침입하였는데 나는 집아 재령에 있었고 또 영어를 약간 알기때문에 그들의 통역으로 있게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통역으로 있게 된것은 놈들은 재령에 침입한 즉시토 부녀들을 강간하려 하므로 그때 저는 영어로써 그 옳치 않음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리하였더니 2일 후에 그들은 저를 보고 자기들의 부대에 와서 통역으로 있으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그때부터 그들의 통역으로 있게 되였습니다.

놈들은 재령에 침입하여 자기들은『북한의 여러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들어왔다』고 하면서 사상이 락후한 반동청년 약 70여명을 규합하여 소위 경찰서 치안대 한청등의 반동 살인단체들을 조직하고 수많은 로동당원과 그의 가족들을 체포하여 해주로 이송한다는 구실밑에 군용 트럭에 실어다 10—15리 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는 전호속에 몰아넣고 총살하였으며 또 인민들의 귀중품을 강탈하는것을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흑인 병사들은 통조림 통을 들고 다니면서 부녀자들을 붙잡고 이것을 줄것이니 당신의 정조를 제공하라고 강요하다가 듣지않으면 폭력으로 강간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놈들은 인민들에게 자기들을 유·엔군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직한 각종 반동 살인단체의 소위 간부들은 전부가 다 기독교 신자들이였습니다。

미군들은 이와같이 살인 강간 략탈을 감행하면서도 목사 또는 신부들로 조직된 챠프린이라는 특수부대를 종군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인민들에게 성경책을 배포하면서 『우리는 십자군과 같은 구세군이다』 우리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악선전을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가 가장 인도적인 것처럼 악선전을 하였던것입니다。

저의 처도 그놈들의 손에 학살 당하였습니다。 나는 그 즉시로 놈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미군통역을 그만 두고 집에 돌아와 있다가 공화국의 관대한 정책에 의하여 자수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김찬오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증인 김찬오에게 증인은 미군 어느부서의 통역으로 있었습니까。

증인 김찬오—민사부 통역으로 있였습니다。

문 민사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 부서였습니까。

답 미군 주둔 부대와 주민들간의 중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문 민사부와 각종 괴뢰기관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답 각종 괴뢰기관들이 미군에게서 어떤 명령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민사부를 거쳐야 합니다。

문 증인이 미군 통역으로 있은것은 어느때입니까。

답 1950년 11월 중순경입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김찬오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김찬오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사회소추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김찬오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 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김찬오의 진술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리윤하에 대한 심문

재판장—증인 리윤하에게 적강점시기에 본건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사실과 미군이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아시는바를 말하시오.

증인 리윤하—1950년 10월 17일 미군 3명이 국군 2명을 데리고 저의 부락에 와서 처음에는 세포위원장인 저의 오빠를 체포하더니 그 다음에는 녀맹위원장인 저의 형을 체포하여 갔습니다. 놈들은 저의 오빠와 형을 보고 이것이 진짜 빨갱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깎고 얼굴에 광대를 그리고 옷을 다 벗긴 다음 당증을 목에다 걸고 등에 공화국기를 지워가지고 저의 형은 3개 부락에 끌고 다니다가 『아직도 모스크바에 가자면 멀터이니 할말이 있으면 하고 가자』고 하니 저의 오빠와 언니는 『백번 죽어도 너의 놈들에게 굴하지 못하겠다. 죽일라면 어서 죽여라. 나의 뒤에는 나의 동지 로동당원들이 있다. 나의 원쑤는 반드시 갚을것이다』라고 말한즉 놈들은 오빠와 언니의 사지를 찢어 죽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놈들은 무엇이 부족한지 임신 10개월되는 죽은 저의 언니의 배를 칼로 가르는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음 원쑤놈들은 저의 동생의 가족 8명과 저의 아이 4명도 끌어다가 혹독한 고문끝에 생매장을 하여 학살하였습니다. 당년 6세되는 저의 아이가 생매장하는 구뎅으로부터 기어 나오면서 당신들이 하라는대로 불도 때고 물도 길어올터이니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것을 그 개같은 놈들은 총창으로 찔러 구뎅이에 쳐넣었습니다.

박경한의 가족은 다죽고 18세되는 그의 딸은 온천에 끌리

어 가서 미군놈에게 강간 당하는 과정에 놈들의 불을 물어 뜯고 그자리에서 총살 당하였다고 합니다。귀축같은 미군놈들의 손에 저의 가족과 친척은 47명이나 학살 당하고 이제 남은 것은 9명밖에 없습니다。인민군대가 재진격하여 나는 다음에 가족과 친척들의 시체를 찾아 묻었는데 어떻게도 심한 고문을 당하였고 또 잔악한 방법으로 죽이였든지 참아 눈을 뜨고서는 볼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우리 로동당원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는 사람으로 학살된 수는 저의 부락에서 실로 120여명에 달합니다。지금 저의 부락을 과부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놈들에게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심한 매를 맞고 정신을 잃고 있었으므로 그놈들은 아주 죽은 줄로만 알고 버리고 간후 요행 회생하여 도주하였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재판장 참심원 여러분。나는 오늘 당 공판정에 앉아 있는 피소자 저놈들을 제발 죽여 줄것을 원합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리운하에 대한 심문을 허하다。

검사 안명진— 증인 리운하에게 증인의 가족과 친척으로서 놈들에게 학살 당한것이 47명이라고 하였는데 그중 증인의 가족은 몇명입니까。

증인 리운하— 어린 아이 4명뿐입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리운하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리운하에 대한 심문을 허하다。

사회소추자 신성순— 증인에게 놈들에게 무엇으로써 맞았

습니까。

증인 리윤하— 놈들은 처음에는 몽둥이로 때리더니 나중에는 쇠끝을 봉에 달궈가지고 등을 지지였 습니다。

문 끝에 달군 쇠끝에 지지운 상처가 있습니까。

답 네。있습니다.

(이때 사회소추자 신성순은 증인에게 그 상처를 보이라고 한바 증인은 그에게 상처를 보인다)

사회소추자 신성순은 재판장에게 증인 리윤하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리윤하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 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의 진술에 의의가 없는가를 묻은바、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15분간 휴회할것을 선언하고 12시 45분에 휘정하다。

공판은 오후 1시에 다시 회복되다。

증인 배면식에 대한 심문

재판장—증인 배면식에게 적강점시기에 본건 피소자들과 미군들이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아는대로 말하시오。

증인 배면식—1950년 10월 17일 우리 신천에 미군이 침입하였는데 그놈들은 즉시 소위 무장대 경찰대등 반동 살인단체를 조직하고 인민학살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의 언니도 그놈들의 손에 학살 당하였습니다。그때 저는 놈들의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소위 군청에서 총무사업을 하였습니다。그때 허필순이가 저를 보고 하는말이 미군을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한다고 하면서 군당 앞방공호에서 900여명의 로동당원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달고 미군놈들은 소위 군청에 와서 직원심사를 한다고 하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가 없다。예수를 믿지 않으면 앞으로 취직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배면식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증인 배면식에게 증인은 피소자 허필순을 잘 아십니까。

증인 배면식— 네。잘 압니다。

문 적 강점시기에 피소자 허필순이가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아는것이 있으면 상세히 말하십시오。

답 피소자 허필순은 무장 학생대장으로서 10월 하순경 그의 대원들과 함께 수대의 트럭에다 애국인민 150여명을 싣어 용문면쪽으로 가는것을 보았는데 그후에 들은즉 그들은 전부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배면식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배면식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사회소추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배면식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 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증인 배면식에게 미군들은 예수를 믿지않으면 로동당원과 같이 취급하고 죽인다고 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배면식-- 네。사실입니다。

문 피소자 허필순은 부락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 그는 저와 동창생인데 학생 시대부터 품행이 나빴으며 그후

에도 역시 그러하였기 때문에 동리 사람들은 그를 신천 망난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배면식의 진술에 대하여 의의 없는가를 물은바、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김현순에 대한 심문

재판장— 증인 김현순에게 적강점시기에 본건 피소자들과 미군들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에 대하여 아는바를 말하시오。

증인 김현순—1950년 10월 17일 저의 부락에도 미군이 침입하여 무장 학생대를 조직하여 우리학생들까지도 붙잡아다가 온갖 혹독한 고문을 다하였던것입니다。나도 여천 중학교 소년단 간부인 리방조 리산옥 김순녀등과 같이 놈들에게 끌리어 갔습니다。미군놈들은 우리들을 보고 너의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 사업도 잘한 열성 분자들이라고 하면서 거꾸로 달아 매고 고추가루물을 먹이며 몽둥이로 심한 매를 때렸습니다。그때 나는 놈들의 손에 그와 같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정신을 잃고 넘어져 있는데 누가 와서 일으켜주기에 정신을 차려보니 원쑤놈들은 다 도망가고 인민군대동무들이 와 있었습니다。그리하여 나는 너무도 기뻔 마음에 일어 서려고 하였습니다。하도 매를 많이 맞은 관계로 기운이 없어서 일어 설수가 없었습니다。나는 그때 우리 소년단장 리병조의 죽은 시체를 보았는데 놈들은 그의 목에 말창을 가로놓고 량편에 올라서서 눌러 죽이였는데 그의 눈 코 입 귀들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민군대 동무들과 같이 리병조동무의 시체를 매장하고 그 동무들과 같이 구월산에 들어가서 인민사단에 있으면서 그 사단에서 설치한 학교에 다니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다시 들어 온 다음 집에가서 보니 우리집

가족 16명중 나 하나만 남고는 전부 놈들에게 학살당하였읍니다. 가족들의 시체를 전부 찾아서 매장하였는데 70세되는 저의 조부와 65세되는 조모는 놈들에게 철사로 뒷짐을 지우고 큰 밧줄로 입에 자갈을 물리고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총살되였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생매장 당하였고 12세되는 동생은 소년단 분단장이라는 리유로 가탁교치로 눈을 뽑히어 죽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시체를 매장할때에 새 보선을 신기려고 신었던 보선을 벗기니 그 안에 어머니의 로동당증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당증을 얼마나 귀중해 하였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였고 앞으로 나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 충실한 로동당원이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였던것입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김현춘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증인 김현춘에게 증인의 가족 16명중 15명이 놈들에게 학살 당하고 증인만 살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김현춘—네. 사실입니다.

문 증인의 친척으로서는 얼마나 학살 당하였습니까.

답 미군놈들의 손에 저의 외삼촌의 식구 11명이 학살되였고 저의 고모는 어린 아이를 업은채 생매장 당하였으며 이모의 식구 9명도 생매장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쑤놈들은 저의 5촌숙부는 리위원장으로 있었다고 그의 아들 6세되는 어린 아이의 사지를 찢어 죽이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김현춘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김현춘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사회소추자들은 각각 심문할 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김현춘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

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김현춘의 진술에 의의가 없는가를 물은바、피소자들은 각각 의의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김순모에 대한 심문

재판장― 증인 김순모에게 신천에 미군이 일시적으로 침입하였을 때에 본건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 사실과 미군이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아는바를 말하시오。

증인 김순모― 1950년 10월 17일 미군놈들이 우리 신천에 기어 들어오자 그놈들은 로동당원과 그의 가족은 물론 그의 7―8촌 되는 친척까지도 모주리 학살한다는 말이 들리였습니다。저의 집도 형이 로동당원이며 또 척서리 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있었기때문에 놈들에게 학살 당할까 두려워서 가족들이 밖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인민군대가 다시 진격하여 나온다는 말을 듣고 다소 밖에 출입을 하던차 12월 3일 무장 경찰대 3명에게 체포되어 처음에는 척서리 인민위원회 청사에 갔다가 소위 경찰서 본부로 이동되였는데 거기에는 저를 가르치던 선생을 비롯하여 애국인민들이 벌써 수백명이 체포되어 있었습니다。그놈들은 우리들을 신작로에 일렬로 세우고 여기에서 도주하는자는 총살한다고 하면서 원암리까지 몰아다가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창고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모두 들어가지 않으니까 수많은 무장대원놈들은 일제히 총을 발사하여 할 수 없이 들어갔던 것입니다。그 창고에 밀려 들어간즉 그 안에 감금된 어린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를 부르면서 먹을것을 달라고 우는 울음 소리가 요란스러웠습니다。놈들은 우리를 창고에 몰아넣은 다음 『지금 미군이 구월산에 있는 빨찌산들을 토벌하는데 당신들이 거기 빨찌산과 련락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와같이 감금하니 그 토벌이 끝날때

까지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2 3일후에 놈들은 우리를 모두 밖으로 나오라고하여 나가게 되였는데 어떤 로인들은 여러날 굶은 까닭에 기운이 없어서 채 나오지 못하고 쓸어지고 말았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불러 내여다가 어른들과 아이들을 구분하여 아이들은 전부 남쪽 창고로 보내였습니다。 그때 나는 남쪽창고로 끌려가게 되였는데 그 기회를 리용하여 어떻게 하든지 도주할 결심을 하고 일부러 신짝을 구멍이에다 집어 넣고 그것을 고쳐어 내는척 하다가 전호속으로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김순모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 증인의 친척으로서 놈들에게 학살 당한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증인 김순모— 6명 입니다。

문 증인이 창고에 감금되였을때에 거기 나간 무장대원들 중에 본건 피소자들도 있었습니까。

답 저는 처음부터 도주할 계획을 하고 있였기때문에 그놈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숙으리고 있였으므로 잘 알수 없읍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김순모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김순모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사회소추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김순모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김순모의 진술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각각 의의 없다고 대답하다。

증인 리복배에 대한 심문

재판장—증인 리복배에게 신천에 미군이 일시적으로 점입

하였을 당시 본건 피소자들이 감행한 범죄사실과 미군이 감행한 만행에 대하여 아는바를 말하시오。

증인 리복배— 1950년 10월 17일 미군놈들이 우리 신천에 기어 들어와서 저의 남편이 세포위원장을 하다가 인민군대에 나갔다고 하여 저의 가족 10명을 전부 학살하였습니다。저의 어머니는 놈들에게 너무도 혹심한 매를 맞고 나중에는 그 매를 이기지 못하여 그만 죽고 말았고 21세되는 저의 동서는 국부에 말뚝을 박아 죽인다음 저에게도 남편 있는곳을 대라고 하면서 참을수 없는 가혹한 고문을 하다가 저의 남편을 잡아 그와함께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실로서 신천면에 거주하는 60세 가량되는 로인을 열성 농민이라고 하여 시내로 끌고 다니다가 총살하였으며 그밖에 저의 부락에서 수많은 로동당원들의 부인을 강간한 다음 총살하였던것입니다。이와같이 하여 우리 부락에서는 870여명의 주민중 580여명이나 놈들에게 학살당하였습니다。나도 그후 놈들에게 끌리워 학살장으로 나가다가 때 마침 어두운 밤이였으므로 놈들의 눈을 피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인 리복배에 대한 심문을 권하다。

검사 안병진— 증인의 가족은 몇명이 학살되였습니까。

증인 리복배— 가족 11명중 10명이 미군 놈들과 무장대원들의 손에 학살 당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증인 리복배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고 고하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들에게 증인 리복배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사회소추자들은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증인 리복배에 대한 심문을 권한바、변호인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증인 리복배의 증언에 대하여 의의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대하여 아직 심문하지 않은 증인으로서 오용진 최관익 김순오가 있는데 이 증인들이 진술할 증언은 이미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과 별다른것이 없으며 또 당 공판정에서 이미 진술한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서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해명되였으므로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은 생략하려고 하는바 이에 의의가 없는가를 물은즉 검사와 사회소추자들은 증인 김순오 만을 심문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변호인들은 재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참심원들과 합의한후 이미 심문한 증인들의 증언에서 본건 피소자들과 미군들이 감행한 만행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 되였으므로 증인 김순오에 대한 심문도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와 사회소추자들의 제의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다。

재판장은 증인 오용진 최관익 김순오들을 입정시키고 그들에 대한 증인심문은 생략한다고 통고하다。

재판장은 심문이 끝난 증인들에게 이미 진술한 증언중 누락된 것이나 보충할 것이 있으면 다시 진술하라고 하다。

증인 전경애의 보충 증언

증인 전경애—저는 전 진술에서 놈들의 만행에 대하여 대략적인 것만을 말씀드리였으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증언하려 합니다。

미제 원쑤놈들이 우리 신천에 침입하여 있는 동안 인민들의 생활은 참으로 형언할수 없을 정도로 비참 하였던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가정에서는 참을수 없는 극빈한 생활을 계속하여 오다가 위대한 쏘련군대의 은혜로써 8.15해방을 맞이한후 김일성 장군님의 올바른 시책에 의하여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토지를 분여 받아가지고 그후부터는 참으로 행복한 생

활을 하여왔습니다。

야수같은 미군놈들이 우리 신천에 침입하자 행복한 저의 가정은 일대불행의 환경에 빠지게 되였던것입니다。놈들에게 잡히어 감금당한 아버지와 저는 주검을 면하기 위하여 같이 뛰다가 저의 아버지는 놈들에게 다시 체포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저만 혼자 9월산 빨찌산을 찾아 가면서 아버지 있는 곳을 도리켜 본즉 놈들은 도망하였다고하여 칼로 저의 아버지의 다리살을 베여 내고 량팔을 짜르는등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비참하게 학살하였던 것입니다。그후 우리 인민군대가 다시 진격하여 나왔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저의 집은 불에 타서 잿데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 장례를 하며하였으나 어떻게할 도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로동당 신천군당부에서 모든것을 보장하여 주어 아버지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다음 저의 어머니의 시체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헤매어 다니다가 어머니는 군당 앞 방공호에서 놈들에게 생매장 당하여 비참하게 학살당하였다는 것을 동무들이 말하므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놈들이 우리 강토에 온 목적이 조선 인민들을 학살하며 그들의 재산을 강탈 파괴하기 위한데에 있다는 것을 저는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언니가 모나지광산에서 놈들에게 학살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 본즉 언니는 무엇으로 맞았는지 골이 터져죽었고 그의 등에 엎인 어린 아이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쥐고 죽였던 것입니다。나는 그길로 소년들의 학살 정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면 운봉리에 갔던바 그곳 련못가에는 젊은 부인 20여명이 바가지로 물을 푸면서 울고 있였습니다。그들이 물을 푸며 우는 원인을 물은즉 그들은 대답하기를 미군놈들이 이 련못에다 80여명의 어린이들을 거꾸로 집어 넣어 죽이였기 때문에 그 시체를 찾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온천에서 29명의 소년을 비롯하여 삼척에서도 수많은 소년들을 모래에다 파묻어 죽인 사실도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놈들은 우리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으며 또 그 학살 방법도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하였던 것입니다。

본공판정에 출정한 우말제 증인의 아들은 우리 면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있었다고하여 그의 신체를 칼로 토막 토막 잘라 죽이였던 것입니다。 그후 매장하려고 잘라 던진 신체의 부분들을 찾아 보았으나 결국다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리면 수원리에 거주하던 양금순 녀성은 그가 로동당원이라고 하여 전가족을 학살하고 양금순녀성은 밤나무에 매여 달고 국부에 말뚝을 박은 다음 불에 태워 죽이였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 자들에게 대하여 증인들에게 보충 심문할것이 없는가를 물은바、 소송관계자들은 각각 심문할것이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제4일 공판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명29일 오전 10시 정각에 제5일 공판을 개정할것을 선언하고 휘정하다。

5월 29일 공판

재판장은 오전 10시 정각에 피소자들과 증인들을 입정시키고 제5일 공판을 개정할것을 선언하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피소자들과 증인들에게 보충심문할 것을 권한바、 각각 없다고 하다。

재판장은 피소자들에게 지난 4일간의 공판심리에서 피소자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에서 의심되는 것이라든가 보충할것이 없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들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참심원들과 합의한후 이것으로써 사실 심리를 끝마치고 지금부터 소추자들의 론고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을것을 선언하다。

사회소추자의 발언 및 국가 검사의 론고

신천군 인민을 대표하여 사회소추자 신성순의 발언

최고재판소 판사 참심원 동무들!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미제 침략군대의 지휘자들이 직접 참가 하수하였고 또는 그자들의 직접 조직 지도아래에서 감행된 인간으로서 상상할수 없으리만큼 잔악한 범행에 대하여 나는 직접 피해자인 황해도 신천군 인민을 대표하여 그자들의 악독한 범죄적 만행을 폭로 규탄하려는 바입니다。

미제국주의 자들은 세계제패의 망상 아래에서 과거 근 일세기 동안에 걸쳐 우리 조선을 극동에서 그자들의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흉계를 썼으며 조선을 일제가 강점하는데 까지 야비하게 솔선 방조하였던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반세기동안에 걸쳐 신음하던 일본제국주의 통치기반으로 부터 해방된 우리 조선은 인위적으로 3.8도선을 한계로하여 남반부 지역에 미국군대가 진주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령도자이신 김일성수상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미제는 최초부터 『우리조국을 식민지화하며 우리인민을 노예로 만들며 우리 조국강토를 극동에서의 침략의 기지로 전화시킬데 대한 이미 준비된 자기의 계획을 시종일관하게 실시』한 때문에 조선 인민의 반역자인 리승만 도당으로 하여금 놈들의 앞잡이로써 괴뢰정부를 조작하여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 하려고 기도하였으며 선량한 우리 인민들을 무참하게 탄압 학살하는 중세기적 암흑상을 나타내였습니다。

영명하신 우리의 수령 김일성 장군께서 일찌기 우리에게 교시하신바와 같이 『해방직후에 전조선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를 공고히 하며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직맹 농맹 민청 녀맹등 민주주의 사회단체들을 조직 강화할것이였으며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일제와 반역자들의 소유이였던 공장 제조소 철도 광산 은행등을 국유화 하며 파괴된 공장 기업소를 급속히 복구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것이였으며 국가운영에 필요한 간부들을 양성하며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립하고 학교기관들을 확대 강화 신설하여야할것』 등에 대하여 우리들이 창조적 로력과 애국적 투쟁을 전개하였던 결과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과 후손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창조적 사업들은 오로지 위대한 쏘베트군대가 주둔하였던 북반부 지역에서만 실천되었으며 나아가서는 동족상잔의 참화를 피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하려는 전체인민들의 절박한 지망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갖은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나 미제국주의 자들은 리승만 역도들을 몰아 3.8선 접경에서 수다한 무장충돌사건을 야기시킨 나머지 놈들의 일상 기도하던 면밀한 계획아래 드디어 조국강토에 전쟁을 불질러 놓았습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평화를 교란시키며 약소국가들과 약소민족들을 민족적 계급적 내지 종교적 알력까지 조성시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 놈들의 상투적 수단인 것입니다。

리승만도당이 1950년 여름 놈들의 최초 예상과는 엄청나게 미국식 신예무기로 장비한 강력한 군대라고 호통치던 소위 "국방군"은 영웅적 인민군대의 물밀듯한 진격에 의하여 섬멸적 타격을 받고 우리인민군대가 전쟁이 개시된지 불과 수일에 우리 수도 서울을 해방시키고 계속하여 락동강 저쪽으로 적들을 추격하여 조선 전역의 태반을 해방시킴에 당황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 모든 법규와 조약들을 무시하고 놈들의 륙 해 공군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하였습니다。

놈들은 이 전쟁과정에서 일편의 인간성을 가졌다면 감히 념두에도 못낼 헤아릴 수 없는 갖은 악독한 방법으로써 야수적 만행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로운 농촌에 대한 무차별 폭격 비무장도시의 파괴 평화적 주민들의 대량적 학살 고문 능욕 문화적 유물 학교 교회당 및 공공재산 개인재산에 대한 공공연한 파괴 략탈등 행위로써 공화국 전역이 폐허로 된것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그 잔인한 성격에 있어서나 진실로 전대미문의 것일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이미 지난해 5월중에 래조하였던 국제민주녀성련맹의 조사단과 금년 3월중에 국제민주 법률가협회에서 파견한 조사단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와 그의 주구들의 야수적만행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증명되어 백일하에 폭로되어 전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분격과 굳센 항의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이제 놈들이 우리 신천군을 일시 강점하면서 그자들이 활동한 바를 개괄적으로 본다면、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의 앞잡이 괴뢰군들이 1950년 10월 17일 우리 신천군에 들어오자 미군 사령관이였던 해리슨 중위는 일부 락후한 무뢰한들인 당 공판정에서 심판을 받는 허필순 이하 피소자들과 같은 자들을 규합하여 소위 경찰대 무장대 치안대등의 반동단체를 조직하여 놈들의 심부름군을 만든후 다음날인 1950년 10월 18일에는 미군중위 해리슨은 회의를 열고 나의 명령은 한개의 『법』이니 이를 위반하는 자는 총살한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위협에서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할것이며 일체 그의 동정자들을 공산주의 자들과 동일하게 처단한다고 선포하고 곧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놈들은 신천군내에서 모든 애국자들과 인민군대 후방가족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복무하는자와 그의 가족들을 체포할것을 자기 부하 군인과 무장대원들에게 명령하여 수다한 인민들을 대량 학살하였으며 갖은 잔인한 방법으로써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살륙하였습니다。이것은 놈들이 우리 조선인민을 멸족하려는 일관된

계획적인 행동임을 넉넉히 알수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오늘 심판을 받는 미제국주의 침략군의 중위인 해리손의 종으로 보잘것 없는 반역도배들인 허필순 최한우 등의 말에 의하여 확증된바와 같이 신천군내에서 놈들에게 학살된 애국적 인민들은 남자 1만9천여명 녀자 1만6천여명 합계 3만 5천여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놈들의 잔인성을 여실히 나타낸 것으로서 놈들은 사람을 대량적으로 생매장 하였으며 녀자들을 릉욕한후 형언치못할 야비한 방법으로 죽였고 휘발유로 태워죽이며 물에 집어넣으며 사람의 코를 꿰어 끌고 다니다가 죽였으며 나무에 달아매여 죽이고 오관과 사지를 각을 떠서 죽이고 아이들을 목을 누르고 배를 터쳐서 죽이는등 실로 형언치 못할 짓을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식인종과 그 주구들이 우리조선인민을 한개의 렬등동물로서 각양 야만적 방법으로써 죽이는데 한개 시험체로 한것입니다。

동무들!

우리 애국자들이 최후까지 지킨 그 숭고한 품성과 혁명적 기개를 다시금 련상하면서 나는 이제 몸서리 치는 악독한 형상의 몇가지만 말하여 보려합니다。

신천군을 강점하고 있던 미군 사령관 해리손 중위라는 놈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저 허필순과 같은 인간 말종들에게 1950년 10월 18일 명령하여 300여명의 아이들과 심지어는 임신부 까지 합하여 9백여명을 소위 빨갱이 가족 또는 공화국의 열성분자 라는 구실에서 모두 옷을 벗기어 묶고 로동당 신천군당부 앞마당 구뎅이에 집어 넣고 휘발유를 부어 태워죽일때 그들의 아비 규환하는 처참한 광경을 들어 알았을때 불붙는 비분과 분노를 억제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불바다 가운데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눈을 뜨고 참아 볼수없는 이 참상을 가증한 웃음을 띄우면서 미군장교놈들은 놈들의 부하와 무뢰한인 피소자와 같은 놈들에게 명령하여

총으로 쏘아 다시금 불구덩이로 떨어뜨리게 하였습니다。

1950년 10월 21일에는 미군 화물자동차 다섯대로써 사람을 가뜩 실어 남부저수지에 집어넣어 학살 하였으며 그 부근 로동당 면당부 방공호와 전호등에는 수백명의 남녀로약들을 화장 총살등으로써 죽이는등 저수지에 수십차에 걸쳐 쓸어넣어 학살한 수를 합하면 실로 2,093명에 달하는 사실이 판명 되였습니다。

또하나의 대량학살한 사실을 든다면 11월중순경 신천군내에 있는 9월산에 우리인민유격대가 웅거하고 있다는데서 미군 중위 해리손은 소위 토벌대를 보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촌락에 들어 미군 장교놈들은 모든 주민을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부녀자와 아동들을 포함한 약 5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끌고 오다가 미국병정들의 기관총에 의하여 학살 하고만 사실을 들수 있습니다。

1950년 10월 20일에는 520여명의 애국자들을 처단할 방법에 대하여 해리손은 여러가지로 토의한후 밤에 비밀적으로 남녀를 물론하고 모주리 발가벗긴 후 군내무서 방공호에 삼떼같이 몰아 넣음으로써 위선 질식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중에서도 공화국 만세 와 장엄한 김장군 노래의 합창이 우렁차게 흘러 나오는데에 방공호 출입구를 널판과 흙으로 묻어버리고 미리 미군에 의하여 장치된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 죽였음으로써 지금도 그 방공호에서 악취와 흘러 나오는 물에는 기름이 뜨고 있는 현상임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놈들이 우리 인민군대와 중국 인민지원부대의 진격으로 패주하기 직전인 1950년 12월 3일에 해리손은 경찰서장실에 회의를 소집하고 미군장교와 괴뢰군 장교들에게 연설하기를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미군과 같이 남으로 가게 하여야 한다。누구든지 여기에 머물어 있는 자는 사실상 적으로 취급될것이며 그들에게는 원자탄이 사용될것이다。빨갱이의 모든 추종자들은 섬멸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였으며 조선인민군의 모든 가족들과 전체 공무원들의 가족은 빨갱이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는바 이는 실지로 미군에 의하여 실행되었으며 놈들에게 속아서 일부 남으로 따라가

는 무고한 주민들에게는 비행기로써 기총소사하여 학살하였습니다.

해리손의 이 발광적인 명령에 따라 미군과 같이 일부 반동무리한들은 무고한 인민들을 모주리 쓸어잡았는데 즉,

1950년 12월 3일부터 잡기 시작하여 900여명을 신천군 원암리 지구에 있는 두개의 창고에다가 200여명의 유아들을 따로 어머니를 떼여 가두고 굶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아우성은 귀를 기우려 들을수 없었고 아이들은 먹기를 찾기에 애를 써서 마루창을 허비어 손끝은 전부 피가졌고 최후의 악을 써서 문앞으로 기어나온 관계로서 문앞과 창고안 사방모에는 아이들이 첩첩히 쌓여서 죽은 현상과 12월 7일에는 다른 창고에 감금된 사람들의 머리위에 조짚을 펴고 휘발유를 뿌린후 불을 걸렀고 그것도 부족하여 창고안에 수류탄을 던저서 학살하였는데 그후 발로된바에 의하여 처참한 광경은 사람의 뜬 눈으로는 참아 보기 어려운 광경이였습니다.

신천군내에서 35,000여명이라는 사람을 살륙한것이 얼마나 미국놈들의 멸족적인 계획인가를 증명하는 한가지 례로서 신천군 구흥면 단궁리 총 인구가 891명 있던중에서 학살된수가 773명으로 이는 실로 87%에 해당하는 전멸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량적으로 학살한 반면 그 잔인성을 발휘한데있어 고금에 례가 없는 개별적 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950년 10월말경 신천군 산천면 경지리에서 어머니들은 먼저 죽이고 어린아이들만 29명을 그 면인민위원회 뒷산 전호에다가 정렬하여 들여놓고 산장을 하였는데 후에 발굴하여본 결과 삽으로 흙을 묻을적에 우는 아이들의 입에 흙이 들어가고 숨이 막히므로 애닯게 두손으로 제머리를 뜯다가 죽은 현상이 완연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리면 월정인민학교 교장선생은 1950년 10월 18일 미국놈들이 잡아서 그 학교 직원실에 앉치워놓고 군중의 면전에서 톱으로 선생의 이마복판으로 부터 배까지 꼭 결반으로 켜 갈라서 죽임으로

께 군중을 위협하였지마는 미국놈들의 식인종적 야만성을 폭로한 것 밖에는 없는것입니다.

또한 동면 수원리에 사는 양금선동무의 가족 6명을 학살한후 양금선동무는 산사람을 나무가지에 거꾸로 달아매고 머리밑에 불을놓아 태워죽였으며 온천면 소비조합상점 책임자이던 한창세동무는 창고에 집어넣고 세빠트개를 넣어 물어 뜯어 먹게 하다가 일주일 이나 지나서 죽어가는 사람은 총살하였고 동상점 경리 김창조동무는 전신 가죽을 떠서 죽였읍니다.

증인심문에 의하여 당 공판정에서 명백히된 바와 같이 1950년 10월 18일 오전 10시경 미국 병정 20여명과 괴뢰군 10여명이 신천면 경지리에 사는 우말제 부인의 남편인 박도세씨를 열성농민이라하여 철사로 그의 코와 귀를 꿰고 량손을 총창으로 뚫고 바로 꿰여맨 다음 이마에는 모범농민으로 수여받은 표창장을 못으로 박아 붙인 다음 잔등에는 빨갱이를 죽이라는 글을 써붙이고 시내로 끌고 단니면서 빨갱이는 탄환이 아까우니 이렇게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녔으며 그의 며누리는 이 악착한 것을 보고 저지할때 미국놈들은 머리채를 잡아쥐고 강간하려다가 이에 반항함에 그의 옷을 벗긴후 뒷산으로 끌고가서 나무에 사지를 결박하고 국부에 말뚝을 박고 휘발유를 치고 불을 질렀읍니다. 이렇듯 그의 자녀를 합하여 가족 7명은 전부 놈들에게 학살되였고 우말제 부인도 체포당하여 갖은 악형을 당하고 창고에 가치웠다가 11월중순에 구월산에 있는 우리 빨찌산의 구원으로 탈출되었읍니다. 이런 악독한 일은 세계 어느구석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로 형언할수 없는 만행인것입니다.

신천군 가련면 명사리에 살던 신음전 녀자는 열성 농민이라 하여 1950년 11월 5일 오후 5시경에 잡히어 라체를 만든후 철사로 코를 꿰가지고 인두를 달구어 가지고 머리와 젖가슴을 지지며 량손가락을 칼로 잘라버리는등 갖은 악독한 고문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동리로 끌고 다니다가 오후 1시경에 명사리 신산고지로 끌고 가서 무수히 구타한 후 총살하였읍니다.

신천군 온천면 진우리에 살던 유금녀는 1950년 10월 28일 치안대장 한종선이라는 자가 대원을 데리고 동일 오후 2시경에 유금녀를 체포하여다가 벌거벗긴후 아까시야 몽둥이로 무수히 때린후 두손을 뒤로 결박하고 잔등에다가 무명천에 열성자라고 써서 붙이고 동리로 끌고 다니다가 동리앞 옆산으로 끌고 가서 가시가 있는 아까시야 나무로 죽게 때리고 어느듯 귀를 베고 괴뢰장교놈이 그년이 북한에서만 살아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사정을 모르니 두눈을 떼여 높은 나무가지에 다가 달리는 명령을 놈들은 집행하고 죽이는등 이 잔악한 짓은 미국략탈자들이 례사로 하는 짓임을 놈들은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천면 경지리에 살던 34세난 김정애녀사는 열성농민이라하여 잡아죽이는데 미국장교놈은 그 녀자를 죽이는데 탄환이 아깝다고 손발을 동여매고 그 녀자가 업고있던 두살난 아이까지 창으로 찔러 죽일때 김일성장군만세! 공화국만세! 를 웨치므로 혀를베여 던지고 생매장하였고 간호원 강습소에서 공부하던 20세되는 김을장은 미국놈들이 귀를 꿰가지고 등에는 못을 박고 북을 메우고 타쳐로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감옥에 넣고 강간까지 하려다가 반항함에 창으로 찔러 학살하였으며 온천면 료양소에 있는 장배산실을 유곽으로 만들고 젊은 녀자와 처녀들은 닥치는대로 잡아다가 그곳에 쓸어 넣고 미국놈 영국놈 괴뢰군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갖은 롱욕을 다하다가 겨우 세 녀자만이 살아나오고 그외는 전부 화물자동차로 실어다가 남부저수지에 쓸어 넣어 죽였습니다。

우리 한개 군에서만 일어난 이런 만행은 해리손의 버릇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 전쟁상인들과 그 침략군대의 일반적인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상의 일환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점을 강조하여 마지입습니다。

최고재판소 재판원 여러분!

수없이 많이 실증되는 놈들의 만행을 이 이상 더 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천인공로할 일련의 범죄적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

입니까?

놈들이 비인간적 만행은 그칠바를 모르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놈들의 패배를 만회하려는 흉계에서 더욱 인간백정의 마지막 잔인성까지 발휘하여 전세계 인민들이 전률과 증오를 느끼고 있는 세균무기까지 우리강토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범죄적 사실은 오로지 우리를 멸족하려는 놈들의 만행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세계 자유애호인민들에게 최대의 불행을 가져올 전제임을 서슴치 않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쑤의 갖은 고문과 릉욕과 억울하게 사라진 수많은 애국적 우리인민들의 철천의 원한은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악당들의 흉악한 죄악은 결코 그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잿더미로된 도시에 아직 살아있는 주민들이 토굴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를 계속 폭격함으로써 우리를 정신적으로 굴복시키어 육체적으로 약화시키고 놈들은 계속적으로 수십만의 평화적 주민들의 늙은이나 젊은이나 고문을 당하고 불에타 죽고 매맞아 죽으며 산장을 당하며 아무 죄도 없이 또는 재판과 판결도 없이 감옥에서 굶주림으로 죽고 있는 대량적 학살은 과거 히틀러 만행보다 더 초월한다고 평가한 국제민주녀성련맹 조사단의 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천군 일대에서 적의 강점기에 일어난 일단을 말함에 있어서도 보통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무서운 사실을 간단히 접수하는데 난색을 보일 수도 있으리라고 까지 생각됩니다마는 오늘 국제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받은 모든 재료와 우리군내에 살아있는 무수한 목격자와 물적증거들은 내가 말한 이 만행은 더욱 릉가하고 있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원 동무들!

놈들이 여하히 악독한 만행과 대량적 학살의 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지는 꺾을수 없으며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애호 인민의 뜨거운 지지와 원조를

받아가면서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인도주의적 모든 원칙을 위반하였을뿐 아니라 국제적인 제 원칙을 무시한 재생된 왜소 히틀러의 후신인 미제국주의자들은 멀지않은 장래에 세계인민 앞에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고야 말것이며 우리조선에서 잔인하고 악독한 살인귀의 직접 모범을 보인 원흉은 미제 침략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충실한 노복으로서 미국놈들의 딸라에 눈이 어두어 자기의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털끝만한 사람의 량심도 없이 사람잡이에 눈이 뒤집힌 악당인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 윤명원등에게 결코 죄가 경하여 질바는 아닙니다。

그자들 역시 오찰을 하여 죽인다고 하여도 놈들이 범한 죄는 벗지 못할것입니다。

미국 무장간섭자들과 그 주구 반역도당에게는 우리는 이틀갈아 천추의 원한을 쐐고야 말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천군 인민을 대표하여 또는 공화국의 충실한 공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타 오르는 적개심을 가지고 인민의 원쑤인 저자들 네명에게 우리 공화국 형법상 최고 형을 내려야 될것이라고 재판소에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1952년 5월 29일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대표하여 사회소추자
주황섭의 발언

최고재판소 판사 참심원 여러분!

나는 사회소추자의 한사람으로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대표하여 본건 피소자들의 잔악무도한 반인민적 범행과 그 죄책에 대하여 극악한 인민의 원쑤로서 규탄하는 동시에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정하여 조선사람의 손으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대량적으로 무참하게 학살한 흉악한 인류의 원쑤 미제 식인종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론죄하려 합니다。

여러분!

본건 공판심리가 개시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부합되는 피소자들의 자백 및 기타 물적증거에 의하여 본건 기소 사실은 일점의 의혹도 없이 완전히 증명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건 기소사실의 진상을 상세히 규명하고 옳은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한개의 사실인 점과 그에 해당하는 법률적 평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그 배후에서 직접 사수한 본건 범죄의 원흉인 미국장교 해리손의 행동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고도 예리한 정치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시기와 지역에 있어서 진행된 수많은 반역 사건들은 그 표면에 나타난 범죄의 현상만을 볼때에는 마치 조선 사람들이 조선사람을 죽인것과 같이 되어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 배후에는 미국 식인종들이 숨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건에 있어서도 직접 집행한자는 조선사람인 피소자들이였다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주동적 역할을 논자는 미국의 군적을 가진 현역군인인 미군 륙군 중위 해리손이였으며 그의 직접적 지도 밑에서 본건 범죄가 수행된 이상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표면에 나타난 현상만을 피상적으로 관찰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배후에 숨어있는 범죄의 근원을 탐구함으로써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구구하게 설명할 여지도 없이 본건 사건의 정체는 이미 수집되였고 확증된 자료에 의하여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피소자들의 개인이나 미국장교 해리손 개인에 의하여 우연하게 진행된 개별적 범죄가 아니고 강점되었던 수많은 지역에서 진행된 반역 사건들과 내부적 통일성을 가진 미제의 침략적 행동의 일환으로서 감행되였으며 그의 괴수는 월가 전쟁 방화자들이며 그들의 의도를 조선에서 직접 실천한것이 맥아더 리치웨이 크라크들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주기 위하여서는 본

진 범죄의 정치적 배경과 그들의 목적과 본질을 알아야 하며 또 그 범죄와 류사한 방법으로 진행된 수다한 행동에 대한 정치적 련계성을 보아야 하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적 강점기간에 수행된 많은 반역 사건들의 진상을 똑똑히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미제의 식인종들의 조선침략의 정체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판사 참심원 여러분!

우리들은 그동안 심리를 통하여 피소자들의 범행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악착하였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와 인도를 수호하는 보통 사람으로서 누가 피소자들과 미국 병정들의 이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저주와 분격을 느끼지 않은 자가 있으며 조선사람으로서 어찌 민족적 치욕과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조선민족은 옛날부터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노예화하며 그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것을 자기의 도덕으로 삼아 본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을 침략하려는 외래 침략자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선조때로 부터 시종일관 용감하게 싸워온 전통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그러나 풍습과 전통속에서 자라난 피소자들로서 아무리 조국과 인민을 반역한 극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와같이 잔인무도한 비인간적 행동을 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합니까。

인제 나는 피소자들의 자백을 빌어서 피소자들의 행동의 잔인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피소자들은 1950년 10월 18일 해리손의 지시에 의하여 900여명의 애국자와 그의 가족들 특히 철 모르는 어린애들까지 포승과 새끼로써 결박하여 총창으로써 구뎅이에 몰아넣은후 그들의 머리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놓았을때 이 무서운 고통을 못견디어 죽을 힘을 다하여

빠져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괴소자들과 미국 병정들은 사격으로 대답하였으며 아직 절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소란하게 덤비는 것을 흙뎅이를 덮어 생매장을 하였습니다.

10월 2일 520명을 학살할 때에는 방공호속에 몰아서 넣은 다음 그 출입구를 흙과 널판으로 밀폐하여 질식케 하였는데 이 광경을 본 미국 식인종 해리손은 만족하여 미소를 띄우고 "오-케" 라고 외치면서 사진을 찍은 다음 괴소자들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합니다.

생각만하여도 몸서리치는 이 전률할 무서운 만행은 극악한 인간 죄악성의 최고 표징으로 되며 우리들 기억에서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미국 식인종들과 그 졸도들인 괴소자들의 포악한 행동에 의하여 학살된 수많은 애국자들의 유령과 같은 그림자가 이 공관정 주위에 배회하면서 괴소자들과 그의 상전 미국놈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고 그러한 잔악한 방법으로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는듯한 환상을 느낄때에 모골이 송연해지며 한없는 동정과 비분과 원한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은 잔악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학살된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적이 강점하였던 방방곡곡에서 수십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괴소자들의 잔인무도한 성격에 의거한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커다란 원인은 피에 굶주린 미제 식인종들이 자기네들의 침략야욕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잔인한 수단과 방법도 대상도 가리지 않는 아귀같은 잔인하고 더러운 침략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실증하는 것으로서 미국 식인종들이 남북 조선에서 진행한 야수적 만행을 조사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단의 보고 자료중에서 그 몇가지만을 들어 보겠습니다.

동위원회의 보도 3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평양시를 일시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 간섭자들과 리승만 군대들은 수많은 무고한 평화적 시민들을 살해하였다.

그들은 인민정권 기관일군및 특히 로동당원들은 투옥 타살 총살 교살하였으며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은 부녀 아동 로인들을 불문하고 체포 투옥 고문 학살하였다。

미군과 리승만 군대가 평양을 강점하고 있는 동안에 감행한 이러한 만행의 결과 평양에서 1만5천명 이상의 주민이 학살되였다。그들은 위협과 공갈로써 시민들에게 대동강 남쪽으로 피난갈것을 강요하였으며 평양으로부터 나가지 않는자는 빨갱이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광포하였다。공포를 느낀 시민들은 남녀 로소를 물론하고 12월 3일과 4일에 떼를지어 대동강을 건너가기 시작 하였는바 퇴각하는 미군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사람들이 다리에 꽉차서 건너가고 있을때에 그 다리를 폭파하였다。

미국 전투기들은 강안에 운집하여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총소사를 하였다。

12월 3일과 4일에 미국인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이와 같이 하여 약 4천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하였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12월 4일에는 대동강은 군중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대동강수는 살해된 사람들의 피로써 붉게 물들여 있었다 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또 다른곳에서는 다음과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시 평양을 강점하였다가 퇴각할때에 미군 및 리승만 기술병들의 특별부대는 평양의 산업 기업소들과 건물들과 시설들을 폭파 소각하였다。평양에서 퇴각하기 전에도 미국인과 리승만도당들은 평양 화학공장의 일체시설을 파괴하고 공장건물과 합숙을 소각하였다。

평양 방직공장 평양기계제작소 사동련탄공장 메리야스공장 평양연초공장 평양사탕공장 중앙백화점등의 폭격을 면하였던 시설 및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도당들은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힘과 손으로 건립된 김일성종합대학을 파괴하였으며 또 로어대학 사범대학 체신전문학교 공업대학 로동당중앙당학교 제1 제2 제3 제4 제6

제10초급중학교 제2고급녀자중학교 제5초급녀자중학교 제14 제19 제38 제39인민학교의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연구자료와 기구들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각하였거나 혹은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한 중앙병원 국립예술극장 평양아동궁전 로동신문사 및 기타 문화시설의 건물도 파괴하였다。

미국인과 리승만도당들은 국립중앙도서관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 각기관의 도서관 서점들과 개인서재들에 있는 수 10만권의 서적들을 소각하였다。

그들은 평양박물관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전람품들을 략탈하였으며 많은 력사적 유물을 그 례를 들면 락랑고분 조선에서 가장 귀중한 8개의 력사적 유물중의 하나인 부벽루를 파괴하였으며 영명사의 금부체를 략탈하여갔다。미국간섭자들은 평양시의 40만주민들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던 수도시설들과 저수지를 폭발 파괴하였으며 시내에 전기를 공급하던 배전부를 파괴하였으며 대동강철교 및 인도교와 시내의 전차선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미국인들과 리승만도당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내무성 사법성 평양시 인민위원회 내무부 평양 전신전화국 중앙은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건물들과 기타 많은 시내건물들을 파괴하였다。』라고 그들의 만행을 여지없이 폭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이것은 평양 지방에 국한된 부분적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외 각 도시와 농촌들에서 진행된 그들의 만행은 이보다 몇배나 참혹하고 악착한 방법으로 충만되어 있으며 남조선에서 진행된 그들의 만행은 더욱 처참합니다。이미 오래전에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사위원단이 남조선 미군정과 그의 허수아비 리승만도당들의 만행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뚜렷이 기재된바와 같이 미국놈들은 자기의 앞잡이 경찰 테로 분자들을 사수하여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할때는 용서없이 검거 투옥하였으며 더욱 혹독한 방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즉 부녀자들의 젖통을 찌

르고 국부에 말뚝을 박아 인간이하의 치욕을 주어 죽였으며 애국자들을 창고에 몰아넣고 굶주린 쉐빠트로 하여금 애국자들의 살조각을 점점이 뜯어먹게 하고 이러한 고통에 못이기어 신음하며 애타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아귀와 같은 그들은 만족해 하였습니다.

미국놈들이 가는곳마다 그나라의 인민들이 이 모양으로 참혹한 주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론증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실들과 오늘 조국전쟁 과정에서 미국놈들이 전쟁법규와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아무러한 군사적 시설이 없는 도시와 농촌을 무차별 폭격하여 잿데미로 만들며 무서운 세균을 보유한 곤충들을 산포하여 대량적으로 조선인민을 살륙하며는 야수적 행동을 종합하여 볼때에 본건에 대한 범죄의 진상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사 참심원 여러분!

다 아시는바와 같이 장구한 일제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일제 조선인민들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량을 바치어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산하에 굳게 뭉치어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적극 반대하여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들의 전민족적 요망에 대하여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네들은 1946년 9월 인천에 상륙하여 3.8이남 조선지역에 웅거한 첫날부터 우리들의 요망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많은 애국자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각종 민주주의적 출판물들의 간행을 금지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였으며 몇개의 반역자 재벌들을 제외하고는 전체 인민들은 기아와 폭탄속에서 헤메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억압에서 사경에 직면한 남조선 인민들은 "앉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일어나 싸우자" 는 구호밑에 총 궐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총칼로써 이들을 억압하고 잔악한 방법으로 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침략적 야욕을 달성하기에 광분한 사실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전세계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영원한 자기네들의 행복의 왕국을 몽상하는 월가의 주인들은 아세아 침공의 발판으로서 조선침략이 선차적으로 필요하였던 까닭에 벌써 근1세기전인 1866년 사만호사건을 필두로하여 1871년의 강화도 사건을 거쳐 1882년 소위 『한미수호조약』을 계기로하여 조선내정을 간섭하면서 많은 리권을 쟁취하였으며 제2차 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그들은 종래의 숙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점령한후 포츠담선언 얄타회담에서 결정된 조선독립에 관한 조항등을 헌신짝과 같이 파기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근거한 쏘미공동위원회 사업을 갖은 구실로 파탄시켰으며 북조선에 주둔하였던 쏘련군대가 철퇴하면서 동시 철거를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둔하였을뿐만 아니라 유엔 간판밑에 총칼로써 실시된 소위 5.10망국 단독선거를 통하여 자기네들의 충복 리승만일파의 매국역도들을 수반으로하는 남조선 괴뢰정부를 조작해낸 후 1948년 8월『한미 잠정군사협정』동년 12월『한미경제원조협정』등 일련의 매국협정들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괴뢰국회에서 승인된 『미군남한주둔안』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군대 경찰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그 훈련과 장비를 강화하며 남조선의 정치경제적 군사적 지배권을 미군수중에 틀어 장악한 사실은 우리들이 이미 다아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오랫동안 일제의 통치에서 쓰라린 경험을 겪은 조선인민들은 다시는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메지않기 위하여 미국놈들의 이 흉계를 반대하고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의 손으로 해결하자는 자연스러운 구호밑에 평화적 방책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하기를 념원하여 총궐기 하였을때 그들은 상투적 수단인 총칼로써 억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와 자유의 기지 북조선을 자기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영원히 조선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소위 북벌을 획책한 사실도 우리는 잘 아는 바입니다。

이것을 실증하는 사실자료로서 미 군정청 경무부가 발표한 숙소

된 통계숫자에 의하더라도 1946년 4월부터 1947년 3월까지 1년간의 검거 총국한 건수는 12만 41건에 달하며 1946년 한해동안에 그들에 의하여 학살된 수는 4,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압은 제2차 쏘미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1949년 8월 15일을 전후 한 20일 동안에 더욱 혹심하여 경향각지에서 검거된 총인원수는 11,039명에 달하며 테로에 의한 피해자가 서울에서만 하여도 916명에 달하였습니다。그후 2 7구국 투쟁과 5.10망국 단독선거시에는 더욱 혹심하여 5월 10일 하루동안에만 학살된 애국자가 500명에 달하고 있으며 1949년 6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평화적 조국통일방책이 제의된 이후에 있어서는 일층 악랄하고 혹심하여 동년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학살된 숫자는 6만2,000친여명에 달하며 인민유격대를 토벌한다는 구실밑에 소각된 농가의 호수는 무려 15만호에 달합니다。이상과 같이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한 정책은 피비린내나는 학살과 잔악한 고문 구타 파괴등으로 관철되었으며 조선사람들을 파리보다 더 쉽게 죽였습니다。

그것이 소위 그들의 문명이며 원조이며 도덕입니다。오늘 피소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잔악한 행동이라든지 기타 적 강점기간에 북반부 각 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테로 학살 사건이라든지 기타 남반부에서 이미 실시한 테로 정책의 련관이며 본건 범죄가 진행된 신천군 일대를 지휘하던 미 륙군 중위 해리손의 행동은 그것이 개별적인 잔인한 성격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원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수에 의한것이며 오랜 미국침략 정책의 일면을 반영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제의 최후발악은 오늘 우리 조선사람들이 당하고 있지만 다음날은 그어느 다른 나라인민이 또 당하지 않겠다고 그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귀같은 미제 살인강도배들은 인류공동의 원쑤로 되였으며 오늘 조선에서 진행되는 우리 해방전쟁은 분명히 정당하며 전세계 자유애호 인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입니다。

이와같이 인류의 도덕을 위반하고 모든 인류의 행복을 말살하려는 극악한 그들의 반동적 침략행동은 멀지않아 반드시 패망되고야 말것이라는 정의의 승리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필승의 정신으로 고무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 판사 참심원 여러분!

나는 위에서 본건 피소자들의 범행이 피소자들의 단독적 범행이 아니라 흉악 무도한 인류의 원쑤 미제의 사수에 의하여 감행된 사실에 대하여 루루히 장황하리만치 진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피소자들이 조선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반인민적범죄를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감행한 그들의 죄책에 대하여서는 론죄상 추호도 영향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말하여야 하겠습니다。전체 조선인민들이 다시는 식민지 노예가 되지않기 위하여 전선에서 후방에서 미제를 반대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을때에 피소자들은 미제의 앞잡이가 되어 배신적으로 자기의 선량한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죄악은 천추에 씻지 못할 루명으로 되였습니다。

원쑤들이 아무리 발광적으로 음모 획책 할지라도 자기 조국의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곤난도 무서워하지 않는 조선 인민들의 투지는 꺾지 못할것이며 또 그의 앞잡이인 저주로운 피소자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애국자들과 가족들을 대량적으로 학살 하였지 마는 그들이 흘린 충직한 선혈들은 결코 헛되이 흘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쑤들의 흉탄에 쓸어진 수많은 애국자들의 동지들과 전우들은 전방과 후방에서 그들의 시체를 넘어 고문대와 총탄 앞에서도 굴치않고 이 시각에도 적들의 심장에 주검의 포탄을 맹렬히 퍼붓고 있습니다。

원쑤들과의 가혹한 전투행정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조선인민들의 고상한 애국주의는 전체 조선인민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적을 섬멸함에 있어서 마지막 피한방울 까지 조

국을 위하여 바치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고상한 전투의식과 혁혁한 성과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생명과 지력과 재력을 흉악한 미제 침략도배 소탕을 위한 정의로운 조국 해방전쟁에 남김없이 다 바치게 된것은 그들의 해방후 7년간의 생활체험에서 인민 민주주의 길로 지향하고 있는 공화국의 사회 정치적 제도의 확고 부동성과 우월성을 명백히 인식하였고 우리의 전쟁이 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한 정의의 해방전쟁인데 있으며 국제민주진영의 절대한 성원속에서 승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억센 인민의 힘은 인민의 원쑤로서 저주로운 락인을 받은 피소자들과 같이 적의 일시적 강점을 공화국의 영원한 패배로 인정하고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을 경시하였던 자들까지도 날이갈쑤록 자기의 착각과 죄과를 뼈아프게 참회하면서 관대한 공화국 품속으로 자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소자들이 이미 공화국의 관대한 정책에 근거하여 자수의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종시 미제의 앞잡이로서 최후까지 공화국을 적대하려고 한것은 추호도 동정할 여지가 없는 악독한 인민의 원쑤로써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역자의 말로는 오직 저주로운 주검만이 기다리고 있으며 인민들은 그자들의 추악한 시체위에 치욕과 경멸에 가득찬 가시덤불을 던질 것입니다.

오늘은 저주로운 피소자들이 인민의 심판을 받지만 래일은 리승만 매국역도들과 그의 상전인 미국 전쟁방화자들이 인민의 앞에서 이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것을 몰락에 직면한 반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1952년 5월 29일

국가 검사의 론고

최고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동무들! 여러분은 나흘동안에 걸쳐서 본사건의 면밀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피소자들의 진술과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공판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자료들은 본건 피소자들에 대하여 기소된 전률할 일체 비행사실을 문쟁할 여지없게 명백히 확인시켜 주며 충분한 증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판의 의의는 결코 지금 이 피소자석에 앉아 있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반역자 몇명의 범죄를 확정하고 그들의 개별적 책임을 단정할 수 있게한 그런 협소한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판은 타국 령토를 강점하며 그 인민을 노예화 하기에 광분하고 있는 미제국주의 략탈자들이 자기네의 침략정책을 감행할때 그 어떠한 만행도 서슴치 않고 취하는 야수적 본성을 선명하게 폭로해 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판 심리의 직접적 대상이 주로 황해도 신천군에서 미제 침략 군대가 그들의 앞잡이와 더부러 조선 인민에 대하여 감행한 죄행들중의 적은 부분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 공판의 의의로 하여금 미제 침략군대가 한개 국부적 지방에서 감행한 범죄의 특수한 면모를 밝히는 거기에 그치게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반드시 강조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건 심리 과정에서 확증된 제반 자료들이 다시 한번 표시하는 바와 같이 한개 적은 지방인 황해도 신천군에서 만도 3만 5천여명의 조선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한 이 범죄는 미제 침략자들이 그들의 피묻은 마수가 뻗친 조선의 방방 곡곡 어디서나 저지른 대규모의 전반적 죄악과 불가분적 관계가 있는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며 또한 미제 침략자들의 식인종적 만행의 악독한 결과 광범한 규모를 상징하는 전형적 표본인 것입니다. 다른면에 있어서 전률할 이 범죄는 미제 침

략군대의 그 어떤 개별적 장교나 병사들 례컨대 본 공판정에서 여러번 그 저주스러운 이름이 불리워진 미군 중위 해리손이나 기타 그 졸도들의 특별한 잔인성으로 말미암아 감행된 특수한 사건인 것이 아니라 준비된 계획과 미리 선택된 방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된 미제 침략자들의 조선 인민에 대한 학살 멸족 정책의 유기적 결과임을 역시 본 공판 행정은 뚜렷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점들에 본 공판이 갖는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본 공판은 오늘날 월가 전쟁 상인들의 리윤을 위하여 인류와 문명을 반대하여 나선 평화의 원쑤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식인종적 야수성을 전세계 인민 앞에 남김없이 폭로하여 줍니다。

본 공판정에서 밝혀진 모든 자료들에서 여러분은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억울하고 참혹한 주검을 당한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원한어린 웨침을 들을것입니다。그 웨침은 바로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에게 이 저주로운 원쑤들에 대해서 복쑤의 주검을 더욱 맹렬하게 더욱 철저하게 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웨침은 바로 전 세계의 선량한 보통 사람들에게 오늘 미제 야수가 조선 인민에게 대해서 감행하는 만행이 래일은 세계의 다른 인민들과 그 후손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인류와 문명의 흉악한 원쑤 미제를 반대하고 평화를 고수하는 초소에서 더욱더 단결하여 미제 범죄자들을 한놈도 빼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공판의 특별히 중요한 의의는 다름아닌 이점에 있습니다。

최고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여러분!

본 공판이 가지는 이러한 의의에 비추어 또한 현재 피소자석에 앉아있는 매개 피소자들의 죄행과 그 책임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인민에 대한 침략적 죄악과 비인간적 만행 일반에 관하여 약간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공판에서는 미제 침략군대가 황해도 신천군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그시기를 리용하여 즉 1950년 10월 17일부터 동년 12월 7일까지에 이르는 약 1개월 반 동안에 1만 6천 2백 34명의 녀성을 포함한 3만5천 3백83명의 민간주민을 학살한 죄악이 주로 심리의 대상으로 되였습니다。

물론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인민도살 정책은 그들이 공화국 북반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한 시기에 비로소 첫 걸음을 내드딘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관련하여 공화국 남반부에 상륙한 그 첫날부터 벌써 미제는 애국적 조선 인민을 도살하는 파렴치한 형리로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미제는 여러 국제 협약에 의하여 자기가 부담한 조선에 관련된 국제적 의무를 란포하게 유린하면서 이미 오랜 력사적 전통을 가진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종검으로 관철하려고 시종일관 광분하여 왔으며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미제간의 력사상 최초의 접촉이 곧 저들 미제 식민지 략탈자들의 침략적 마수를 격퇴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특징적 사실입니다。

이미 1866년에 미국 식민지 강도들은 무장한 「샤만호」를 이끌고 우리 나라의 령해를 침범하고 평양 부근까지 침입하여 해적적 무법 행위를 감행하다가 당시의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이 사건이야 말로 조선과 미제간의 접촉으로서 력사상 최초였던바 이렇듯 미제의 조선인민에 대한 관계는 그 발단부터 침략과 략탈의 죄악으로써 력사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후 1871년 5척의 미국 군함이 1천 2백 30명의 고용병을 태우고 우리나라 강화도에 침습하여 그 일대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까지 하였다가 다시금 격퇴 되였습니다。

빈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제 식민지 략탈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망을 집요하게 추구 하였습니다。1882년 미제는 당시

의 락후하고 부패한 조선의 통치층을 기만 공갈하여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인 소위 『한 미 수호 통상조약』을 강제 체결한 후 부터는 침략의 촉수가 더욱 깊이 뻗어 왔습니다. 봉건 리조의 왕실과 당시의 정치 상층부에는 미국인 『고문』들이 자리를 틀고 미제 세력을 부식 확대함에 광분하는 한편 조선의 중요 지하부원과 경제 리권을 강탈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미제는 운산 금광과 수안 훙동광산 기타 수많은 광산의 채굴권을 탈취하였었고 경인철도의 부설권을 비롯한 서울시내의 전차 시설권 전기 전화 가설권 등등을 이미 19세기 말 부터 20세기 초년에 약탈하였습니다.

또한 성경과 병원의 간판을 가진 미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들을 많이 조선에 파송하여 조선인민을 사상적으로 마비시키며 미국식 문화의 독소를 주입 시킴에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다가 비률빈과 기타 원동에서의 자기 세력을 공고히할 목적으로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조선을 희생으로하는 도박 거래를 함으로써 일제의 조선강점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여 주는 비렬하고 배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나는 조선 인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죄악의 낡은 력사를 이상 더 깊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의 간략한 몇개 사실들에 의하여 미제가 자기 자신이 도발한 조선 전쟁에서 감행한 본건 사실도 포함하여 온갖 범죄석 만행이 력사적으로 얼마나 오랜 유래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럼으로해서 미제 비적들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지가지의 범죄가 결코 우연한 돌발적 결과가 아님을 여러분에게 상기 시킴으로써 충분합니다.

이렇듯 접촉의 시초부터 일관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과 탈탈을 노려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1945년 9월 우리 조국 남반부에 상륙할 수 있게된 그것은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며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년래의 강도적 야망을 충족시킬 다시없는 기회로 간주 되였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미제 침략군대가 우리

조국 남쪽 절반에 주둔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온갖 위선적 언사에 불구하고 미제가 실지로 취하여온 매개 행동은 례외없이 이점을 증명해주는 명백한 근거로 됩니다。

우리조국 남반부에 더러운 발을 올려놓은 미제국주의 자들은 일본 군국주의자의 자리를 대신 바꾸어 앉힌 상전으로 행세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다시금 노예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그들은 심중한 오산을 하였던 것이니 조선 인민은 벌써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던 그때와는 달라서 어떠한 형편밑에서라도 다시금 외래 제국주의자의 노예가 되기를 단연코 거부하고 녀녀히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만큼 정치적으로 장성되고 단련되였다는 사실을 원쑤들은 타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미제가 조선에서 실시하는 실지 행동에서 그들의 음흉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첫 순간부터 똑똑히 간파하였으며 자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일어섰습니다。그리하여 미제와 그들이 길러낸 앞잡이들인 리승만 반역도당의 흉악한 음모는 걸음마다 파탄되어 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직 미제가 우리 조국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특히 위대한 해방자 쏘베트 군대의 원조를 받을수 있었던 북반부에서는 조선인민 자신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일제 통치의 악독한 영향을 퇴치하고 급격한 발전을하여 통일 민주조선의 튼튼한 기지가 구축됨에 따라 미제의 초조와 발악은 더욱 심하여 졌습니다。

이러한 환경밑에서 미제는 남반부 인민을 정치적 무권리와 경제적 빈궁 및 문화적 퇴폐의 비참한 상태에 몰아 넣으면서 팟쇼 경찰 테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무수한 조선의 애국자들을 체포 고문 감금한것은 잠간 제쳐 놓고 이 기간에 남반부에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학살당한 애국자의 수만하더라도 1946년에 4천2백여명 1947년에 3천 8백여명 1948년에 3천 2백여명 1949년에 10만 9천여명에 달합니다。

미제의 아무리 간악한 탄압도 비렬한 민족의 분렬정책도 그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은 조선인민의 의지를 꺾을수 없음이 분명해지자 드디어 이 원쑤들은 공공연한 침략정책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관사 및 참심원 여러분!

미제가 우리민족에 대한 분렬과 학살 정책을 어떻게 써왔으며 조선에서의 내란도발과 그에 뒤 따른 무장간섭을 어떻게 준비하고 감행하였는가 함에 관해서는 이미 론쟁 할바 없는 제반증거가 넉넉히 설명해주며 또한 상세히 주지되어 있는 바입니다。

나는 새삼스럽게 이점에 더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않습니다。다만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것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수상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전체 조선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역도들이 자기들의 음흉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강토를 피로 물들이려 하는 치욕적인 동족상쟁의 내란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한 평화적 통일 로선을 견지』하여 왔음에 불구하고 가증할 원쑤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 계단의 조선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무엇으로써 대답하였던가 하는 점입니다。

김일성수상은 다음과 같이 명쾌한 규정을 내리었습니다。

즉『미제국주의 자들과 리승만 매국역도들은 모쓰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 실천과 쏘미공위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소위『반탁』과 태공으로 대답하였으며 쏘·미 량군 동시철거에대한 쏘련정부의 정당한 제의를 미군 계속주둔과 남조선 반 인민적 경찰 테로제도의 강화로써 대답하였으며 1천2백 여만명의 당원들과 맹원들을 망라한 56개의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4월 련석회의의 남북총선거에 의한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제의를 무력과 테로로 감행된 1948년 5월 10일 망국적 단독선거로 대답하였으며 2차에 걸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평화적 조국통일방책 제의를 1950년 6월 25일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대한 불의의

무력침공과 동족상잔의 내란도발 개시로써 대답하였으며 미제국주의 자들은 우리조국과 우리인민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한 무해 공군의 무장침범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최고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동무들!

이리하여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계획되고 준비된 도발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에게는 평화적 창조적 로력의 시기가 중단되지 않을수 없게되였으며 우리조국은 전쟁터로 미제국주의자와 그 추종자들의 천인공노할 가지가지 범죄가 수행되는 활무대로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 야만들은 자기가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실로 히틀러 독일도 일본제국주의자도 그 앞에서는 너무나 소박하였음을 부끄러워할 잔인한 범죄를 허다하게 감행하였으며 방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제 야만들은 이 전쟁의 초기부터 조선의 무방어도시와 촌락을 폭격하고 비 군사 목표들에 대하여 무차별 폭격 파괴를 마음대로 하여 우리조국을 페허와 잿데미로 화하게 하였습니다.

미국 공중 비적들의 이 만행에 대해서 아무런 론증도 결코 요구되지 않습니다. 두눈을 가졌고 사물에 대한 객관성을 가진 세계의 누구이든지가 조선의 어떠한 임의의 지역에 잠간 발을 들여놓기만 한다면 그것으로써 이 명명 백백한 사실을 확인함에 충분할것입니다. 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런 군사상 시설과도 관련없는 모든 도시 모든 촌락이 어느하나 성한대로 남아있습니까? 후방 멀리 궁벽한 지방에 농가 몇채가 놓여있는 평화로운 촌락을 이 공중 비적들은 소이탄으로 소각하고 기총소사를 합니다. 적십자의 표식을 뚜렷이하여 명료하게 식별될수 있는 민간병원을 고의로 폭격하여 그 시설을 파괴하고 환자를 살상합니다. 이 공중 비적들은 호상 협의된 바에 따라서 지정된 표식을 선명히 하였고 그 소재 위치가 통보되어 있는 자기측 포로의 수용소를 폭격 파괴하고 살상 합니다.

역시 이 야만들은 들에서 파종하며 제초하는 농촌의 녀성들을 극도의 저공 비행에서 기총으로 사격하여 그 잔등에 업은 유아와

함께 발 머리에 쓸어 뜨렸습니다。이 모든것은 어떠한 군사상 필요의 명목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수 없음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이것은 오직 조선을 완전한 초토로 만들고 조선 인민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미제 야만들의 흉악한 계획의 집행으로써만 설명되며 리해될 수 있습니다。

미제의 조선인민에 대한 소멸정책은 이 야만들이 조선과 중국 령토에서 세균무기와 독까쓰 기타의 화학무기를 광범히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더욱더 명백히 증시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탈을 쓴 20세기의 미제야만들은 국제법의 엄연한 규정들을 란포하게 위반하면서 인류도덕과 인간성의 나머지 한쪼각까지도 유린하면서 우리측 전투원과 일반 주민 가운데 죽음과 질병을 만연시킬 목적밑에 인공적으로 페스트 호렬자 등등의 세균을 감염시킨 파리와 기타의 곤충 및 여러 물체를 대량적으로 산포하고 있습니다。극히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52년 1월 28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에 우리 조국 북반부 지역에 만도 전후 8백4차에 걸쳐 대량의 세균탄을 투하하였으며 이러한 만행은 이 밖에 멀리 중국령토에 까지도 미쳤다는 것이 의심할바 없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악독한 죄행을 음폐하기 위하여 미제 식인종들은 온갖 날조적 요언과 연막을 펼쳐 놓았지만 그것은 이미 랭혹한 사실앞에서 여지없이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특히 종래의 제반 과학적 조사결과에 첨부하여 최근에는 세균탄을 직접 투하한 미제 고용병 자신의 입을 통하여 간악 무비한 미제 세균만행의 진상이 다시한번 세계인민 앞에 똑똑히 폭로되었습니다。공화국 정부의 민첩 적절한 대책과 아울러 방역 일꾼들의 활동 및 전체 인민들의 높은 경각성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의 이 수치스러운 만행이 파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정은 저들 인류의 적들의 가장 엄중한 죄악과 그 책임을 조금만큼이라도 가볍게 해주는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미제야만이 세균무기 뿐만아니라 독까스 기타의 화학무기를 조선전쟁 초기부터 사용한 사실도 별리 세상에 확인된바

읍니다.

세계 인민으로부터 엄중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 야만들은 자기의 야수적 만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즉 금년 2월 27일부터 4월 9일 까지에만 하더라도 미제침략군대는 우리측 전선과 후방지대에 33차에 걸쳐 대규모적으로 독까스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듯이 미제야만들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되어야할 과학의 성과를 악용하면서 고귀한 문명과 량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미제 침략자가 조선에서 감행한 범죄는 그 륜곽 만이라도 그것을 여기에 모두 렬거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을 끼치게하는 미제침략자의 악독하고 광범한 만행들은 평화를 사랑하며 도덕과 량심을 가진 세계 수억만 보통사람들의 여론을 자극시키지 않을수 없으며 당연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이미 1951년 5월에 국제민주녀성련맹 조사단이 1952년 3월에는 국제민주 법률가협회 조사단이 현지에서 친히 미제 야만의 죄상을 조사 확정할 목적으로 조선을 래방 하였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들 조사단이 친히 목격하였고 수집한 직접적 증거들에 근거하여 확정한 미제침략자의 범죄적 만행은 그것이 비록 국한된 부분적 사실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보고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념두에 두면서 나는 미제침략군대가 일시적 강점지역에서 평화적 주민에 대하여 감행한 대중적 학살과 비인간적 만행에 관해서만 조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 공판에서 취급되는 사건의 본질을 리해하는데 보다더 직접적인 련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미제야만들의 식인종적 죄행에 대하여 일찌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박헌영 외무상은 유·엔에 보내는 항의에서 개별적 사실들을 적지 않게 례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즉 『론박할수 없는 사실들에 의하면 미국간섭자들과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리승만 도당들은 자기들이 강점한 조선의 지역들에서 평화적 주민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그들은 자기가 강점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가장 추잡한 릉욕방법으로 중세기 야만적 고문과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과 기타 만행들을 감행하고있다。

미국간섭자들은 조선사람을 눈을 빼며 귀와 코와 손을 베여내며 배를 가르며 산채로 톱이나 칼로 토막을 내며 불에 달군 쇠로 지지며 땅크밑에 던지거나 또는 산채로 매장하여 죽인 실례들은 무수하다。

이와같은 전대미문의 잔악무도한 테로는 로동당원들을 비롯하여 기타 민주주의적 사회단체 맹원들과 지방 민주주의 자치기관일군들과 애국자들에게 널리 감행되었다。

역시 수만 수천의 조선녀성과 아동들과 로인들도 미군과 리승만 괴뢰군의 야수적 발광으로 희생되었다』고 그 항의에는 선언되어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몇가지 실례들이 있습니다。

1950년 11월 23일 이 야만들은 함북 학성군 학성면에서 면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동후를 포함한 28명의 열성자들을 체포하여 뒷산으로 끌고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산채로 태워 죽였습니다。

동년 11월 평북 정주군 림포면에 있는 조그마한 섬 창도에 상륙한 미군은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 580여명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평북 태천군 서면 운용리에서는 군 농민동맹 위원장 리은준에 대하여 미군은 그의 귀와 코를 짜르고 눈알을 뽑고 그의 피부를 벗겨 학살하였습니다。

동년 11월 중순 함남 함주군 상조양면 봉명리에서 이 야수들은 로동당원의 가족 20여명을 체포하여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 시체들을 불살랐습니다。

인간의 량심을 아프게하는 이 종류의 만행은 미제 침략군대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어떤 지방에서나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현상이였습니다.

최고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여러분! 이 공판 행정에서 판명된 제사실은 바로 이 야만들이 감행한 이러한 범죄의 규모와 성격을 선명하게 특징 지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리를 통하여 여지없이 밝혀진 본건 사실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약간의 분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건 공판에서 심리된 사실의 주되는 내용은 다시말할것도 없이 미군이 황해도 신천군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약 45일기간에 평화적 주민 3만5천383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점입니다.

적강점시기에 신천군에서 감행된 만행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신천군 피해조사 위원회 부위원장인 강형도 증인이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조사에 의거한 결과를 이 공판정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적 강점 직전 즉 1950년 10월 17일 현재 총인구 14만2천7백88명을 포옹하고 있던 이 한개 군에서 녀성 1만6천234명과 남성1만9천147명이 미제 식인종들과 그 앞잡이의 피묻은 손에 의하여 무참한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신천군 온천면 운봉리 같은 곳은 그 주민 878명인 200여호의 적은 촌락이였는데 여기서 310명의 녀성을 포함한 580명 즉 전주민의 66%가 미제 식인종에 의하여 희생되였습니다. 또한 리운하의 증언에 의하면 신천면 량강리 총 30호 중에서 남자 라고는 로유를 막론하고 한사람도 남김없이 학살당하였는바 그 수는 127명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간단한 숫자들은 미제 야만들의 주민도살의 규모를 단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량적 방대성은 오직 이 범죄의 여러가지 본질적 특징들중의 사소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모두 어떠한 사람들 입니까?

수다한 증인들의 일치한 진술과 본건 피소자 자신들이 자인하는바에 의하여 명확한 바와같이 이들 희생자의 거의 전부가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또는 자기의 로력적 성과를 근실히 쌓아올린 모범농민 혹은 그들의 가족들과 인민군대 군무자의 가족들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판정에서 미제침략군대에 의하여 체포되였다가 갖은 고문 학대끝에 간신히 탈출하여 생명을 보존한 증인들 자신의 입으로 그의 친척중에 로동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리인민위원회 복무원의 가족이였던 까닭에 혹은 소비조합 면상점의 판매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겪은 사실들을 들었습니다。이러한 관계에서 특별한 주목을 끌지 않을수 없는것은 증인 김만석의 진술입니다。

동 증인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즉『1950년 10월 17일 미국군인 6,7십명이 탄 두개의 화물자동차와 지휘 장교와 통역이 탄 찌프차가 들어오자 미군 중위 해리손은 즉시로 머리를 빤빤히 깎은 사람과 "도리우찌"모자를 쓴사람은 그들이 인민군대이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모주리 잡아다 학살하였다。10월 18일경의 일인데 신천시내 원암리앞 도로에 미군 화물자동차가 서있기에 미국사람이 좋은줄 알고 그에 접근하였더니 우리 원암리에 거주하는 김두산과 김종운 오필한등은 머리를 막깎은 자라하여 체포되였고 방제현은 "도리우찌"모자를 쓰고 있다하여 이들을 차에 싣고 간후 전혀 행방불명이 되였다』고 하였습니다。

증인 강형도는 전술한 온천면 운봉리에서의 희생자 580명중에는 5세미만의 철부지 어린애가 100여명 6세이상 15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150여명 50세 이상의 로인 8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희생자들 가운데는 일가족 전체가 몰살 당한 경우가 허다합니다。같은 증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례컨대 운봉리에 거주하던 한동훈의 전가족 7명이 미제에 의하여 몰살당하였는데 이 중에는 76세의 조모와 12세、14세의 두 동생들과 2세나는 그의 장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비통한 사실들이 이 수일동안 공판정에서 허다하게 진술되였습니다.

이렇듯 녀성과 어린애와 늙은이에 대하여 특별히 광범한 학살이 진행되였습니다.

이 얼마나 피에 굶주려 날뛰는 미제식인종들의 발광적 만행이며 조선인민에 대한 소멸정책을 증시하는 생생한 표본들입니까?

최고재판소 판사 및 참심원 동무들!

나는 본사건 범죄를 분석하면서 반드시 주민학살의 방법에 관하여 지적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 야만들은 평화적 주민들을 그저 단순하게 살해한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능히 미치지못할 그러한 정도의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인간을 도살함으로써 그들은 식인종다운 흡혈귀다운 야비한 쾌감을 만족 시켰습니다.

미제야만들이 우리 형제자매를 학살한 형태의 특징으로 되는것은 공판과정에서 뚜렷이 폭로된 바와같이 두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학살의 집단성 대량성이며 다른 하나는 극악무도한 잔인성입니다.

피소자들 자신이 한결같이 고백하며 증인들이 언명하는 바와같이 미제 야만들과 그의 더러운 충복들은 한자리에서 단꺼번에 수백명씩을 학살하였습니다. 즉 해리슨의 지휘밑에 미군 30여명과 같이 본건 피소자 4명이 모두 참가한 1950년 10월 18일 오후 6시경 로동당 신천군당 앞마당 구뎅이에서 미군의 손에 의하여 휘발유에 불을달아 학살함에 있어서는 주민 900여명이 희생 되였습니다.

피소자 허필순은 이 희생자들의 구성에 관하여 남자가 약 400여명 녀성이 약 300명 및 유아들과 로인이 200명 가량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동월 19일 밤 1시경 신천군 주변 전호에서 감행되였고 피소자 리두현이 직접 참가한 학살에 있어서는 320여명이 한자리에서 무리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10월 20일밤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등이 역시 미군 중위 해리

손의 명령에 따라 미군 20여명과 같이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미군에 의하여 방공호안에 미리 장치한 다이나마이트를 놈들이 폭발시킴으로써 감행한 학살의 희생자는 520여명이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150여명의 녀성과 유아 도합 10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피소자 허필순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소자 리두현이 참가하였고 동월 23일 오후 새서경 토동당 신천군당 전호에서 감행된 사건에서는 330여명의 주민들이 학살되였습니다. 동년12월 7일에 있은 학살에서는 200여명의 어린애와 400여명의 녀성을 포함한 주민 910여명이 한꺼번에 무참한 죽음을 당하였는바 미군의 명령을 받들어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리두현 등이 만행에 직접 참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몇개의 실례에 불과하며 그 전부가 아닙니다.

미군중위 해리슨의 지휘밑에 미군수 10명이 언제든지 참가하여 이와 비슷한 집단적 학살이 도처에서 일상적으로 버러졌던것을 우리는 이 공판을 통하여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건 범죄가 띠고있는 다른 또하나의 형태상 특징을 고찰하기로 합시다.

나는 그것을 극악 무도한 잔인성이라고 위에서 말하였습니다.

미제 식인종들은 사람을 죽이되 그리 단순하게 생명을 끊는것이 아니라 희생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참지못할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을 주는 방법을 쓰며 끔찍스럽게 혹독하고 잔악한 야수적 수단을 써서 무방위의 주민을 참살한 것입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이 집단적 학살에 있어서나 개별적인 학살에 있어서나 례외없이 적용되였습니다. 이 공판 과정에서 들어난 모든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가령 10월 18일의 900여명 학살은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되였습니까?

이 학살에 직접 참가한 피소자 허필순 및 기타 피소자들의 일치한 진술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군중위 해리슨의 지휘밑에 미군 30여명과 소위 무장대원들이

희생자들의 두손을 포승 또는 새끼줄로 결박하여 총창으로 구뎅이에 밀어 넣은다음 그들의 머리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소살하였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져 나오려는 사람들을 사격하였으며 아직 절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아우성소리가 소란하여 구뎅이주변 흙데미를 파서 이들을 생매장 하였습니다.

아귀같은 해리손은 산사람이 흙으로 덮이우는 것을 보고 만족한듯이 자기방으로 들어갔다가 얼마후에 다시한번 현장을 검열하였습니다.

10월 20일의 520여명 학살에서는 보다더 잔인한 방법이 적용되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옷을 벗기고 이들을 방공호속에 몰아넣고 그 출입구를 널판과 흙으로 밀폐하여 질식을 강요하다가 방공호안에 미리 장치해 두었던 다이나마이트 2개를 미군의 손으로 폭파시켜 몰살시켰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이 학살을 친히 지휘하던 해리손은 이 학살을 집행한 자기수하의 인간 백정들에게 담배를 한대씩 권함으로써 만족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7일의 910여명학살에 있어서는 2개 창고를 리용하여 한 창고에는 소년 소녀만을 다 른창고에는 성년자를 분간하여 감금하고 이들의 머리위에 조짚을 덮고 역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놓은 한편 100여개의 수류탄을 투하하는 방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인천군이 적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이 주검의 창고를 발굴할때 참가하였던 증인 김만석은 자기가 직접 본 시체의 모양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처음 창고문을 열어보니 문앞에는 어린애들의 시체가 첩첩히 있었는데 모두 문으로 나오자고 애쓴 흔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엎어죽고 굶어죽은 시체와 함께 불에탄 시체도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어린애들의 손톱은 전부 빠지고 피투성이로 된채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벗어져 나려고 온갖 애를 다쓰다가 그만 쓸어진 흔적임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고에 감금되였다가 탈출할 수 있은 증인 김순모는 자기가 겪은 창고내에서의 형편을 이 자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증언하기를 희생자들에게는 며칠간이나 밥은 물론이고 물 한목음도 주지않아 굶주림과 엄동 추위는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참한 현상은 젖먹이 어린애와 아동들의 춥고 배고파 우는 소리였는데 어머니의 젖은 나오지 않고하여 그의 아우성 소리가 더 높아 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야만적 학살방법은 집단학살에서 뿐만아니라 개별적 도살에 있어서 더욱 악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증인 우말제의 진술을 들으셨습니다。

1950년 10월 18일 이 증인의 부락인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에 침입한 미군 20여명과 리승만 괴뢰군 10여명은 그날로 이 증인의 가족 7명을 전부 학살하였습니다。 이 증인의 남편 박도세는 모범 농민의 한사람이었는데 다만 그한가지 리유로 이 농민의 코와 귀를 철사로 꿰뚫고 량손에 총창을 꽂고 이마에는 모범농민으로 받았던 표창을 못으로 박아붙이고 동리로 끌고다니면서 『빨갱이는 탄환이 아까워 이렇게 하여야한다.』고 이 식인종들은 떠들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에 대한 이 야만적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던 증인 우말제의 며누리 리옥봉에게 미국군인들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쥐고 겁탈을 하려하였으며 완강한 반항을 받게되자 미제 야수들은 이 녀성을 뒷산 기슭 밤나무에 결박하고 그의 국부에 휘발유에 적신 말뚝을 꽂고 불을 놓아 태워 죽였습니다。

증인 리복배가 진술한 다른 사실도 이와 못하지 않습니다。 미군은 신천군 온천면 운봉리에 거주하는 가정부인 오명화를 체포하여 세살먹은 그의 아들을 품에서 빼앗아 타살하였으며 임신 7개월중의 동부인에 대해서 태아를 떨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을진대 죽이겠다고 야비하고 비인간적 협박을 가하다가 단연한 거절을 당하자 이 부인을 동리 뒷산에서 총살하였습니다。

증인 김현춘 소년이 제공하는 다른 사실에 의하면 증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자기식구 부모를 위시한 14명은 전부 미국 식인종 병정들에게 악착하게 학살당하였으며 또한 미군은 초급중학교 학생으로서 소년단 위원장을 하였다 하여 17세의 리병조 소년을 체포하여 새끼로 뒷짐을 지워 결박한채 반듯이 눕혀놓은 다

음 그의 약한 목우에 말징을 가로질러 놓고 좌우에서 널뛰듯하여 눌러 죽였습니다。

이 증인은 이 장소에 같이 끌려나가 자기 주검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만큼 옆에서 참혹하게 생주검을 당하는 그 소년의 눈과 코와 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최고재판소 재판원 동무들!

이상의 몇가지 실례는 물론 그전부가 아니며 또한 특수한것이 아닙니다。그러나 이상 더 말할 필요는 없을까합니다。모든 증인들은 자기의 가까운 가족과 친지가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미국식인종들에게 당한 여러사실을 말할때 격분과 비통으로 충만된 눈물과 흥분이 그들의 진술을 여러번 중단시키는것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나는 이 야수같은 만행을 서슴치 않고 감행한 미군 식인종들과 이 순간에도 이 지구위에 같이 살고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계의 보통사람들은 무한한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수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한 대량적 주민학살을 미제침략자들은 실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하였다는 사실이 이 공판을 통하여 역시 명백하게 실증되었습니다。

신천군에 미제 침략군대가 침입한것은 1950년 10월 17일이였는데 그 익일인 18일에 벌써 미군 중위 해리슨은 소위 유·엔군을 대표한다는 자격으로써 회의를 소집하고 자기의 보조부대로 조직한 무뢰한들의 한무리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주민학살 즉 국가기관 복무자 사회단체 활동가와 그 가족들 및 인민군대 가족들을 전멸하라는 명령을 주었고 피에 굶주린 미군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소자들과 증인 오태신 김만석들의 진술은 이 학살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술한바 900여명 320여명 520여명 330명의 집단적 학살사건이 모두 미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한 첫수일간에 감행되었다는 시기적 특징은 곧 미군의 미리부터의 계획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증해 주는

표정으로 됩니다。

이 모든 집단학살에 해리손은 언제든지 수10명의 미국장병과 함께 현장에 나서서 그 도살방법을 지시주고 직접 학살한 뒤에 그 장면을 자기의 사진기계로 촬영해두는 『용의주도성』 도 우리는 이 점과 관련하여 옳게 리해할 수 있습니다。 미제침략군대가 신천군과 그 주변일대를 강점하고 있을 당시 그 한 부대의 통역으로 일하였던 증인 김찬우의 증언은 미제 침략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 이렇듯 주민학살을 조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투적 수단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 증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신천과 린접한 재령에 1950년 10월 17일에 침입한 미군은 그 익일인 18일에 재령에 거주하는 주민을 전부 집합시키고 그중에서 로인、녀성、어린아이들을 추려 약 2리 떨어져 있는 인민학교 교사에 몰아넣고 시내의 모든 집에는 며칠동안 한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악질 반동 약70명을 모두어 놓고 소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명목밑에 경찰서 군청 및 대한청년단들을 조직하라는 명령을 하여 그것을 조직한 다음 그 매개기관에 전임통역을 두고 직접 지시 명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피소자석에 앉아있는 저 4명의 반역자 무리한들도 바로 이러한 미제의 음흉한 정책의 수치스러운 도구로 떨어졌던 악당들입니다。미제 침략군대는 이렇듯 무뢰한과 조국에 대한 반역자를 사수하여 조선인민의 소멸정책을 전면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신천군에 침입한 첫 수일동안에 대량적 학살을 연이어 감행하고는 해리손은 수10명의 자기부하 병정들을 데리고 군내 각면 리를 순회하면서 부단히 지방주민을 학살한 정형에 관하여 여러번 그 순회에 동행하였던 피소자 허필순이가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증인이 이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신천시내에서만도 동년 10월 하순부터 11월말까지에 신천군 용문면과 남부면의 산간 전호 및 저수지에 1,640명 이상의 주민을 끌어내다 학살한것을 피소자 허필순이가 자인합니다。이러한 사

실들은 미군 강점기간중 끊임없이 주민학살이 계속되었고 따라서 얼마나 체계적인 인간도살이 감행되었는가를 말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만행도 물론 조선인민을 소멸시킬수 없었으며 조선인민의 의지를 꺾을수는 없었습니다。그리하여 미제 침략군대는 영웅적 조선인민군대 및 중국인민지원군 부대의 반격에 의하여 패주하지 않을수 없게되자 단말마적으로 더욱 무차별적 대량적 주민학살을 감행하였는바 12월 7일의 910명 학살이 그 한개의 실증입니다。

미제 식인종들은 이렇듯 잔인하고 야비한 인간도살 행위를 제손으로 감행하면서 이 무서운 범죄의 책임을 으히며 조선인민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교활하고도 더러운 술책까지 쓴 내막이 이 공판정에서 폭로되였습니다。

피소자 허필순과 증인 오태선등의 진술에서 나타난바에 의하건대 이 야만들이 대량학살을 감행할때 희생자들의 옷을 벗기고 태워죽이는 방법을 즐겨 사용한것은 피해자가 누구임을 모르게하며 마치 공화국 지방주권 당국이 후퇴할시에 이렇게 한것을 놈들이 발견한것처럼 가장하려는 흉책이었다는 것이며 미제 식인종들이 패주시에 원자탄을 쓴다고 위협하여 인민들을 강제로 남으로 이동시키면 사리원 해주간 통로에서 미제 야만들은 비행기로써 기총소사함으로써 30、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도살하여놓고는 놈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부대들이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오는것을 살상한 것이라고 황당무계한 방송을 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또한『자에』를 부르고 성경을 든 다른한 손으로 간교하게 주민도살을 조직 지휘한 목사와 신부의 특수부대를 리용한 사실도 이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최고재판소 재판원 동무들!

미제야만들과 그 앞잡이들이 감행한 본건 학살사실의 몇가지 특징은 간단히 이미합니다。

이렇듯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된 주민학살은 그 자체로 보

아서나 미제 침략군대가 강점하였던 모든 지역에 공통적 현상이 따른 사정을 고려할때에 있어서나 여사한 범죄가 몇몇 미군 사병놈이나 지휘관 또는 전사들의 특수한 『과격』 행동으로 간주될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바입니다.

이러한 범행은 미제국주의 지배층의 의사와 지시에 의하여 예아더 릿쉬웨이 클라—크를 포함한 조선전쟁의 도발자들과 수행자 및 개별적 집행자 전체를 일관하여 지배하는 계획적 정책의 실행이란 점이 무엇보다도 명백합니다.

나는 주민학살 이외에도 미제침략군대가 신천군 강점기에 감행한 수다한 범죄사실을 여기에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녀성들에 대한 강간과 비인간적 릉욕 행위와 또는 주민들로부터 현금을 강탈하며 몸에 찬 시계를 눈앞에서 떼가는 강도 행위등에 관하여 증인 오수복 김찬우 배면식등의 각 증언과 피소자 최한우의 진술등으로써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제 야만들이 조직지휘한 본건 범죄에 조국을 배반하고 미제와 결탁한 피소자들이 어떤 정도로 가담하였는가를 밝히면서 이들이 마땅히 져야할 개별적 책임들에 관하여 말하려 합니다.

먼저 지적하여야 할것은 비록 본건 범죄의 조직지휘자이며 직접 실행자의 괴수가 미제 침략군대라 하더라도 이 사정은 그들의 더러운 충복으로되어 이 범행에 직접 참가한 반역자인 피소자들의 책임이 엄중함을 조금도 가볍게 해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로 피소자 허필순이 본건 범죄에서 논 역할입니다. 이 더러운 반역자는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하던 시초부터 미제 침략자 날강도들의 앞잡이로서 놈들이 조직한 무장 『학생대의 대장』으로 가장 악질적인 만행을 계속 실행하였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백정은 1950년 10월 18일의 900명 학살사건에서 해리손의 명령 밑에 무장대원 10여명을 직접 지휘하여 희생자를 구덩이에 몰아넣었을 뿐만아니라 소살의 운명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직접 15발의 사격을 가하여 총살하였습니다.

10월20일의 520명 학살사건에도 해리슨의 지시에 의하여 무장대원 10여명을 동원하여 경비에 배치하였으며 용문면과 남부면의 산간접호에서 1,640여명을 학살한 범죄에서도 역시 무장대를 인솔지휘하여 자기가 휴대하였던 엠원 보총으로 수10명을 제손으로 학살하였고 희생자들의 호송과 살해 및 매장에 직접 참가하였습니다。

12월 7일의 910명 학살사건에서는 경비를 지휘함과 함께 자기가 소지하고 있었던 15개의 수류탄을 그 창고안에 직접 던지는 악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조국에 대하여 반역적이며 인간의 량심을 찾아볼수 없는 죄악을 범한후 이 피소자는 자기가 받아야할 인민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패주하는 적들과 함께 도주하였습니다。그리하여 미제 침략군대가 근거하고있는 서해안 순위도에서 미군 정탐기관의 훈련과 지령을 받고 1951년 1월 하순경 다시 또 신천군에 잠입하여 공화국의 국가적 군사적 비밀을 탐지 수집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 공판에서 명백히 되었습니다。

이 피소자는 어린 시절부터 쟁투와 도적질을 일삼는 무뢰한이고 부랑자이었는바 드디어는 공민의 영예를 미제 침략자에게 팔고 아귀와 같은 식인종의 한 졸개로 화하였던 것입니다。

피소자 최한우도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한 첫날부터 이 식인종 도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월 18일 및 동월 20일과 12월 7일 전기 학살사건에 있어 해리슨의 지시에 따라 모두 무장을 하고 경비를 섬으로써 이 범행을 직접 공동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밖에 1950년 11월 21일경 이래 수차에 걸쳐 수10명의 미국 식인종들과 같이 구월산 인민유격대 『토벌』에 참가하여 진정한 애국자인 유격대원 4명을 희생시켰고 적 강점기간중 3차에 걸쳐 신천군 인민위원회 상공과장을 비롯한 애국인사와 그 가족 20여명을 직접 체포하여 학살케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반역자는 적 강점시기에 소위 신천경찰서 수사계원으로

있기전 얼마동안 소위 신천 군청 관재계원으로 있었는바 미제 침략군대를 앞세우고 국가기관의 창고안에 있는 재산을 불법 처분 분배하고 공민들의 개인재산을 대량적으로 위협강탈하여 자기의 상전 미제 침략군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역시 패주하는 미제침략군대를 뒤따라 도주하였던 이 무뢰한은 황해도 백연도에서 미제 정탐기관에 간첩으로 고용되어 공화국의 국가적 군사적 비밀을 탐지 전달할 목적으로 1951년 1월 다시 신천군에 잠입하여 정탐 공작에 광분하였습니다。

피소자 리두현도 역시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한 시초부터 그들의 강점기간중 일관하여 미제 식인종들의 충실한 노복의 역할을 담당하고 나섰습니다。그리하여 10월 18일의 학살사건에 있어서 해리손의 명령밑에 무장경비를 서는 한편 살륙의 구덩이에서 탈출하려는 희생자들에게 대하여 보총5발을 발사하였으며 10월 19일 320명의 학살사건에서도 경비를 담당하고 보총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그후 10월 23일의 330명 학살사건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놀았습니다。

끝으로 피소자 윤명원은 미제 침략군대가 신천군에 침입한 이후 놈들이 조작한 소위 무장대의 대원 또는『대한청년단』의 단원이되어 10월 18일 및 12월 7일의 학살사건에 직접 참가하였습니다。이 두번의 집단학살에 있어서 피소자 윤명원은 무장경비를 담당하여 이 범행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그이후 인민군대의 진격에 따라 도주하였다가 서해안 순위도에서 미제 정탐기관의 고용간첩으로 되었습니다。그리하여 1951년 1월중순 정탐과 파괴의 임무를 띄고 신천군에 무장 침입하여 광분한 가운데서 동년 2월 초순에는 두라면에 거주하는 로동당원 유가족 2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최고재판소 재판원 동무들!

피소자들은 이상의 모든 사실을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자백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지금 피소자석에 앉아있는 저 인간의 찌꺼기

식인종의 졸개들에게 아직도 한조각의 량심이라도 남아있어 무서운 자기죄행을 후회하는 징조로써 간주될수 있겠습니까!

물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이범죄가 감행된 신천군에 지금도 여전히 조선인민이 살아남아있고 당신들이 친히 심문한 여러 증인들 뿐만아니라 생생한 목격자 피해자가 허다하게 현존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피할수 없는 증거와 사실앞에 할수 없이 취해진 패배로써만이 이 피소자들의 태도는 설명됩니다。이 피소자 4명의 본건 학살 범행은 1951년 4월 17일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명 제1조에 해당하며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윤명원의 간첩행위는 형법 제71조에 해당되는바 이 법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가장 엄중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는 국가검사로서 미제 침략자를 반대하여 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문명과 도덕과 량심을 귀중한 것으로 알며 평화와 자유를 애호하는 세계 브롱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당신들의 정의로운 판결이 반드시 이 요구를 만족시켜 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판원 동무들!

동시에 나는 당신들의 판결이 다만 저들 피소자의 이미 지나간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데만 오직 국한되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피소자석에는 본건 범죄의 진정한 조직자 지휘자들이 앉아있지 않습니다。해리슨과 그 졸개 뿐만아니라 그를 조종 지휘한 미제침략자의 여러 두목 원흉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반대한 그들의 죄악을 세계인민은 결코 잊을수 없는만큼 멀지않아 그들이 현재 우리앞에 있는 저 피소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본사건에서 내릴 당신들의 판결로 하여금 그들 조선전쟁에서의 모든 범죄의 두목들과 새로운 세계전쟁을 방화하려는 일체 원쑤

놈에게 엄숙한 경고가 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외래 침략자의 노복으로 되는 버러지 같은 무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필연적 운명을 이 피소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똑똑히 찾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판원 동무들!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당신들의 판결이 일치한 이 요망을 만족시켜 주도록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검찰소 검사 안병진

1952년 5월 29일

평 양 에 서

변호인들의 변론

변호인 지영대의 변론 (허필순 변호)

재판장 및 참심원동무 여러분! 나는 지금 피소자 허필순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이 자리에 참가하였읍니다。그러나 지난 4일간의 공판심리에서 명백히 규명된바와 같이 조국과 인민을 반역하고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피소자 허필순이와 상기 피소자들의 죄상이 잔인하고 야수적이며 비인도적인 너무나 엄중한 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의 립장보다 조선인민의 한사람으로서 끌어넘치는 의분과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감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있으며 비통의 감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나의 임무는 공화국의 변호사로서 우리 공화국의 헌법이 모든 피소자에게 부여한 변호권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가 사건 사정을 옳게 규명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공판심리에 정당한 방조를 주며 피소자의 죄를 경감하게 할 조건과 피소자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재판소 앞에 변론하는데 있는 이상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조국 남반부의 리승만 괴뢰도당들이 우리의 애국투사들을 변호권 보장은 고사하고 하등의 재판이나 심리도 없이 비법적으로 처단하며 학살하는 사실들에 비하면 지금 피소자석에 서 있는 피소자 허필순은 자기의 범한 범죄가 지극히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친절한 재판소의 심리와 더부러 재판소에서 공선변호인까지 선임하여 자기의 정당한 리익을 보호해 주고 있는 공화국 법령의 합법성과 민주사법 제도가 얼마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감격하고 있을 것입니다。나는

이상과 같은 견지에 기초하여 재판사업의 공정에 기여하기 위한 동기에서 피소자 허필순에 대한 나의 변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국가검사트 부터 당 공판정에서의 피소자의 진술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조리있게 인용 분석하시면서 피소자의 죄상을 론증 하시였고 또한 증거 심리에서 조사된 여러 사진들과 많은 문헌들을 렬거하시면서 피소자 허필순에 대한 범죄를 확고부동하게 론리적으로 립증한 이상 사실인정 문제에 있어서 국가검사의 소추 사실과 론고를 론박하거나 법조 적용 문제등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론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재판소에서 판결을 선고하시는데 있어서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참작 하셔야할 점과 고려 하실 정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및 참심원 여러분! 피소자 허필순의 범죄사실은 기소장에 게시된바와 같이 1950년 10월 18일 조선 로동당 신천군당부 앞 구뎅이에서、동년 10월 20일에는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동년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에는 남부면과 용문면에서、또한 놈들의 패주시기였던 동년 12월 7일에는 화약창고에서 애국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수백명씩 각각 야수적이며 잔인한 방법을 써서 대량적으로 학살하는데 직접 참가하여 범행하였다는데 있으며 또 피소자 자신도 이점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변호인인 나 자신도 피소자 허필순이가 우리 조선 인민앞에 범한 죄악은 엄중하며 무엇으로도 속죄할 수 없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엄중하고 인류 력사상에서 일찌기 찾아 볼 수 없는 악착하고 전률할 비인도적인 범죄를 직접 조직하였으며 지시하고 명령한자는 누구이였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본건 피소자의 죄행을 세밀히 규명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과연 그렇다면 이 야수적이며 살인광적 만행을 직접 조직하였으며 지도한 자는 누구이였습니까?

이는 일건 형사 기록상에서나 또는 당공판정에서의 심리에서 피소자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낱낱이 폭로된 바와 같이 이 신천 대학살사건의 엄중한 범죄의 주모자이며 원흉은 살인마인 미군 중위 『해리손』이었으며 또 그의 지휘하에 있던 20여명의 미군 고용병이었습니다。미제의 고용병 해리손과 그의 병사들이 우리공화국 령토인 황해도 신천군에 침입하여 지구상 어데에서도 인류 력사상 어느 페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량심과 렴치가 전멸되고 흉악하고 악독한 인민 도살자로 출현한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닌것입니다。그는 다만 강도 미제의 고용병으로서 그들이 조선을 침략하며 조선 인민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신천에 기어들어 온 첫날부터 직접 이를 실천한데 불과한 것입니다。

일찌기 레닌 선생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쓴의 리상화한 공화국은 실제에 있어서 가장 발광적인 제국주의 형식이며 약소 민족에게 대한 가장 파렴치한 압박과 질식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론증하신 그 점이 오늘 우리 조선 인민앞에 엄연히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났을 따름 입니다。

재판장 및 참심원동무 여러분!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패창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파괴된 서구라파 제국과 동방제국을、나아가서는 전세계를 제패할 목적으로 지중해동맹、북대서양 군사동맹을 비롯한 대서양동맹을 조작하고 있으며 원동에 있어서는 아세아를 침략하며 이나라 인민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 목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점거하고 일본군국주의를 재생 시키며 조선을 식민지화 함으로써 중국과 쏘련을 침략하기 위한 기지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국 남반부에 피묻은 발을 들여 놓은 첫날부터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노예화하며 예속 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천하여 온 것입니다。

즉 그들은 침략의 마수를 우리조국 남반부에 뻗친후 우선 경제

적으로는 조선의 민족 공업과 민족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하여 공장과 기업소를 고의로 파괴함으로써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 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에 지장을 주는 해방된 조선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창발성과 민주세력을 탄압 말살하며 민족내부의 분열과 민족상쟁의 간악한 정책을 교묘히 실시함으로써 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동시에 일반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인민의 원쑤인 온갖 반동세력들에 의거하였던 것입니다。즉 그들은 하—지 아—놀도 러—취 딘등을 남조선에 파견하고 이 술책을 집행케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리승만 매국역도를 사수하여 그로 하여금 애국자로 가장케하고 인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온갖 매국적인 반동세력을 조장 비호하며 일본제국주의의 헌병 경찰제도를 그대로 계승 집행케 함으로써 인민을 억압 착취하며 인민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신앙등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를 위한다 하여 조선의 애국인사 들을 검거 투옥 학살 하였으며 미제 경찰들의 공공연한 엄호밑에 매국적 반동 도당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파괴하도록 조작하였고 전쟁전 숫자만 하여도 15만명 이상의 애국자들을 학살 하였으며 48만여명을 검거 투옥하고 130여개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여 강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들이 갈망하여 마지않는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독립을 방해하면서 이미부터 음모 획책한 세계제패의 야욕과 극동 침략 계획을 실천하려고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그의 주구 리승만 괴뢰도당으로 하여금 내란을 도발케 한후 유·엔 헌장과 국제법규를 난포하게 유린하고 조선에서 비법적으로 무장간섭을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국제민주 녀성동맹 조사단과 국제 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에 의하여 널리 전세계 인민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강

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강화하면서 항공기로써 비무장 도시를 파괴하며 평화적인 주민들을 대량 학살한 만행들은 더 말할것 없거니와 조국해방전쟁 제2계단에서 우리공화국 인민군대가 일시적 전략상 후퇴시기에 미제 식인종들이 우리 공화국 령토의 일부에 기어 들어와 야수적으로 감행한 온갖 만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으며 놈들의 피묻은 발을 들여놓은 곳마다 아름다운 조국 강토는 인민의 도살장으로 변하였으며 일찌기 히틀러 팟시스트 일당들이 만들었던 트레으리카의 살인 공장에도 대비할수 없는 더욱 참혹하고 처참한 피바다의 인간지옥을 이루웠던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강토에서 이와같은 비인도적이며 잔인한 만행을 감행하는것은 그들이 제국주의 진영의 두목이며 새전쟁 방화자이며 세계인민의 도살자이며 가장 파렴치한 강도이기 때문입니다。놈들은 량심과 렴치가 전멸되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이미 야수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야수에까지 타락된 자로서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건 신천군 대중학살 사건의 원흉인 『해리슨』 도 이와같은 강도무리의 한놈이며 미제 고용병으로 인민 학살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 자이였습니다。

이 미제 고용병이며 인간 백정의 집행자인 『해리슨』 은 신천을 일시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그의 본성인 야수성과 잔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광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2년 1월 19일 피소자 허필순이가 예심정에서 예심원 엄경섭 앞에서 진술한 기록 18페지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그는 침입한 첫날부터 맥아더가 남반부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그의 포고1호 및 2호로써 조선인민을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자는 엄벌한다고 위협하면서 노예화 정책을 개시한것과 마찬가지로 『해리슨』 역시 자기의 포고에서 『인제부터 신천의 모―든 사업은 내가 지도하며 나의 명령은 즉 법령이다。 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자

는 총살에 처 한다』고 하면서 우선 애국자와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그는 반동적인 종교인과 타후한 불량청년 도배들을 규합시켜 가지고 경찰서를 비롯하여 무장대 치안대 대한청년단등을 조직 지도하였던 것입니다。여기에서 미제 고용병이며 살인마인 『해리슨』의 앞잡이로 등장한 자가 경찰서장 심상규를 비롯하여 김장성등이였으며 학생대장으로 가담한것이 피소자 허필순이였습니다。

살인마 『해리슨』은 자기의 앞잡이를 교묘히 구사하면서 1950년 10월 18일 소위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심상규 김장성 피소자 허필순등 수십명을 참가시키고 인민을 학살 할것을 지령하였고 학살장소와 학살의 수단 방법까지를 지시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아귀 같은 살인귀 『해리슨』은 본건 신천의 인민대량 학살을 조직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학살 현장에까지 나가서 지휘하였고 그의 인민 도살의 숨길수 없는 죄행의 증거를 인멸 시키기 위하여 피살자들의 의복과 신발을 전부 벗긴후 학살케 하고 그 자리에서 손과 발 머리가 따로 떨어져있는 시체를 자기가 항상 메고다니던 카메라로 악마의 미소를 띄우고 쾌감을 느끼면서 촬영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은 1952년 2월 5일 증인 오용진의 증언중 『해리손은 심상규와 같이 방공호에서 손으로 가르키며 그를 감시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라는 진술기재 (P 87) 와 증인 오태신의 1952년 2월 11일 예심정에서의 증언 진술기재 (P 130) 와 동 증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증언등으로 명백히 립증 되였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론증한 바와 같이 인민도살을 조직 동원한 원흉은 미제 고용병이며 살인마인 『해리손』이 였으며 이를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였고 감시와 독촉을 하면서 증거 인멸까지 기도한 자도 소위 신천군 주둔 미군중위 『해리손』 이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실의 확증은 피소자 허필순이가 소위 신천군 경찰대 무장학생대장의 명목을 가지고 『해리손』의 교묘한 조종에 의하여 그의 도구로서 인민의 원쑤로 락인받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

이 명백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정은 국가소추 검사가 자기의 론고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결코 피소자의 죄과를 좌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해리손』의 범행과 피소자의 범행을 비교적으로 고찰한다면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함으로써 피소자 허필순으로 하여금 범행케 한 『해리손』의 죄악은 피소자 허필순보다 더욱 엄중하며 조선인민의 저주와 복수를 받아야 할것이며 나아가서는 평화애호 인민들의 원쑤로서 규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허필순에 대하여 말한다면 무엇이 피소자 허필순으로 하여금 악독한 미제의 도구로 전락케 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증오와 저주를 받는 민족 반역의 길을 밟게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미제의 정책이 간악하고 교묘하였고 피소자 허필순이는 당시 년령이 어리고 락후한 자이였기 때문입니다。피소자 허필순은 1932년 6월 6일 본적지인 황해도 안악군 안악면 평정리 156번지의 농민 허호민의 3남으로 출생하여 미주 인민학교와 신천초급중학교를 거쳐 1948년 9월에는 재령고급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그후 신천고급중학교에 전학하였는데 본래 피소자의 성격은 운동을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하며 학습에 태만하였고 소행이 불량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출학까지 당함으로써 그후는 민주 학원의 옳은 교양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락후한 타락 생활의 길을 밟게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소자는 조선청년들이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보위의 초소에 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헌신성과 용감성과 애국심을 다하여 투쟁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각성을 가지지 못하고 락후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우리인민군대의 전략상 일시적 후퇴시기의 혼란한 환경에 봉착하자 그는 새조선의 젊은 청년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나갈바 길을 옳게 판단하지 못하고 미제의 마수에 걸려 들어 그의 도구로서 무엇으로써도 속죄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를 범하는 제일보를 드디기 시작 하였던 것입니다。

미제놈들은 언제나 락후한 분자들을 자기의 정책에 충실히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로 하여금 인민의 원쑤로서 전락시키는 정책을 교묘히 쓰는 것입니다。

야수같은 살인마 『해리손』도 역시 이와같은 술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천에서 소위 학생 대장이라는 명목을 피소자에게 부여하고 인민 학살정책에 피소자를 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리손』은 바로 그의 첫 사업으로 피소자 허필순이로 하여금 1950년 10월 18일 신천군당 앞구덩이에서 진행된 전률할 제1차 대중학살사건에 참가케 하였으며 피소자를 인민의 원쑤로서 전락 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이와같이 미제의 간교한 정책에 리용당하여 인민의 철천의 원쑤로 전락된 피소자는 이 순간부터 그는 벌써 자기의 활로를 다른데서 발견할수 없었고 오직 『해리손』의 명령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게 되었던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그는 『해리손』의 충실한 앞잡이로 무서운 죄행을 거듭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피소자가 미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위협을 표방하여 인민을 기만하고 민족 상쟁을 흉책하며 그와같은 간악하고 잔인한 수단으로 조선민족을 말살하려는 미제의 조선에 대한 정책의 본질을 진정히 알았더라면 아무리 락후하고 년소한 피소자 허필순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탈을 쓴 이상 그들에게 리용당하며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본변호인이 당 재판정에서 피소자에 대한 보충심문시에 솔직히 대답한바와 같이 피소자 허필순은 이와같은 미제의 잔악성을 심각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복종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피소자 허필순의 죄상을 평가하시며 일련의 사건사정을 검토하시는데 있어서 피소자가 범행을 감행하던 당시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소자는 이 자리에서 자기의 죄행을 혐오하며 조선인민 앞에 범한 자기의 범행이 너무나 크므로 무엇으로도 속죄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소자는 자기

의 죄행을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히 재판소 앞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재판장 및 참심원 여러분!

지금 피소자 허필순은 인민앞에서 자기의 범죄가 너무나 엄중하므로 머리를 숙이고 공화국 법령앞에 공정한 인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뿐입니다。

물론 재판장과 참심원께서는 공화국 법령의 존엄성을 고수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공고한 평화와 인류의 안정을 위하여 공정한 판결이 선고 될것을 확신하나 이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점을 참작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나의 변론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변호인 김한준의 변론 (최한우 변호)

재판장 및 참심원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피소자 최한우를 위하여 변론 하고저 합니다。우선 사건 내용에 대한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오늘 이 공판에서 본사건의 피소자 4명과 그의 가족 또는 일반 방청인 및 라디오를 통하여 공판 내용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각자가 각 각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그중 특히 피소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재판제도에 대하여 특별한 감격을 느끼리라고 믿습니다。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소자 자신들이 또는 미국사람들이 아무런 죄과도 없는 무고하고 선량한 인민들에 대하여 아무 법적 절차도 없이 무참히 학살하는 범죄적 만행을 거듭한데 대비하여 극악한 범죄자인 피소자들을 일정한 법적 절차 즉 재판을 통하여 공명 정당하게 인민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점에 대하여 무한한 감격을 느끼리라고 믿습니다。 공판심리 과정에 있어서도 피소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얼마든지 변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청할 권리를 보장받았으며 자유로히 진술할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다。

괴소자들은 이점에서 아무러한 절차도 밟지않고 수많은 애국자와 선량한 인민들을 학살한데 대비하여 무한한 감격을 느끼리라는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국 남반부를 점령한 첫날부터 그의 본성을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실천하여 왔습니다。그의 제국주의적 본성은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모든것을 파괴함에 노력하여왔습니다。즉 락후분자 불량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편에 흡수하며 인민의 원쑤인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을 리용하여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를 습격 탄압 해산하여 지하로 몰아내였습니다。민주인사 애국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아무런 리유도 없이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하여 투옥 고문 학살하였습니다。이와같이 우리조국 남반부를 점령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학살 정책을 감행함에 있어서 자기자신이 선두에 설뿐만 아니라 인민의 원쑤들을 리용하는 한편 인민층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부화분자 락후분자들을 규합하여 테로단을 조직하며 이들로 하여금 반인민적 죄악을 감행하도록 사수하여 인민들간의 분렬을 획책하며 그의 단결성을 방해하며 동족상쟁의 내란을 일으키게 하였던것입니다。이와같이하여 미제국주의 자들은 자기들의 제국주의적 본성 약소국가를 식민지화하며 그의 인민을 노예화하는 정책을 실천하여 왔던 것입니다。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조국 남반부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사수에 의하여 조작한 침략전쟁 기간에 있어서 그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즉 그들이 타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 민족 리간정책등은 우리인민군대의 전략상 후퇴를 계기로 하여 일시적으로 북반부의 일부 지역을 강점하였던 그 시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습니다。즉 그 시기에 있어서 미제국주의 자들은 그의 고용병으로서 직접 인민을 학살하는 한편 강점한 그 지방 지방에서 공화국의 제반 민주개혁을 내심 반대하거나 또는 불평을 품은 불량분자 락후분자들을 리용하여 학살정책과 민족 리간정책 실천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불건전하고 락후한 고리는 미제국주

의자들에게 리용되고 그들의 함정에 빠지며 인민에 대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리하여 그들은 다시 빠져 나올수 없는 구멍통으로 전락되고 미제국주의 앞잡이들은 구렁텅어로 전락되는 그들의 머리를 눌러 주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이러한 처지에 들어간 분자들은 그때부터는 전면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서 인민학살 정책과 리간정책의 실천자로 될수 밖에 없습니다。바로 오늘 이자리에서 재판 받는 피소자들은 곧 미제의 함정에 빠져버린자 들입니다。

1950년 10월 17일 황해도 신천군을 강점한 미군중위 『해리손』 및 그의 지휘하에 있는 미국군인들은 직접 조선인민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는 한편 인민층의 가장 약한 고리를 리용하여 학살하는 자기들의 상투수단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에 의하여 피소자들은 그에게 리용되였으며 그의 사수에 의하여 인민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1950년 10월 18일 신천군당 앞구덩이에서 인민학살에 참가한 피소자들은 미국사람들이 획책하는 계획에 의하여 또 자기자신들의 불순한 요소때문에 쉽사리 인민의 원쑤의 편으로 넘어가게 되였습니다。인민의 원쑤가 되였으며 이를 인식하게된 최한우및 모든 피소자들은 다른 길을 생각해볼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환경에 도달한 이 피소자들은 자기들이 금후에 살아 나갈 길은 좋든 싫든간에 오직 미국군인과 미제국주의에 대한 충성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러기 때문에 나는 본건에 있어서 내가 변호를 담당한 최한우를 비롯하여 모든 피소자들이 저지른 악독한 범죄행위 그 자체에 대한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그러한 험악한 구렁텅이로 전락하게된 근원을 현명하신 재판장 및 참심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고려해 주실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부터 피소자 최한우에 대한 기소 사실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피소자 최한우는 행상업을 하던자로서 신천군 주둔 미군중위 『해리손』 이 조직한 인민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경

찰대 수사계원으로 있으면서

1, 1950년 10월 18일 신천군당 앞구덩이에서 900여명의 민간 주민을 학살하는데 참가하였으며

2, 1950년 10월 20일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 520여명의 애국인사를 학살함에 참가 하였으며

3, 1950년 12월 7일 신천군 신천면 원암리 창고에서 910명의 평화 주민을 학살함에 참가하였으며

4, 패주하는 적을 따라 해주까지 나가 미군으로부터 인민군대 군사기밀을 탐지할것을 위임 맡고 신천군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행에 있어서 신천군 주둔 미군중위 해리슨 및 그의 지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신천군 경찰서장 이들에게 추종하여 행동한 피소자등의 행동은 천인공노할 비인간적 비도덕적이며 그들의 죄악은 조선인민에 대한 불구대천의 원쑤로서 규정된 죄악이며 전 평화 애호인민에게 대한 죄악임은 누구나 론쟁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 참심원 여러분!

나는 본건 기소사실은 예심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피소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과 예심에서 수집된 물적증거 등으로 증명되였다고 봅니다。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다시 론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기초하여 나는 이제부터 피소자의 리익과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도움이 될 몇가지 점을 말씀드릴것은 피소자의 성분과 그의 경력 그의 역할등 입니다。

피소자 최한우는 1921년 9월 1일 빈농가에 출생하여 소학교를 졸업한후 백화점 점원 잡화 행상 과수조합 서기 정미소 사무원등으로 전전 종사하다가 1945년 8월 15일 우리조국이 해방되자 다시 잡화 행상을 하며 38 이남에 래왕하면서 밀상을 하여오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자기의 사상적 정치적 교양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자로서 인민군대가 전략상 후퇴시기인 1950년 10월 17일 미군이 신천군을 강점하자 미군중위「해리슨」의 조직한 신

천 군청 재정과 관재계원 또는 경찰서 수사계원으로 근무하게 되였으며 이로부터 『해리슨』의 직접 지시와 서장 신상규 또는 김장성의 지시에 복종하게 되였습니다。그가 특별히 공화국의 제반 민주개혁이나 또는 제 시책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아무러한 조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 10월 18일 900여명의 대중학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놈들에게 리용되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소자의 제1차의 이 범행이야 말로 누구나 다 전률할만한 그러한 간악한 범행이였습니다。제1차 범행 이후의 모든 범행은 피소자 최한우가 자기 자신이 인민에 대하여 저지른 최초의 죄악때문에 이제부터 자기가 의지할 곳은 오직 미군의 명령을 지키는데 있다는 그의 처지에서 출발되었다고 봅니다。피소자 최한우는 범행 과정에 있어서 주동적이 아니며 피동적이였고 한개의 미제의 도구로서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은 이를 말하여 줍니다。

피소자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건 기록과 당 공판정에서의 피소자의 진술에 있어서도 알수 있습니다。기록 68～69페지 피심자 심문 조서에는「나는 간부층에 들지 못하기때문에 간부회의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그러나 그 내용은 서장이 전달하여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으로써도 알수 있습니다。

다음 군사 기밀을 탐지한 점에 있어서도 자기의 정체가 탈로 될것을 우려하고 4개월간 은신하고 있었으며 실제 적에게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그 다음으로 피소자 최한우는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범행을 참회하고 있습니다。(기록 22～23페지) 최한우의 진술 조서에는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과 인민의 아우성 소리 어린이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비참한 광경은 더 말슴 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나에게 느껴지는것은 그와같이 비참히 쓸어져 가면서 김일성장군만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미제와

리승만 도당을 타도하라。 너희들의 멸망은 오래지 않았다라는 등의 진정한 목소리를 최후까지 우렁차게 외치면서 쓸어졌습니다』라고 기재되였으며 기록 28페지 불법 체포당한 사람들이 『김장군 노래 인민항쟁가를 부르면서 자기의 절개를 최후까지 고수하였습니다。 살인마인 나도 탄복 아니할수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공판정에서도 진술 되였습니다。

피소자 최한우가 본건 범행 당시에는 인민의 아우성 소리가 아직 진정으로 비참하게 느끼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진술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오늘의 피소자가 인민앞에서 자기의 만행을 저주하는 표현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공화국의 애국자가 자기의 명맥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당과 국가를 위하여 외친 고함소리와 고상한 애국적 절개는 살인마였던 그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 79페지 피소자 최한우의 심문조서에는 『미국놈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보니 사람으로서 사람의 리성을 잃은 살인귀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이야수적이고 참담한 그 현상을 지금 생각한다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하지못할것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진술되였습니다。

피소자 최한우는 당 공판정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 사실들은 피소자 최한우에 대하여 재판소가 형벌을 량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및 참심원 여러분!

본 변호인은 피소자 최한우에 관하여 이상과 같이 변호하면서 본 변호인의 론거가 사실과 어긋나지 않으며 나의 변론이 반드시 여러분의 평의에서 참고가 되며 여러분이 내리우는 공명정당한 판결에 있어서 나의 변론이 다소의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피소자 최한우에 대한 나의 변론을 마칩니다

변호인 현창형의 변론 (리두철 윤명원 변호)

판사 참심원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피소자 리두현과 윤명원에 대한 변론을 하겠습니다.

본건 기소장에 의거하여 피소자 리두현과 윤명원의 범죄 사실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두현은 신천 초급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나오던 자로서 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미군장교 해리손이 조직한 인민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한 무장대에 참가하여 공작하면서

1、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구뎅이에서 90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2、1950년 10월 19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구뎅이에서 310여명의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3、1950년 10월 23일 로동당 신천군당앞 전호에서 33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다。

윤명원은 기독교 신자로서 미군이 신천군에 침입하자 미군장교 해리손이 조직한 인민 학살을 주되는 목적으로한 경찰대에 가담하여 공작하면서

1、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구뎅이에서 평화적 주민 900여명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2、1950년 12월 7일 신천군 신천면 원암리 소재 창고에서 910여명의 평화적 주민을 학살함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3、1950년 12월 중순 인민군대 진격후 도주하여 장연군 순위도에서 미군으로부터 인민군 군사기밀 탐지를 위임받고 신천군에 침입하여 정보를 수집중이였다。

이상 기소사실에 대하여 피소자 리두현과 윤명원은 당 공판정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솔직히 고백하였으며 승인하였습니다。

피소자들의 범죄사실은 당공판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조선 인민에 대한 크나큰 죄악이며 인민이 용서할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죄상에 대하여서는 더론쟁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피소자들의 범죄행위를 분석하고 형벌을 량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몇가지 점들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9월에 공화국 남반부에 그의 피묻은 발을 들여 놓은 첫날부터 조선인민을 노예화하고 조선을 아세아 침략의 발판으로 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만든 인민위원회를 해체시키고 남반부의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 단체를 지하로 몰아 넣는 한편 조선인민의 대중적 학살을 조직하였읍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학살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직접 수행할 뿐만아니라 조선인민의 원수인 친일파 민족반역자에게 의거하거나 또는 일부 락후한 자들을 규합하여 반동단체를 조직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선애국자들 학살 하게끔 추동시켰읍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조선인민에게 대하여 크나큰 죄를 범하게 하며 다시 구할수 없는 조선인민의 원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동족 상쟁을 도발케하며 조선인민에 대한 학살정책을 감행 하였던 것입니다. 일찌기 미제국주의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불법 상륙하여 본토민족 아메리카 인디안족을 살륙하고 위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립하던 그 악랄한 정책을 우리조선에 다시 적용하려고 하나 오늘 조국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는 조선인민은 이 만행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위수로한 민주주의 제국가와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절대한 성원을 받고 있는 영용한 조선인민의 단결된 력량 앞에 미제국주의자의 침략 정책은 기필코 파탄되고야 말것입니다.

미제국주의 침략군의 단말마적 최후 발악은 1950년 10월 공화국 북반부 일부를 유린하였던 강점지역에 있어서 더욱 악랄하게 표현 었읍니다.

공화국 북반부에 침입한 강도 미제국주의 침략군은 자기들이 직

적 인민들을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한편 인민과 유리된 친일파 민족반역자에게 의거하거나 또는 사상상 불건실한 일부 락후분자들을 규합 추동하여 놈들의 침략도구로서 또는 학살도구로서 소위 경찰서 치안대 기타 반동단체들을 조직하여 애국적인 인사들을 학살케하며 동족상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동단체에 가담한 락후한 분자들로 하여금 인민의 원쑤가 되도록 획책하였으며 어떠한 잔악한 만행도 수행하도록 사주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적 범죄는 신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950년 10월 17일 신천을 강점한 미제국주의 침략군 미군중위 「해리손」은 『금일부터 일체 행정은 본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며 공산주의자는 모주리 체포 처단할것이다。이를 위반하는 자는 총살한다』라고 포고한 후、

일찌기 미제가 선교사를 파견하여 양성한 친미 기독교 목사 장로등을 중심으로 자기 조국과 인민을 반역하는 단체를 조직케하고 해리손은 동월 18일에 반역분자들을 로동당 신천군당부 앞 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 『북한을 공산주의 위협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로동당원 및 그들의 가족 친척들까지 체포 처단해야 한다。빨갱이의 씨족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여 조선민족을 멸살시키려는 정책으로 1950년 10월 18일에 900여명의 애국자를 학살한 것을 비롯하여 19일 20일 23일 련속적으로 매일같이 대중학살을 조직하였고 영용한 조선 인민군과 영예로운 중국인민지원부대의 진격에 의하여 패주하게 되자 최후 단말마적 발악으로 원암리 창고에서 910여명의 평화적 주민 대학살을 감행하기까지에 신천군에서 35、383명의 조선인민을 학살하는 만행에 조선 민족반역자들을 참가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제국주의자의 야만정책에 걸린자가 피소자 허벌순 최한우 리두현 윤명원등 입니다。피소자 리두현은 사상이 락후하고 년소하기 때문에 해리손의 마수에 걸려 그가 직접 조직한 무장대에 가담하여 1950년 10월 18일 19일 23일에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저주롭고 잔혹한 만행에 참가하여 인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지었으며 인민의 원쑤로 되였던것입니다。피소자 리두현은 10월 18일 대학살 만행에 참가한후「해리손」이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었으며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피소자 리두현은 인민에게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것을 알았으며 그러면 그럴쑤록「해리손」에게 더욱 충직하게 복종하였습니다。피소자는 년소하고 락후한 탓으로 미제국주의자의 마수에 걸려 놈들에게 리용된 줄도 모르고 범행하였다는 점은 형벌을 량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피소자 윤명원은 락후한 기독교 신자입니다。이것이 미제국주의자들이 리용할수 있는 조건이며 피소자 윤명원이가 미제국주의자의 마수에 걸릴수 있는 약한 고리였던 것입니다。

신천 주둔 미군중위「해리손」은 바로 이것을 리용하였습니다

「해리손」은 챠프린이라는 특별부대를 추동시켜『하나님이 원조하는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만이 세력을 가질수 있다。신천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남녀 로소 할것 없이 기독교를 잘 믿어야한다』고 설교하였습니다。이렇게 기독교를 야만적인 학살 정책에 리용하였으며 피소자 윤명원은 미국인의 말과 기독교 신부의 말을 한개 신조인것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피소자 윤명원은 미제국주의자의 야만적 정책에 걸릴수 있었던것이며 또한 바로 리용되였던것입니다。그리하여 미제국주의 침략군의 장교「해리손」이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50년 10월 18일 범행에 참가하게된 동기였던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한 다음에는 인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미제국주의자에게 의지하여야만 살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인민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계속 감행하여 악착한 죄를 거듭 범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설명한바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정책이 그 얼마나 악랄하며 야만적인 것이가를 잘 알았으며 식인종에게 리용당하는 자는 끝까지 식인광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피소자들은 사상적으로 락후하고 년소한 까닭에 미제국주의자의 마수에 걸린 사실을 판사 참심원 여러분은 참작하시고 형벌을 량정함에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소자 리두현과 윤명원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도 변명하지 않고 솔직히 자백하였으며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범죄사실이 너무나 크고 뚜렷하게 립증되었다는 사실에도 있지만 미제국주의자 때문에 비인간적 행동을 하였다는것을 무한히 뉘우치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사 참심원 여러분!

나의 변론이 피소자들의 형벌을 량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을 희망하면서 변론을 끝마칩니다.

재판장은 사회소추자의 발언 및 국가 검사의 론고가 끝났다는 것을 고하고 피소자들에게 최후 진술을 권하였다.

피소자들의 최후진술

피소자 허필순의 최후진술

저는 저같이 더러운 범죄자에게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재판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의 죄상에 대하여 더 말할것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님과 참심원 여러분께서 저의 죄상에 부합되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 주실것을 바랄 뿐입니다。

피소자 최한우의 최후진술

저는 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형벌이라도 달게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조국의 품속에서 진정한 공민이 될 대신 애국자들을 학살한 저의 범행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인민의 원쑤로서 준엄한 처단을 받겠습니다。

피소자 리두현의 최후진술

저는 저같은 범죄자에게 변호인을 부치어 변호까지 하여 주신 재판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같은 죄인에 대하여 변 하여주신 변 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예심에서와 판심리 과정에서 저 범행에대하여 심중히 반성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피소자석에 미제살인귀들과 또 저와함께 그놈들의 살인만행에 가담하였던 자들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들도 저와같이 인민

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피소자 윤명원의 최후진술

저는 제가 감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심에서와 당 공판정에서 전부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와같은 죄를 범하게 한 미국놈들에게 대하여 격심한 증오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공화국 로선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치겠습니다。

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을 바랍니다。

재판장은 이상으로써 소송관계자들의 변론과 피소자들의 최후 진술이 끝났다고 통고하다。

재판소는 판결을 작성하기 위하여 12시에 퇴정하였다。

공판은 오후 2시 10분에 회복되였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　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써

1952년 5월 25일부터 동월 29일까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형사부는 재판장 판사 박경흐 참심원 리흥렬 참심원 김문석을 성원으로 하고 서기 김영주가 렵회한 공개한 공판에서 검사 안병진과 사회소추자 주황섭 신성순 변호인 지영대 현창형 김한준의 관여 밑에 1951년 4월 17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조 및 형법 제71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허필순 동 최한우 동 윤명원과 동정령 제1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리두현등 4명의 사건을 심리하였다。

1、허필순 1932년 6월 6일생。남자。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에 거주하고 직업은 없음。

2、최한우 1921년 9월 1일생。남자。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에 거주하고 직업은 행상。

3、리두현 1931년 6월 6일생。남자。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에 거주하고 직업은 없음。

4、윤명원 1932년 8월 6일생。남자。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사직리에 거주하고 직업은 전공。

당 재판소는 예심 및 공판심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9월 6일 남조선에 상륙한 이래 조선문제에 관한 제반 국제협약들을 란포하게 위반하고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리승만 매국역도들을 규합 사수하여 공화국 남반부에서 팟쑈적 군사 경찰적 테로 살륙정책을 감행하여 왔다。그들

은 전체 애국적 조선인민들이 갈망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꾸준한 노력을 끝까지 무시하고 할줌도 못되는 매국역도들로 하여금 괴뢰정권을 날조케 하였고 또한 그 무리들을 사수하여 자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여온 특별계획안에 의하여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개시함으로써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시키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곧 월·스트리―트의 주구인 트루맨의 지시에 의하여 태평양 연안에 있는 륙해공군을 총동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간섭에 들어섰다.

그러나 영용한 조선인민군대의 맹렬한 반격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패배에 직면하게 되자 미제 무력침범자들은 유·엔의 기빨밑에 여러 추종국가들의 고용병까지 동원하여 전쟁을 더욱 가렬케 하면서 제반 전쟁에 관한 관습과 법규 및 인류도덕을 유린하고 무방비 도시와 농촌을 비롯하여 력사적 고적과 학교 병원등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아울러 괏쇼 히틀러군대를 능가하는 야만적이며 식인종적인 살륙방법에 의한 평화적 주민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중적 학살과 강도적 략탈이 그들의 발길이 닿는곳 마다에서 기탄없이 감행되었으며 침략자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유독성까스와 세균무기의 사용등으로 인류력사상 최대의 죄악을 범하였으며 범하고 있다.

특히 본건 예심과정에서와 공판심리를 통하여 판명된 바와같이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 북반부의 일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동안 그들이 도처에서 조선인민에게 대하여 수없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모든 죄악들은 오늘의 전인류 사회에서 또는 후손만대에까지 한없는 분노와 저주를 일으킬 야수적인 악랄한 범죄행위로 되는 것이다.

1950년 10월 17일 미군이 황해도 신천군 일대에 침입하자 동지구 미군 지휘관 해리슨은 자기의 명령은 「법」과 같으며 이를 위반하는자는 무조건 총살한다는 위협과 함께 소위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북한을 구원」하기 위한것이라는 엉뚱한 위선으로 전체

애국적 조선인민을 공산주의자 또는 그의 동정자라는 명목을 씌워 전부 학살할 목적에서 민족반역자와 무뢰한을 끌어 모아 소위 경찰대 무장대 치안대등등 살인 집단을 조직하고 이들을 살인귀 미군의 보조부대로 삼아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단인 동족상살의 간악한 방법으로 대중적 주민 학살을 조직하고 지도하였으며 그를 직접 집행하였던 것이다。

즉 1950년 10월 18일 해질 무렵 미제의 교형리 해리손은 자기의 명령에 의하여 체포한 약 300여명의 부녀와 아동을 포함한 평화적 주민 900여명을 소살할 것을 지령하였다。

이 지령은 즉시로 로동당 신천군당 앞 마당에서 현장에 나선 해리손의 직접 지휘하에서 그의 직속 부하인 미군 30여명과 보조부대인 소위 경찰대 무장대등에 의하여 집행되였다。그들은 강제로 900여명의 옷을 벗기고 결박하여 한구뎅이속에 몰아넣은 다음 사람과 의복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불길을 피하려고 날뛰는 사람들에게는 총탄을 퍼부었다。

피소자 허필순은 소위 신천경찰서 무장학생대장으로서 대원 장응찬 리며준 하동익외 10여명을 인솔하고 미군 살인귀들과 같이 이 범행에 가담하여 대원들을 범죄적 만행으로 추동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손으로 많은 사람들의 옷을 벗겨제치고 손을 결박하는등 살인광들의 앞장으로 나서서 결박 당한 사람들을 고함을 지르면서 구뎅이 속으로 몰아넣고 미군들과 같이 그들의 머리 위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돌아다녔으며 미군의 손에 의하여 점화된 다음에는 불길속에서 주검을 피하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엠완」보총을 발사함으로써 15명을 사살하였다。

피소자 리두현도 소위 신천경찰서 무장대원으로서 직접 이 범행에 참가하여 화염속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총을 란사하였고 피소자 최하우는 소위 신천 경찰서 수사계원으로서 피소자 윤명원은 소위 신천 경찰서 무장대원으로서 이 범행에 참가하였다。

아직도 사람들이 주검의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해리손

은 생매장을 명령 하였다. 해리슨은 미군 살인광들과 본건 피소자들이 소속된 보조부대에 의하여 이 야수적 방법에 의한 집단적 학살이 완전히 끝난것을 상세히 검열하고야 그 자리를 떠났다.

1950년 10월 19일 밤 1시 해리손의 지령에 의하여 320여명의 평화적 주민이 미군과 그들의 보조부대인 무뢰한들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이 범행에 직접 참가하였던 피소자 리두현의 진술에 의하여 판명된 바와 같이 그날밤 미제 살인귀들은 토동당 신천군당부 주위에 굴설되었던 전호속에 일반주민 320여명을 5, 6명씩 한데 결박하여 쳐박아넣고 자동차 헤트라이트를 비치면서 총살을 집행하였다. 피소자 리두현은 이 범행에 참가하여 미군과같이 보총 5발을 발사하였다.

또 1950년 10월 20일 해리손은 미군과 무뢰한들로 구성된 보조부대에게 일반 주민 520여명을 학살할것을 지령하였다. 이 학살은 신천군 내무서 뒷 방공호에서 집행되었다. 150명 이상의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520여명의 의복을 전부 벗겨서 방공호속에 몰아넣었다. 이것은 피소자 허필순과 최한우가 진술한바와 같이 학살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시체로써는 알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후일 그를 다시 발굴하여 공산주의자들이 후퇴할때 감행한 것이라고 기만 선전하여 살륙의 책임을 조선인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게 하자는 해리손의 명령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이다. 520여명을 몰아넣은 방공호에 두곳밖에 없는 통로가 모두 소나무 —널판과 흙가마니로써 완전히 밀폐된 다음 이미 방공호내부 두개소에 장치된 다이나마이트에 련결되어 있는 도화선 끝에는 외부로부터 미군에 의하여 불이 달려졌다. 이렇게하여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 인민위원회 서기장 김순교같은 마을녀성 김변화 덕주인민학교 교장 홍씨 신천녀자중학교 교원 최진희를 비롯한 평화적 주민 520여명이 질식과 방공호 내부의 폭파로서 이날 참살되였다.

피소자 허필순은 무장학생대원 장은찬 김창수 리월용등 10여명을 인솔하고 미군 20여명과같이 해리손 앞에 모여서 체포한 주민들을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회합에도 참석하여 각종

악랄한 살인방법을 해리손에게 제의하였다. 피소자 허필순은 이 범행에 참가하여 미군들과 또 자기가 인솔하는 무장 학생 대원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의복을 벗기고 몸을 결박하여 방공호속에 몰아넣으며 흙가마니를 방공호 통로에 쌓아올렸다.

피소자 최한우도 이 범행에 미군들과 같이 참가하였는바 그는 무장대원 박태화등 10여명을 인솔하여가지고 체포하여 온 신천군 인민위원회 상공과장 (성명미상) 등 27명을 방공호속에서 질식 폭사당하게 하였다. 방공호의 폭파와 함께 전원의 완전 살해를 확인한 해리손은 현장에서 미군을 비롯한 범행 참가자들에게 수고하였다고 하면서 담배를 한대씩 나누어 주었다.

1950년 10월 23일 오후 3시경부터 로동당 신천군당부 전호에서 역시 해리손의 지령에 의하여 350여명의 평화적주민이 미군과 그들의 보조부대에 의하여 총살되었는바 피소자 리두현은 미군속에 섞이어 직접 이 범행에 참가하였다.

미군의 침입 즉시로부터 수일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감행한 평화적 일반 주민에 대한 집단적 대중학살은 신천시내에서만도 이러했다. 물론 미제 살인마들의 이러한 야수적 학살은 그후도 끝임없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계속되였던 것이다.

1950년 10월 하순부터 11월말까지 기간에 피소자 허필순은 해리손의 명령에 의하여 신천군 남부면과 용문면에서 40여회에 걸쳐 무장학생대원을 인솔하여 미군들과 같이 1、640여명의 일반 주민을 총살하였다. 또 그는 미군들과 같이 해리손을 따라 신천군내 14개면을 두 차례나 순찰하면서 동년 11월 초순 궁흥면에 이르러서 주민 15명을 미군들과 같이 총살하였다. 해리손은 순찰하는 지역들에서 1、100여명의 체포당한 사람들을 검열하고 속히 「처리」할것을 지령하였으며 학살방법을 설명하여 주었고 직접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었다.

영웅적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의 진격에 의하여 조선인민을 「정복」하려던 야망이 파탄되고 절망적 패망에 직면하게 되였을 때 미제 식인종들의 발광은 더욱 포악하여졌다 1950년12

월7일 도주를 앞둔 해리손의 발악적 명령에 의하여 신천교의 원암리에 있는 두개소의 창고에서 200여명의 유아들이 포함된 주민 910명이 참살되였다.

미군들과 무뢰한들은 감금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조짚과 나무(사과나무 전 1한것)를 펴고 휘발유를 부은다음 불을 질렀고 다시 그들은 불붙는 창고안에 많은 수류탄을 있는대로 던졌다. 이 창고 내부의 시체중에서 신천군 신천읍 교탄리 정윤기(10세남아) 정성녀(16세녀아) 정옥녀(14세녀아) 정장수(2세남아)의 일가족이 그들의 어머니의 시체와 같이 있었고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 인민위원회 서기장 김순교의 처 임신부 리용국과 그의 세살나는 아들 김정민 신천군 신천면 사직리에 거주 전공인 최영화(38세)와 그의 처(성명미상 32세) 딸 3명(3세 7세 10세) 아들(13세) 등 전가족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 5구7반 김윤국(39세) 그의 아버지(성명미상 65세) 및 산후 2개월 되는 그의 처와 영아등 전가족 신천군 신천면 사직리 중학교 교원 김만선(41세) 그의 처 문숙화의 3명의 전 가족. 신천 인민병원 약국에 근무하던 유갑수 신천군 소비조합 직원 리한구등이 겨우 식별되였을 따름이였다. 또 다른 한 창고 내부에는 200여명의 유아들의 시체가 출입문쪽에 첩첩히 싸여있었다. 이 굶어죽고 얼어죽은 유아들의 시체중에는 주검의 고통속에서 벗어져 나오려고 헤매였던 까닭에 손톱과 손끝이 닳아서 피투성이로 된것이 많았다.

피소자 허필순은 자기가 인솔하고 참가한 무장학생대원 장응찬 리월용등 10여명에게 명령하여 수류탄 80여개를 투탄시켰고 미국 살인귀들과 같이 자신도 많은 사람들을 옷을 벗겨 창고속에 몰아넣은 다음 불붙는 창고속에 수류탄 15개를 던졌다. 피소자 윤명원도 이 범행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피소자 최한우는 이 범행에 참가하여 미군들과 같이 조짚을 안아다가 사람들에게 씌우고 휘발유를 그위에 뿌렸는바 그가 무장대원 언호순과 같이 신천군 북부면에서 체포하여다가 몰아넣은 부녀자와 유아 38명도 이 창고안에서 참살되였다.

피소자 허필순 동 최한우 동 리두현 동 윤명원등은 미군살인귀들과같이 이러한 야수적 학살에 직접 참가한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리슨의 지령에 의하여 광범한 인민속에 미군이 패주후에는 원자탄을 사용한다는 허설을 류포하여 주민들을 남쪽으로 몰아내기로 광분하였다。이것은 「공산주의의 새로운 계승자들」을 발생시키지 말기 위하여 한명의 주민도 남기지 말고 남쪽으로 쫓아내여 멸살하려던 미제국주의 식인종들의 기도에 의하여 취해진 흉계인것이다。

평화적 주민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집단적 대중학살은 신천군의 다른 지방들에서와 기타 미제 야수들이 침입하였던 지역 전반에서도 빠짐없이 감행되였다。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류례없는 잔인성과 야수성은 상술한 집단적 대중 학살에서만 발현된것이 아니라 형언하기조차 곤난한 가지 가지의 다른 범행 형태로서도 나타났던 것이다。

1950년 11월 중순 신천군 온천면 응봉리 열성농민 유인준의 부친 유흥봉 (84세) 로인의 전신을 담군 인두로 지지다가 나중에는 곡괭이로 찍어 살해하였다。

1950년 10월 하순 신천군 온천면 응봉리 리복배의 가족 10명게부가 인민군의 가족이라는 것으로 학살되였는바 리복배의 아들 민경권 (2세) 딸 민경자 (9세) 민경열 (5세) 은 생매장 되었고 그의 동세 박사수 (22세) 녀자는 국부에 말뚝을 박아 각각 살해하였다。

1950년 10월 17일 신천군 신천면 경지리 인민위원회 송인수 위원장은 두개골에 못을 박아 살해하였고 같은날 신천군 신천면 김인애의 형인 가정부인 김인영 (22세) 은 두살나는 어린애를 업은채 생매장을 당하였다。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 우말제의 남편 박도제 (54세) 는 손과 귀와 코를 철사로 께우고 못으로 모범농민 표창장을 이마에 박아붙치운후 악독한 고문을 가하여 살해되었고 만행을 재지하려고 한 그의 며누리 리옥봉 (23세) 을 잡아 마제로 한 다음 국부에 말뚝

을 박고 나중에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였다。뿐만 아니라 우만제의 자녀 박성권 (25세) 박정찬 (14세) 박성일(7세) 박성녀 (12세) 박순희 (5세)를 그 주석에서 모주리 총살하였다。

다수확농민의 아들이라하여 13세의 김재순소년의 두 눈알을 뽑아 살해하였고 1950년 10월 중순 초급중학교 소년단장 리명조(17세) 소년은 목위에 가로 놓은 말장을 량쪽에서 밟고 눌러 살해하였다。

1950년 12월 3일 미군 2명은 감금당한 녀자중학교 교원 문예빈과 그의 동생을 강간한후 총살하였으며 미제야수들은 신천 온천에 녀학생 리근연 (20세) 백연화 (17세) 곽춘자 (21세) 와 한옥선 (19세) 유명옥 (18세) 김광녀 (16세)등 많은 녀성들을 감금하여 놓고 릉욕한후 총살하였다。

이렇게 미제강도배들이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 또는 로동당원을 「처단」한다는 더무니없는 야수적 학살에 대한 구실은 결국 애국적 조선인민 전부를 적대시하고 멸살하려는 흉악한 기도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라는 것이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당 재판소의 공판심리를 통하여 판명되였다。

평화적 주민에 대한 주저없는 학살에는 비단 미군과 그의 보조부대인 무뢰한들만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종교의 탈로서 위장된 종군목사 혹은 신부들 즉 소위 「차프린」이라고 칭하는 특수부대도 이에 동원되였던 것이다。그들 소위 목사 혹은 신부들은 반공사상과 숭미사상의 선전자였을 뿐만아니라 학살범죄도 직접 수행하였다。또 해리슨을 위시로 한 미군은 체포한 애국자들중 다수를 남쪽으로 강제로 이송하여 「처리」하였다。1950년 11월 신천군 문화면에서 체포된 애국자 490여명이 해리슨의 명령에 의하여 남쪽으로 압송된 사실이 있다。피소자 허필순은 이 490여명을 문화면에서부터 신천까지 이송하여 미군에게 넘겨 주었다。

이렇게 하여 미제 야수들은 해리슨의 직접 지휘를 통하여 2개월이 못되는 일시적 강점기간에 신천군내에서만 16,234명의 녀성을

포함한 실로 35.383명의 평화적주민을 학살하였다。

이러한 미제 야수들의 학살만행에는 어데서나 반드시 조선공민의 재산에 대한 강탈이 그림자처럼 병행되었던 것이다。침략자들은 조선공민이 자기의 민주건설의 혜택으로 이룩한 거대한 재부 귀금속 일용품 의류 식량 및 현금과 가축들을 마음대로 강탈하였다。일시적 강점 기간중 신천군에서만 축우 1,320여두 말28필 돼지 2.610두 닭 5,630여마리를 비롯한 수다한 공민의 재부를 략탈하였다。

미제 야수들은 영용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 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쫓겨난 뒤에도 침략의 망상을 집요하게 유지하였다。그들은 끌고 나갔거나 자기를 따라나간 북반부 사람들을 기만과 공갈로써 군사간첩으로 조직 훈련하여 침략전쟁수행에 리용하는데 착수하였다。그들은 자기들의 뒤를 따라 도주한 피소자 허필순 최한우 윤명원등을피어 신천지구에 군사간첩으로 잠입시켰던 것이다。

피소자 허필순은 미제 침략자들의 군사간첩으로 된후 1951년 2월중순 신천지구에 잠입하여 인민군 중대장으로 가장한후 신천지구에서 군사포치와 이동상황 군사시설 병력 및 중요기관의 소재등을 탐지하여 백령도 적편에 전달할차로 가던 도중 인민군에 체포되었으나 탈주하여 가지고 신천지구에 다시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계속하였고 피소자 최한우는 1951년 3월중순 군사 간첩과 동시에 후방교란을 위하여 군사시설에 대한 폭파의 책임을 받고 신천지구에 잠입하여 활동을 계속하였고 피소자 윤명원은 1951년 2월 초순 군사간첩이 되어 김덕준등 4명과 함께 신천지구에 잠입하던 도중 신천군 두라면에서 로동당원 유가족 2명을 체포하여 가지고 신천군 남부면 능동리에까지 끌고가서 학살한후 간첩활동을 하였다。그러나 이 군사간첩들은 활동중 목적을 달성 못한채로 체포되고 말았다。

이상에서 판명된 공화국 황해도 신천지구에서 발생한 사실들은 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그의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일단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당 재판소는 피소자 각개인에 대한 죄상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피소자 허필순은 음주 방탕하고 좀도적이된 탓으로 신천 고급중학교 2학년에서 출학당하였고 그후 직업이 없이 불량자 생활을 하던중 미군이 신천에 침입하게 되자 해리슨이 조직한 소위 경찰대의 학생 대장이되어

(가)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구뎅이에서의 900여명의 주민학살을 비롯하여 동년 10월 20일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의 520여명 학살 동년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의 신천군 용문면과 남부면에서의 1,640여명 학살 동년 12월 7일 신천교의 원암리 소재 두개소 창고에서의 910여명 학살에 직접 참가한 학살집행자의 한사람이고

(나) 1950년 12월 패주하는 미군을 따라갔다가 군사간첩이되어 1951년 2월 신천지구에 잠입하여 활동하였다。

2. 피소자 최한우는 행상인이였던바 미군이 신천에 침입한때부터 소위 경찰대 수사계원이 되어 가지고

(가)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부 앞구뎅이에서의 주민 900여명 학살과 동년 10월 20일 신천군 내무서 방공호에서의 520여명 학살 및 동년 12월 7일 신천교의 원암리 소재 두개소 창고에서의 910여명 학살에 직접 참가하였고

(나) 1950년 12월 패주하는 적과같이 남으로 도주하였다가 군사 간첩이되어 1951년 3월 신천지구에 잠입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였다。

3. 피소자 리두현은 직업이 없이 있다가 미군이 신천지구에 침입한것을 계기로 소위 무장대에 가담하여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구뎅이에서의 주민900여명 학살과 동월 19일 로동당 신천군당 앞구뎅이에서의 320여명 학살 동월 23일 로동당 신천군당부 주위 전호에서의 330여명 학살에 직접 참가하였다。

4. 피소자 윤명원은 기독교를 신앙하여 오던자였는데 미군이

신천지구에 침입 한때부터 소위 경찰대에 가담하여

(가) 1950년 10월 18일 로동당 신천군당부 앞구뎅이에서의 주민900여명 학살과 동년 12월 7일 신천교외 원암리 소재 두개소 창고에서의 910여명 학살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나) 1950년 12월 패주하는 미군을 따라 남으로 도주하였다가 그후 미군 군사간첩이 되어 평화적 주민 2명을 살해하고 신천지구에 잠입하여 정탐활동을 하였다。

이상 사실은 당공판심리에 제출된 증거물 제1호로부터 제28호에 이르는 사진 28점과 증인 오태식 최광희 김만석 우말제 김현춘 오수복 리복배 박설화를 비롯한 증인 16명의 증언과 피소자들의 자공 진술에 의하여 증명된다。

피소자 허필순의 범죄사실 (가) 피소자 최한우의 범죄사실 (가) 피소자 윤명원의 범죄사실 (가) 과 피소자 리두현의 범죄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였던 지역내에서 적들과 결탁하여 조국을 배반하고 갖은 악독한 수단으로써 무수한 애국자와 인민들을 헤토 학살한 악질적인 반국가적 범죄로서 각각 1951년 4월 17일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명제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피소자 허필순의 범죄사실 (나) 피소자 최한우의 범죄사실(나)피소자 윤명원의 범죄사실 (나) 의 공화국의 군사상 기밀을 탐지하여 적편에 제공하려던 간첩행위는 각 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 7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인정한후 당재판소는 형사소송법제 223조 제228조1호 제23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피소자 허필순에 대하여 1951년 4월 17일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명제1조에 의하여 사형(교형)을 형법제71조에 의하여 징역 15년을 각 각 량정하고 형법 제50조 1항에 의하여 동인을 1951년 4월 17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의 사형(교형)에 처한다。그에 속하는 재산은 전부 몰수한다。

피소자 최한우에 대하여 1951년 4월 17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에 의하여 사형(교형)을 형법 제71조에 의하여 징역 10년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제50조 1항에 의하여 동인을 1951년 4월 17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의 사형(교형)에 처한다。그에 속하는 재산은 전부 몰수한다。

피소자 리두현을 1951년 4월 17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정령 제1조에 의하여 사형(교형)에 처한다。그에 속하는 재산은 전부 몰수한다。

피소자 윤명원에 대하여 1951년 4월 17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에 의하여 사형(교형)을 형법 제71조에 의하여 징역 15년을 각 각 량정하고 형법 제50조 1항에 의하여 동인을 1951년 4월 17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조의 사형(교형)에 처한다。그에 속하는 재산은 전부 몰수한다。

1952년 5월 29일
평 양 에 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박 경 호
참 심 원 리 흥 렬
참 심 원 김 문 석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고 피소자들에게 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특사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공판은 오후 3시에 폐정되다。

신천대중학살사건
공판문헌

1952년 11월 25일 인쇄
1952년 11월 30일 발행

저자 최고재판소
발행소 국립출판사
인쇄소 국립출판사 인쇄공장

(값 122원)

7—05568 발행부수 10,000부